

VISIT...

LANZAROTE
Caliente.COM

CONCEPT

VOL. 167

Architects Concept _ Zaha Hadid Architects

Architects Concept

Zaha Hadid Architects

Blue Economy House Special Issue

CapitaLand Raffles City Chengdu Steven Holl Architects

La Liberte Building 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

The Grove At Grand Bay BIG



LG 휘센 시스템에어컨이 돈 버는 인테리어입니다

이유는 확실합니다. 10년 앞선 인버터 기술의 1등급 에너지 효율 냉난방 에어컨!
추가 전기설치비 없고, 유지비도 적고, 디자인까지 고급스럽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당신의 가게에 LG 휘센 시스템에어컨부터 설치하세요



※ 새롭게 강화된 에너지 효율 기준에서도 L-Style 인버터 전모델 1등급 획득

LG WHISEN 시스템에어컨

◆ 지역별 시스템에어컨 구입 문의처 (서울)강남팀 02-6456-4811 (서울)강북팀 02-6456-4710 (서울)강서팀 02-6456-4702 (경기/강원)중부팀 070-8610-7114 (인천)인천팀 070-8610-7001 (부산)부산팀 070-8610-7139 (경남)강남팀 070-8610-7080 (강북)강북팀 070-8610-7252 (충청)충청팀 070-8611-0350 (호남)호남팀 062-710-5840 ◆ 시스템 에어컨+조명 제품 상담 공조&에너지팀 02-6456-4706 ◆ 학교/관공서 시스템에어컨 상담 시스템공공팀 02-6456-4716
◆ 건설사 시스템에어컨 상담 시스템수주팀 02-6556-4793 ◆ 설비/설계사무소 제품 상담 Spec-in 팀 02-6456-4881 ◆ 제품 홈페이지 kr.lgeaircon.com
◆ 사용불편 및 고장 접수 LG전자 서비스센터 1544-7777/1588-7777 ◆ 서비스 사이트 www.lgservice.co.kr
유지보수/세척 상품 구매 문의 시스템에어컨 유지관리 전문기업 하이엠 솔루텍 02-6940-0109

MARU Interior Design
CONCEPT International Competition
CA Contemporary Architecture

www.capress.co.kr | capress@chol.com

www.capress.co.kr

CA/현대건축사는 약 600여종에 이르는 건축, 인테리어, 조경 등 디자인 전문 잡지 및 서적은 물론 다양한 서적 등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보다 편리한 도서 구매를 위하여 새롭게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CA/현대건축사에서 발행되는 도서(CA, MARU, CONCEPT 과월호 및 건설지)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매담당 : Tel. 02-455-8043

CApress

101 Blue Economy Houses

House is not just a simple structure for human life. It can be called an organism which gives various influences to human physiology and psychology. Human minds or characters are greatly influenced by their residences and environments. And therefore, pleasant residences give great influences to human mental life and the whole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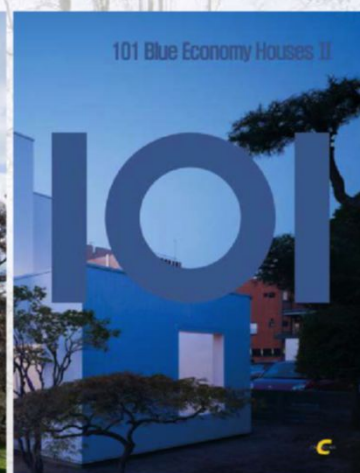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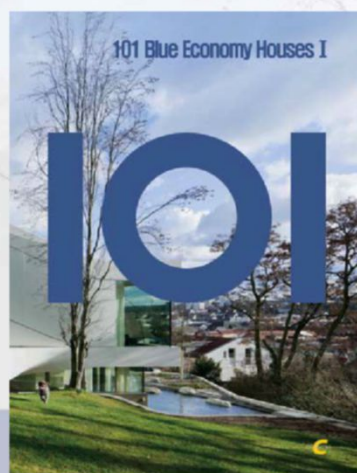
Accordingly in 21 century, there is a trend that numerous types of residences are born which have various functions. Recently, blue economy house which is a future residence becomes a big topic. Blue economy house is a sustainable low - energy - consuming house which transcends simple nature conservation level but up to a regeneration level.

101 House introduces 101 works of houses which are classified into 5 themes (Country House, Urban House, Blue Economy House, Pension, Town House & Housing) by following the recent trends of domestic and foreign houses which are variously changing according to life cycles.

주택은 인간생활의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다. 사람의 생리와 심리에 다양한 영향을 주는 유기체라고도 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이나 성격은 그가 사는 집과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쾌적한 주택은 사람의 정신적 안정과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21세기에는 다양한 기능을 갖는 집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미래형 주택인 블루 이코노미 하우스가 화제가 되고 있다. 블루 이코노미 하우스는 단순한 자연 보호의 차원을 넘어, 재생산을 의미하는 지속가능한 저에너지형 하우스이다.

101하우스에서는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국내외 주택의 최근 경향과 트렌드에 맞춰 5개의 테마(전원주택, 도시형 단독주택, 블루 이코노미 하우스, 펜션, 타운하우스, 집합주택)로 분류하여 101개의 작품을 소개한다.



+ Size 229×300mm

+ 352 pages(All Color)

+ 정가 87,000원

구매문의 : Tel. 02-455-8043

www.capress.co.kr

E-mail. capress@hanmail.net

jsjcapress@naver.com

Price USD 83,

Euro 69

Imagine Design Freedom ...

AV 18966
Double glazed insulating
glass, gas filled. Facade
point fixed with crystal
clear silicone adhesive.

Crystal Clear Bonding - for Point Fixed Construction

New generation of structural adhesives -
Dow Corning® TSSA enabling:

- A sleek, flush glass appearance
- Invisible structural bonding
- Smaller point fixing connections*

* Approximately 10 times less than when compared to standard sealant

AV 18965
Point Fixation Detail

DOW CORNING

**High Performance Building
Solutions**

Dow Corning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Dow Corning Corporation.
© 2012 Dow Corn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Pictures courtesy of Cordeel AV18965, AV18966. Lit-Nr. 62-1695-01

CONSTRUCTION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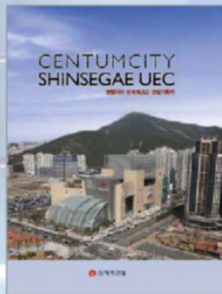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귀사의 건설기록지를 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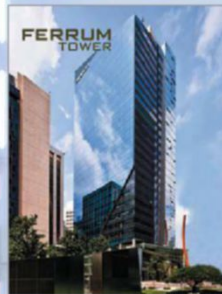
송도컨벤시아
포스코건설



T-Tower
SK건설



센텀 신세계 UEC
신세계건설



동국제강 페럼타워
GS건설



당진시청사 및 의회청사
계룡건설



금천구종합청사
SK건설



강원 하이원 리조트
태영건설



대구 두산위브더제니스
두산건설



백남준아트센터
현대건설/삼우/간삼



제주도립미술관
한화건설/삼우



예술의전당 BK햄버울 조성공사
삼환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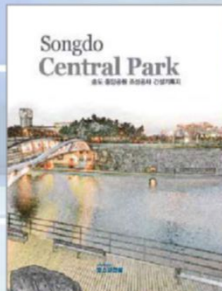
문화콘텐츠센터
경남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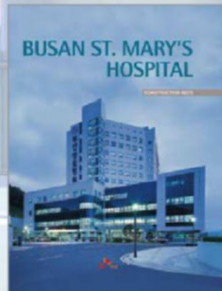
화성시 복합복지타운
코오롱건설



서울월드컵경기장
서울특별시 월드컵주경기장 건설단



송도 중앙공원 조성공사
포스코건설



부산성모병원
SK건설

■ 주요 건설지 사례 ■

여수 엑스포 아쿠아리움(한화건설)
NHN신사옥(현대건설)
대전재개발아파트(포스코건설)
동탄메타폴리스(포스코건설)
베트남 하노이 랜드마크타워(경남기업)
부산센트럴스타(포스코건설)
세종시국립도서관(대림산업)
송도테크노파크IT센터(코오롱건설)
인천아시아게임 남동경기장(신동아건설)
진해해군사관학교(코오롱건설/한진중공업)
충남도청사 및 의회청사(계룡건설)
충주의료원(삼우설계)
파주당동 꿈에그린(한화건설)
포스코R&D센터(포스코건설)
포스코송도신사옥(포스코건설) 외
국내 최고·최대 건설기록지 진행

CA press
현대건축사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289-5 에이팩센터 307호(133-120)
Tel_ 02-455-8040 Fax_ 02-455-8045
E-mail_ capress@hanmail.net www.capress.co.kr



마루는 아름답고, 동시에 강해야 한다
당신의 드라마가 모두 펼쳐지는 곳이니까

365일 강하고 아름답게 - 한화 센트라 프라임

Powerful 강마루

초경도 나노 UV세라믹
도장처리를 하여 찍힘과 긁힘에
강하고 매우 견고합니다

Beautiful 강마루

한화L&C만의 디자인 인프라로
천연원목 느낌의 세련된
색상과 패턴을 선보입니다

Healthful 강마루

최고급 SE0급 합판을 사용하였고,
친환경 건축자재
최우수 인증을 받았습니다

Volume. 167

CONCEPT

News 010 News

ARCHI Object 016 참 스틱 비전디비전

International Competition 024
활기찬 도시 2050 팀 이너지
2012 도시 재생 에릭 가우디스 아키텍츠
칭화대학교 법학대학 도서관 코카이스튜디오스
라말라 A.M. 퀴틴 재단 빌딩 도나이레 아키텍토스

Special Issue 050

블루 이코노미 하우스
현명한 에너지 주택 - 빌라 오드만
저에너지 대나무 하우스
생물기후환경(친환경) 실험적 도시화 주택

Parameter 072

그랜드 베이 더 그로브
한킹 난요 뉴타운 어반 디자인 프로젝트 제이거 앤 파트너 아키텍츠
DQZ 문화 센터 홀름 아키텍처 오피스

Architects Concept 092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
엘리 & 에디스 브로드 미술관
씨엘에이 씨지엠 타워
갤럭시 소호
피에르 비베스

Tectonic 132

슬라이드 포로시티 블록 - 캐피타랜드 래플즈 시티 청두
스티븐 홀 아키텍츠
라 리벨테 빌딩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처
어반 콜라주 에두아르 프랑수아

Domestic Competition 162

지리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체험시설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경암 _ 윤창기·양승중·임태형
강동 문화 체육센터 대상건축사사무소 _ 박종석

Index 176 건축가 프로파일



Cover Photo | Prima Focus

발행 및 편집인 정지성
주간 정덕우

취재부
편집장 윤성철
기자 이화정, 이경은, 이가영, 캐서린 최

편집디자인부
실장 맹기영
디자이너 김꽃다비

관리부 이사 신익수, 대리 손미란

광고마케팅 차장 임승권, 김성배

영업국
영업·관리 이사 김병환
영업 전무 윤갑중, 이인섭, 성계왕
해외 영업 모니카 박

사진 차장 최정복, 실장 김영환(항공)
영상 실장 정태욱

편집자문위원 김석철(아키반), 김종훈(한미파슨스),
이광민(간삼파트너스), 류춘수(이공건축), 이필훈(포스코 A&C),
최관영(일진 C&C), 최영집(탑건축), 황일인(일건건축)

편집위원 김동주(에이디에프도시건축), 김태명(이가중합건축),
봉주희(JOOHEE BONG건축/NJIT 겸임교수),
이선재(포스코 A&C), 정철오(Dubai American University),
최아사(계원디자인예술대), 한광호(산 건축)

인쇄 국제피알
발행 CA현대건축사
자매지 CA현대건축, 월간 MARU

Monthly Magazine of CONCEPT

©2013 CA Press

Published by CA Press Co., Ltd.

Concept is Published Monthly, Printed in Korea.

Address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7나길 18 에이팩센터 307호(133-834)
307 APEX Center, 18 Ahasan-ro 7na-gil, Seongdong-gu, Seoul,
KOREA(133-834)

대표번호 : 455-8040

취재부 : 455-8047

편집부 : 455-8067

광고부 : 454-8075

팩스 : 460-9292

학교영업관리 : 3436-6156

E-mail capressconcept@gmail.com

Homepage www.capress.co.kr

본지는 한국정기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자잡지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현대건축에 게재된 독창적인 기사나 사진의 무단복사 및 전제를 금합니다.



beds

cabinets

room divider

shelf system

wardrobe

interlück

bookless

www.interluebke.com



인터럽케 전시장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6-15 TEL. 02-2156-4700

Volume. 167

CONCEPT

News 010 News

ARCHI Object 016 Chop Stick Visiondivision

International Competition 024
Energetic City 2050 Team innergy
2012 Urban Regeneration Erik Giudice Architects(EGA)
Tsinghua Law Library Building Kokaistudios
A.M. Qattan Foundation Building in Ramallah DONAIRE ARQUITECTOS

Special Issue 050
Blue Economy House
Energy Wise House - Villa Odman
Low Energy Bamboo House
House In Bioclimatic Experimental Urbanization

Parameter 072
The Grove At Grand Bay BIG
Hanking Nanyou Newtown Urban Design Project Jaeger and Partner Architects
DQZ Culture Center HAO / holm Architecture Office

Architects Concept 092
Zaha Hadid Architects
Eli & Edythe Broad Art Museum
CMA CGM Tower
Galaxy SOHO
Pierresvives

Tectonic 132
Sliced Porosity Block - CapitaLand Raffles City Chengdu Steven Holl Architects
La Liberte Building 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
Urban Collage Edouard Francois

Domestic Competition 162
Korea National Park Eco Centre at Jiri - Mountain Kyungam Architectecs Associates Ltd _
Yun, Changki · Yang, Seungjung · Yim, Taehyung
Gangdong culture and sports center D' ESSAIM Architects & Emgineers CO.,Ltd _ Park, Jongsuk

Index 176 Architect Index



Publisher & Editor Jeong, Jiseong

Editorial

Chief of Editor _ Yun, Sungchul

Editors _ Lee, Hwajeong · Lee, Kyoungun · Lee, Kayoung
Catherine, Choi

Editorial Design

Team Manager _ Maeng, Kiyoung

Designer _ Kim, Kkochdabi

Management Dept. Shin, Iksoo · Son, Miran

Advertising Im, Seungkwon · Kim, Seongbae

Marketing · Management Dept. Kim, Beoung hwan

Marketing Yun, Kapjoong · Kim, Youngil · Sung, Gyewang

Oversea Marketing Monica Park

Photo Choi, Jeongbok · Kim, Younghwan

Visual Art Director Jung, Taewook

Consultative Committee Kim, Seokchul · Kim, Jonghoon

Lee, Kwangman · Ryu, choonsoo · Lee, Pilhoon

Choi, Kwanyoung · Choi, Youngjeep · Hwang, Ilin

Editorial Committee Kim, Dongju · Kim, Taemyung

Bong, Joohee · Lee, Sunjae · Jung, Chuloh · Choi, Ahsa
Han, Kwangho





철저한 장안정신과
철저한 완벽시공으로
나의 명예와 자존을 걸고
혼을 불어 넣는 시공을 하는 것이
삼협 의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한국건축가협회상 5회 수상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 2회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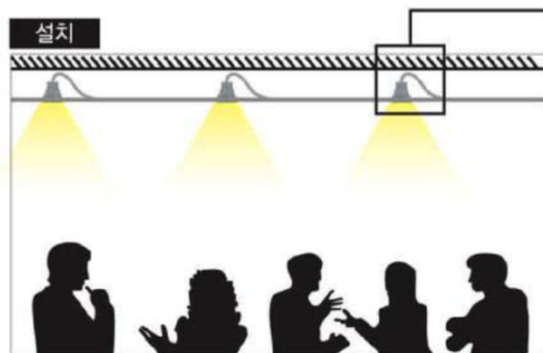
 **SAMHYUB**
construction



[el Coctel Bar Lounge]

조명과 음악을 한번에! 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컴팩트한 사이즈, 천장 매립으로 깔끔한 외관 연출 가능



KTL22C

spec

Power handing (AES)	18W
Frequency range	200Hz ~ 18KHz +/-3dB (preset dependent)
Impedance	32Ω (KT22c)
Maximum SPL	101dB (continuous) / 107dB (Peak)
Coverage	H: 90° / V: 90°
Light	Sources : 6 x 2.5W max RGB Led
	Operating voltage : 22 ~ 28Vdc
	Max : power : 12W @ 24Vdc
Connectors : 4-pin Phoenix screw terminal / K-CTRL for up 4unit	
Dimensions	8.5 dia X 9.6 deep
Weight	0.41kg

DAHOS 2013

제13회 대구건축박람회

참가업체 모집중

2013년 4월 11일(목) ▶ 14일(일) / 4일간
엑스코-EXCO

DAHOS 2013 is...

- 자타가 공인하는 영남지역 최고의 건축전시회
- 참가업체의 다양한 Needs를 고려한 서비스 확대
- 다양한 홍보전략으로 전시효과 극대화 추진
- 대구·경북지역 양질의 관람객 DB 10만명 이상 보유

DAHOS
2013
The 13th Daegu
Housing Expo

DAHOS 2013 전시품목



건축자재 분야



가구 및
인테리어 분야



전원주택 및
주택정보 분야



생활가전 및
디지털홈 분야



욕실 및 주방 분야



냉난방 기기 분야



창호재 분야



조경 및
공공시설 분야

주최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대구 MBC

주관



대구광역시내디자인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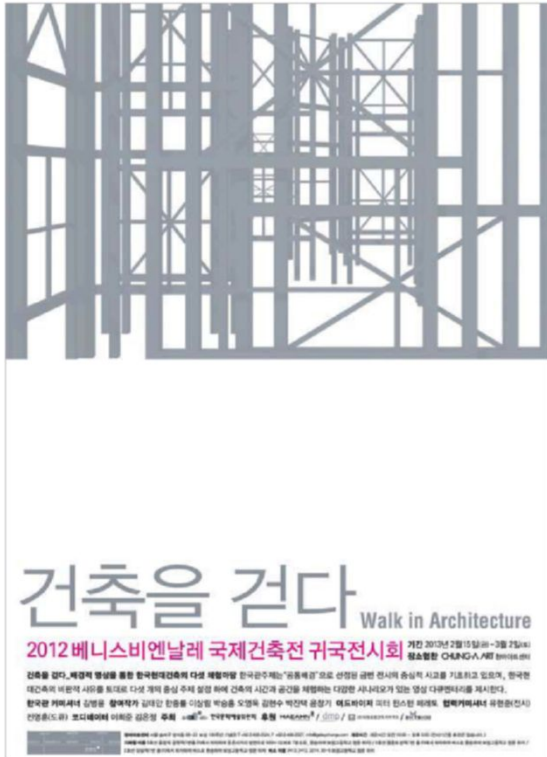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

DAHOS 2013 사무국 Tel: (02) 588-2497 Fax: (02) 588-2599 e-mail: kjs@kimikorea.com

온라인 사전등록

DAHOS 2013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신청시 무료초대권 2매를 보내드립니다 www.dahos.or.kr

2012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건축전 한국관 귀국전시회 개최



2013년 2월 15일(금)에 세계 최고 권위의 미술행사인 '베니스비엔날레(Venice Biennale)'의 회고전이 서울 청아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2012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작품과 성과를 국내 관객에게 선보이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 우리나라 전통 한지에 투사한 11개의 스크린 화면과 전통 방식으로 조립한 목조 틀에 설치된 40대의 모니터화면이 서로 어우러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 과학기술의 결집을 보여주었다.

2012 베니스비엔날레 회고전은 '건축을 걷다 - Walk in Architecture'라는 주제로 김태만(해안건축 대표), 한종률(삼우건축 부사장), 이상림(공간 대표), 박승홍(디엠피건축 대표), 오영욱(oddaa 소장), 김현수(이소우건축 대표), 박진택(Utparchitecture 대표), 윤창기(경암건축 대표)씨 등 총 8명의 작가가 전시에 참여한다.

이번 2012 베니스비엔날레 회고전은 3월 2일(토)까지 계속 될 예정이다.

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2-760-4749



안랩, 굿 디자인어워드 2012 아이덴티티상 수상

글로벌 보안 기업 안랩은 자사 보안컨퍼런스인 AISF 2011(AhnLab Integrate Security Fair, 이하 AISF 2011)에 사용된 디자인이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인 '굿 디자인어워드 2012'에서 아이덴티티(Identity)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상한 디자인은 국내 디자인 컨설팅 전문업체인 '플러스엑스(PlusX)'와 협력해 제작한 것이다. 이로써 안랩은 세 번째로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해 디자인 경연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돋움 했다. 앞서 안랩은 2012년 3월 AISF2011 오프닝 동영상으로 브랜드 뉴어워드(Brand New Awards)를 수상한데 이어 시큐리티맵 영상으로 2012년 11월 스파크 디자인 어워드(SPARK design Awards) 동메달을 수상하였다. 이번에 수상한 AISF 2011 전시 디자인의 컨셉은 여러 도형 조각을 결합해 하나의 도형을 만드는 칠교판 놀이(tangram)이다. 위험과 변수가 많은 보안 영역에서 안랩이 가진 솔루션과 기술이 하나하나 결합되면 단단한 보안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안랩의 ISF 2011 디자인은 컨퍼런스 전체 디자인에서부터 초대장, PPT 문서, X배너에 이르기까지 통일성을 갖고 기업의 이미지를 독창적으로 표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기존 딱딱한 솔루션 소개에서 벗어나 안랩의 전 보안 분야에 걸친 솔루션과 서비스를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독창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보안 기업이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벗고 신뢰감과 젊고 역동감 있는 느낌이 살아있는 점도 호평을 받았다.

문의 안랩 www.ahnlab.com



국립중앙박물관, 일곱 번째 CEO 강좌 ‘건축과 삶에 대한 이야기’

국립중앙박물관은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강의하는 ‘창조적 경영 지도자 최고위 과정(Creative CEO Course)’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창조적 경영지도자 최고위 과정’은 세계 경쟁력의 키워드로 급부상한 ‘문화’ 속에서 창의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창출해내고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기획한 문화경영 혁신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문화, 예술 및 전통문화를 체계적이고도 심도 있게 소개해왔으며 올해의 강좌는 ‘건축’을 주제로 잡았다.

일곱 번째로 개설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건축의 역사와 우리 시대의 ‘건축문화’를 다각적인 시각으로 조망한다. 특히 인류의 삶과 개인의 열정이 만들어낸 세계 문화의 핵심을 ‘건축’이라는 코드로 풀어내는 이번 강좌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21세기 글로벌시대에 맞는 창조적인 경영철학과 문화마인드의 결합을 꿈꾸게 하는 새로운 개념의 강좌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과정은 오는 4월 1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24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특히 김원(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송효상(이로재 대표) 등 건축 현장에 있는 저명한 건축가의 생생한 육성과 김광현(서울대학교 교수), 김개천(국민대학교 교수) 등 다양한 학계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수강신청은 우편, 직접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신청서는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 국립중앙박물관 www.museum.go.kr



제 1차 한양도성 국제 학술회의



서울시는 지난 2월 21일(목)부터 2월 22일(금)까지 이틀간 서울시장, 한양도성 현장, 서울역사박물관 등지에서 ‘한양도성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서울 한양도성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선정된 이후 서울시가 개최하는 첫 국제회의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23일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서울 한양도성(등재명 : SEOUL CITY WALL)을 올린 이래 도시성곽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역사도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세계 유수 도시성곽의 앞선 사례와 한양도성 보존, 관리에 대한 조언을 듣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회의는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인 이코모스(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의 관련 전문가와 국내 학자 등 모두 11명이 발표와 토론에 나섰으며, 초청된 국제 전문가들은 이코모스의 산하 조직인 역사도시분과위원회의 소피아 앙겔리나 - 콜로니아(AVGERINOU - KOLONIA, Sofia)위원장을 비롯한 역사도시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이번 국제 학술회의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발표와 토론의 결과를 별도의 보강작업과 편집을 거쳐 한양도성 학술총서로 거듭나게 된다. 한양도성 학술총서는 국어와 영어를 기본 언어로 발간될 예정이며, 한양도성과 관련된 연구자와 시민들의 충실한 지침서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매년 2~3편의 학술연구총서가 발간되어 시민과 전문가의 한양도성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시작으로 국제학술회의와 국내학술회의를 매년 개최한다. 올 하반기에는 ‘동아시아 도성제와 도시형태’라는 주제로 2013년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매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권위 있는 행사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서울특별시 www.seoul.go.kr

한국적 공간 확산을 위한 정책포럼 - 한국적 실내공간,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하는 ‘한국적 실내공간,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포럼이 지난 2월 7일(목) 오후 2시,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적 실내공간의 확산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적 공간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담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먼저 성균관대학교 안대희 교수가 ‘조선후기 사대부 주거공간의 특징과 미의식’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과거 생활상을 통해 본 전통 공간의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보는 자리를 갖고, 이 후 예나르 스페이스 김호연 대표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적 공간 개념을 적용한 인테리어 사례들을 소개하는 ‘한국적 공간의 꾸밈 사례’라는 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건도연 국가한옥센터 이강민 센터장이 ‘한국적 실내공간의 확산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적 실내공간의 확산 필요성과 이를 보급, 확산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포럼은 21세기 한류문화의 그릇으로서 한국적 공간의 가치를 되짚어보고, 한국적 실내공간을 매개로 일상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방안을 탐구하며, 나아가 선진 공간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연초제조창, 존재하다’ 선정

국립현대미술관은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구 청주 연초제조창 일대에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현상설계공모를 개최하여, (주)원도시건축건축사사무소와 (주)팀텐건축사사무소의 작품 “연초제조창, 존재하다”를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사업은 국가적 예술자산이자 문화유산인 미술품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연구 위한 시설 기반을 구축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이 보유한 전시, 교육 콘텐츠의 지역 확산 및 향유를 위한 문화시설 구축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존 청주 연초제조창을 리모델링하는 이번 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가치와 흔적을 보존, 활용하고 도시의 기억과 역사를 함축하여 보여주는 장소인 동시에 새로운 문화 예술 기능과의 공존을 통해 도시 내 문화예술 기반시설로서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설계공모의 심사위원장인 김광현 교수(서울대학교 건축학과)는 심사평을 통해 “당선작인 ‘연초제조창, 존재하다’[(주)원도시건축 + (주)팀텐건축]는 수장고 매스를 기존 건물 외벽 사이에 끼워 놓은 형상이며, 벽과 수장고 사이의 공간도 전시장 등으로 활용하게 만들었다. 수장고 하단부에서는 벽을 사선으로 만들어 긴 건물의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보게 하는 공간적 효과를 얻었으며, 기존 건물이 가지고 있는 구조의 격자 체계를 그대로 공간으로 보여 주면서도 깊이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특히 다른 작품과는 달리 산업시설에 대한 기억을 표현하려는 의지가 나타나 있으며, 외부를 그대로 두면서 내부를 강력한 공간으로 건물을 경신시키려는 의도가 잘 나타나 있다”고 평하였다. 한편 우수작으로는 (주)사이클렌건축사사무소의 “TIME STORAGE(시간 저장소)”, 가작으로는 (주)아키텍스종합건축사사무소의 “공공공간(公共空間)”과 (주)이유건축사사무소 + 단아건축사사무소 + (주)중합건축사사무소 도가의 “Urban Cube”가 각각 선정되었다.

문의 국립현대미술관 www.moca.go.kr



TIME STORAGE(시간 저장소) - (주)아키텍스종합건축사사무소



연초제조창, 존재하다 - (주)원도시건축건축사사무소 + (주)팀텐건축사사무소

해양도시 포항을 위한 도시디자인 세미나



포항시는 지난 2월 19일(화)에 포항시청 문화동 대강홀에서 국토연구원 산하 건축도시 공간연구소와 공동주관으로 ‘해양도시 포항을 위한 도시디자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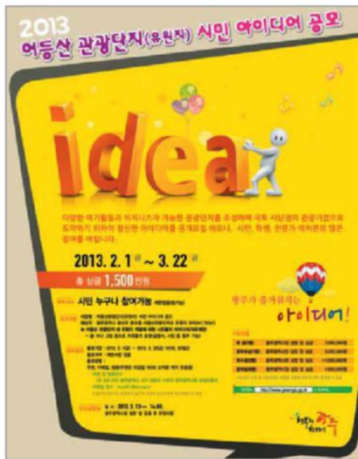
이날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비롯한 관계전문가들은 세미나 참석에 앞서 박승호 포항시장과 함께 ‘테라노바 포항 프로젝트’ 현장인 포항운하, 중앙상가 실개천거리, 구룡포 근대역사문화거리, 북부해수욕장 등 도시디자인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가 후원했으며 전국의 학, 협회 임원 및 전국 지자체 공무원, 지역 건축가들이 참석했다. 대구대학교 최병두 교수가 ‘역사적 경관의 복원과 장소 정체성’을 주제로 기초발제를 한 뒤 경주대학교 김경대 교수의 ‘해양도시 포항의 도시디자인 방안’, 차주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관연구센터장의 ‘건축, 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과제 발표가 이어졌다.

아울러 포항시가 그간 이루어온 도시디자인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 방안 모색과 국가와 지자체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시간도 가졌다.

문의 포항시청 www.ipohang.org





~ 03. 22
어등산 관광단지 시민 아이디어 공모

광주광역시에서는 다양한 여가 활동과 비즈니스가 가능한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국토 서남권의 관광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광주광역시 어등산 관광단지 내 '유원지' 부지를 대상으로 하며, 아이디어는 글이나 그림 등 자유롭게 표현하여 결과물을 제출하면 된다. 응모 기간은 3월 22일(금)까지이며, 4월 15일(월)에 결과가 발표된다.

문의 www.gwangju.go.kr



~ 03. 25
Invisible Plaza : Discovering the Role of Kanawha Plaza in Modern Richmond

James River Green Building 협의회에서는 창조적 환경의식 사고를 고무시키기 위해 그린 스페이스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참가자들은 3월 25일(월)까지 작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자들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던 Kanawha 광장에 건축적 개입을 통한 지원프로그램을 제안하여야 한다.

문의 www.jrgbc.org



~ 04. 17
The Deborah J. Norden Fund

The Architectural League of New York에서는 건축, 도시연구 분야의 학생과 졸업생에 한하여 여행 및 유학기금으로 \$5,000을 수여하는 The Deborah J. Norden Fund 장학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본인의 발전에 기여도를 설명하는 최대 3페이지의 제안서, 이력서, 일정 및 예산안 등을 PDF파일로 2013년 4월 17일(수)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서 등 서류 문서는 4월 22일(월)까지의 우편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한다.

문의 www.archleague.org

~ 03. 15
PROJECT SPACE 2013

유럽의 건축전문 웹진인 원더랜드에서 도시 공간을 개선하고 젊은 건축가들의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Project Space 2013 국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주제는 Rethinking Urbanity로, Atzgersdorf 지역의 변화를 제안하는 것이다. 3월 15일(금)까지 아이디어를 제출하여야 하며 25일(월)에 심사결과가 발표된다. 수상자는 비엔나 워크샵에 초대받게 된다.

문의 www.wonderland.cx

~ 04. 12
Hong Kong Arcology Skyscraper Design Competition

SuperSkyScrapers에서는 초고층건축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홍콩을 부지로 하여 초고층 건물을 설계하되 Arcology, 즉 생태건축의 목표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오수, 생활 폐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출품하여야 한다. 참가자들은 4월 12일(금)까지 등록을 하여야 하며 4월 15일(월)까지 작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 www.superskyscrapers.com

~ 03. 30
Borderless : Designing Future ASEAN Borders

태국 건축사협회에서는 Borderless : Designing Future ASEAN Borders 이라는 주제로 ASEAN 10개국 국경지역 공간의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국경'이란, 경제와 법치 활동 등 매우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국경의 공간 자체는 발전이 뒤처지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적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여야 하며, 3월 30일(토)까지 작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 www.borderlesscompetition.com

~ 04. 30
제22회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

김태수 건축여행 장학재단에서 해외건축 여행 기금으로 미화 \$10,000을 수여하는 제22회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를 개최한다. 한국의 젊고 유능한 건축가에게 교육과 해외건축여행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조성된 이 기금은 수혜자 본인이 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 목적이거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만 35세 미만의 한국에서 건축학위를 받은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참가 자격이 부여되며, 포트폴리오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 www.tscaf.org

~ 08. 30
제4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

서울시는 제4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을 개최한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은 뉴타운 출구전략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안정적 추진 방안의 하나로, 대학생들의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새로운 주거지 재생 방안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고 시민의 주인이 되는 주거공동체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작품은 2013년 8월 29일(목)부터 30일(금)까지 2일간 접수할 수 있다.

문의 www.seoul.go.kr



~ 04. 15
2013년 도코모모코리아 제10회 디자인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청주시가 후원하는 제10회 도코모모코리아 디자인공모전이 열린다.

'모더니즘의 동시대성 - 청주연초제조장의 문화적 재생'이라는 주제로 청주연초제조장이라는 지역의 산업유산을 문화자산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주요 과제이다. 즉, 시대의 변화에 따른 근대문화유산의 리모델링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명력의 부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사설로의 역할, 그리고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폭제의 역할 등 역사도시 청주의 원도심 내의 공예와

건축, 그리고 공공디자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21세기형 문화도시로의 발돋움 기회로서 전개될 설계 및 프로그램을 제안하여야 한다.

공모전 워크샵은 3월 23일(토)에 청주대학교 예술대 음악관 콘서트홀에서 열리게 되며, 역사·도시·문화와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다. 등록기간은 2013년 2월 18일(월)부터 4월 15일(월)까지이며,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도코모모 홈페이지에서 대상지의 정보를 제공하며 5월 29일(수)까지 작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 www.docomomo-korea.org

그림일기 _ 정기용 건축 아카이브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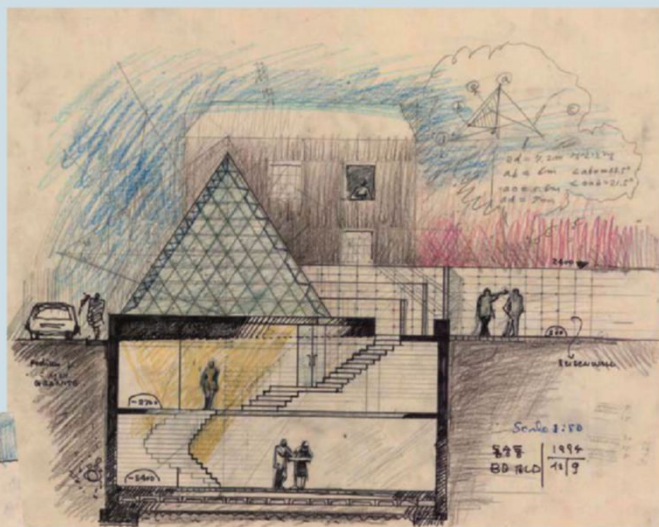
그림일기 _ 정기용 건축 아카이브 전은 건축가 정기용(1940~2011)이 미술관에 기증한 기록물을 중심으로 건축과 도시, 삶과 문화에 대한 의미를 재발견해보는 전시다. 그의 저서에서 발췌한 '그림일기'라는 제목은 생에 걸쳐 남긴 드로잉과 글이 마치 풍경을 저장하는 길처럼, 건축과 삶에 대해 새긴 일상의 보고라는 점에서 붙여졌다. 평범한 우리의 땅, 반복되는 사람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었던 그의 작업은 건축을 바라보는 근본적이지만 오늘날 회복해야 할 가치를 환기시킨다.

이 전시는 삶이 시작되고 끝나는 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공간들과 장소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어 정기용이 사색하고 걸었던 길을 함께 걷고자 한다. 정기용의 '그림'과 '글'이 어우러진 이 전시는 우리의 땅을 사랑했던, 그리고 그곳에 내재된 장소의 의미를 치열하게 파헤쳤던 한 건축가의 궤적을 따라 걷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전시기간 2013. 2. 28(목) ~ 2013. 9. 22(일)

전시장소 국립현대미술관

문의 02-2188-6000 www.moca.go.kr



중력과 시간 _ 움직이는 조각 전

소마미술관은 키네틱 아트를 주제로 현대미술작가 11인의 작품 30여점을 소개하는 '중력과 시간 _ 움직이는 조각' 전을 개최한다. 본 전시는 운동의 개념을 미술에 끌어들이며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키네틱 아트의 의미를 조명하고 1970년대 이후 다양한 미디어 아트로 확장되고 있는 키네틱 아트의 명맥을 짚어보는 전시이다. 또한 작가의 예술적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미술'에 있어서 '움직임'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하여 '움직임'이 작품에 부여하는 미학적 '의미'를 고찰하고, '움직임'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중력과 시간을 시각화, 공간화 한 작품을 보여주하고자 기획되었다.

전시기간 2013. 2. 8(금) ~ 2013. 3. 31(일)

전시장소 소마미술관

문의 02-425-1077 www.somamuseum.org



홍순태 사진전 _ 오늘도 서울을 걷는다



한미사진미술관은 원로 사진가 홍순태의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전시는 그동안 다수 그룹전 및 개인전을 통해 단편적으로나마 소개된 바 있는 그의 서울 촬영 사진들을 집대성하여 보여주는 첫 전시이다. 전시와 함께 출간되는 도록은 그가 촬영한 방대한 사진의 주요한 섹션을 이루는 서울 사진 등 100여 점을 엄선하여 작가 홍순태의 사진 인생에 대한 오마주로서 한정된 예정이다.

전시기간 2013. 3. 9(토) ~ 2013. 5. 19(일)

전시장소 한미사진미술관

문의 www.photomuseum.or.kr



건축을 위한 철학



저자 브랑코 미트로비치 출판 컬처그라퍼 정가 18,000원

건축가들은 설계 실전에서 마주치는 비례, 공간, 배치, 환경과의 관계, 표현, 의미, 시대 적합성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맥락 안에서 문제를 다루는 기초 지식과 논쟁을 이끌어 가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책에서는 현대 건축 및 건축 이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철학적 견해들을 순서대로 소개함으로써 각 시대의 사회적 맥락 안에서 건축과 그 배경이 되는 철학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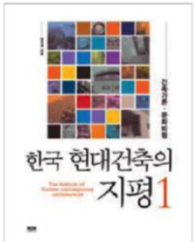
르 꼬르뷔제 200분의 1 주택편

저자 스티븐 박 출판 시공문화사 정가 18,000원

‘르 꼬르뷔제 : 200분의 1’은 르 꼬르뷔제 재단의 디지털 아카이브의 도면을 바탕으로 처음으로 일관성 있게 정리된 평면, 단면, 입면 및 120개의 명료한 단면투시도를 이 마스터 건축가의 주택 프로젝트에 걸맞게 정리하였다. 독자는 건축가 스티븐 박의 새로운 도면을 통해 르 꼬르뷔제 주택의 외부구성과 내부공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도면과 함께 제공되는 텍스트는 초기 기계에 영감을 얻어 지어진 백색의 주택에서부터 말기 고대와 지역전통의 형태와 시공법을 받아들이게 되는 르 꼬르뷔제의 이론과 테크닉의 변천을 설명해 줄 것이다.



한국 현대건축의 지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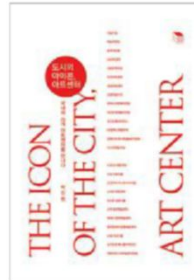
저자 안석재 출판 인물과사상사 정가 1권 15,000원 / 2권 17,000원

이 책은 1990년대 전후의 시기에 있었던 다양한 양식적 실험에 대해 해석한 비평서로, 1998년에 출간된 ‘한국 현대건축 비평’을 고쳐 쓴 것이다. 1권은 건축가론과 건축가 인터뷰, 건축 문화비평을 담았으며, 2권은 21명의 건축가가 남긴 21채의 건물을 통해 미니멀리즘, 회화주의, 원시형태주의, 도시 건축 운동, 상대주의의 공간, 대중 색채주의, 구조 미학, 현대 합리주의, 전통 해석 문제, 맥락주의, 모더니즘의 진정성 문제 등을 다루었다.

도시의 아이콘, 아트센터

저자 박진현 출판 엔터 정가 12,000원

책은 크게 국내편과 해외편으로 나뉘어 총 25개의 아트센터들이 소개돼 있다. 제1부에서는 최근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문화도시 경쟁력을 키워오고 있는 국내 도시의 사례를 생생히 소개하고 있다. 제2부 해외편에서는 아시아의 넘버 1을 꿈꾸고 있는 일본, 싱가포르와 세계적인 공연예술의 중심지인 미국의 유명아트센터들을 소개한다. 아트센터가 문화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어떤 기여를 하고,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아트센터가 21세기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화두로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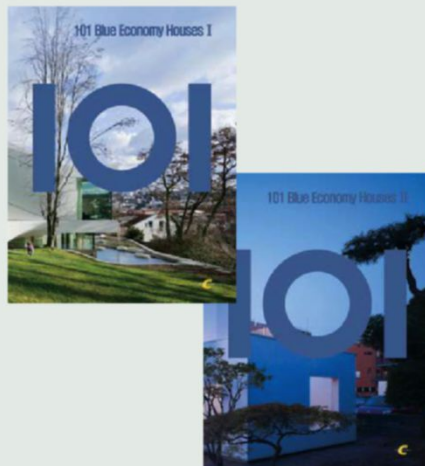


101 Blue Economy Houses(전2권)

펴낸 CA현대건축사 정가 권당 87,000원 문의 02-455-8040 www.capress.co.kr

주택은 인간생활의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다. 사람의 생리와 심리에 다양한 영향을 주는 유기체라고도 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이나 성격은 그가 사는 집과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쾌적한 주택은 사람의 정신적 안정과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21세기에는 다양한 기능을 갖는 집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미래형 주택인 블루 이코노미 하우스가 화제가 되고 있다. 블루 이코노미 하우스는 단순한 자연 보호의 차원을 넘어, 재생산을 의미하는 지속 가능한 저에너지형 하우스이다.

101하우스에서는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국내외 주택의 최근 경향과 트렌드에 맞춰 5개의 테마(전원주택, 블루 이코노미 하우스, 펜션, 도시형 주택, 집합주택)로 분류하여 101개의 작품을 소개한다.



CA 현대건축사

CONCEPT

INTERNATIONAL MAGAZINE OF COMPETITION

총판: 명문사:(02)319-8663

본사: 영업관리부:(02)455-8043

서울: 강남서적:(02)3445-0084

푸른 건축사:(02)2659-5319, 5329

아키랩:(02)579-7747

위드(with):(02)573-4122

성은 I.B.S:(02)3461-9883

강남서재:(02)3445-0889

부산: 코랜드:(051)326-1208

인터라인:(051)867-6528

남일서적:(051)464-1311

부산기술서적:(051)256-0759

대구: 대림문화원:(053)654-9938

대전: 목원사:(042)472-4394

광주: 강토서적:(062)375-2779

서점

서울: 종로-교보문고, 영풍문고

중구-을지서적, 세종서적

서대문-홍익문고

강남-교보문고(강남점),

서울문고, 영풍문고

강동-교민문고, 대성문고

동작-골드북문고

일산-정글북문고, 일산문고

용산-(주)대교문고

부산: 영광도서, 동보서적, 문우당

수원: 녹산문고

안산: 대동서적 안양: 대동서적

과천: 대성문고 춘천: 청구서림

청주: 일선문고 공주: 국민도서

둔산: 세창문고 창원: 교보문고

광주: 삼복서점 울산: 처음서림

제주: 탐라도서

월간 CONCEPT은 매월 말일 발간되며 1년 정기구독료는 ₩200,000원입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1. 전화신청 Tel.02-455-8043 : 독자관리부
2. Fax. 02-460-9292 : 독자성명, 전화번호, 구독월호 기재
3.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메일 신청
www.capress.co.kr
4. 구독료 납입처
 - 국민은행 : 809-01-0199-332
 - 우리은행 : 096-091737-12-401
096-119643-13-501
 - 예금주: 정지성

월간 CONCEPT · CA현대건축 · 월간 MARU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7가길 18 에이팩센터 307호(133-834)
Tel. 02-455-8047 Fax. 02-455-8045
구독문의 : Tel. 02-455-8043 Fax. 02-455-8045
광고문의 : Tel. 02-454-8075
학교영업관리 : Tel. 02-3436-6156



ARCHI Object Chop Stick



디자인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뭔가 희생해야 하는 보편적인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모든 제품(휴대 전화, 자동차, 돌 바닥 또는 나무 보드)은 다양한 성격의 단편들이 모인 자연의 다른 조각의 화합물이다. 우리의 프로젝트는 우리가 획득한 재료가 자연 그대로 다듬어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도록 최대한 부드럽게 획득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The design is based on the universal notion that you need to sacrifice something in order to make something new. Every product is a compound of different pieces of nature, whether it is a cell phone, a car, a stone floor or a wood board; they have all been harvested in one way or another. Our project is about trying to harvest something as gently as possible so that the source of what we harvest is displayed in a pure, pedagogic and respectful way - respectful to both the source itself and to everyone visiting the building.



Location 100 Acres : The Virginia B. Fairbanks Art & Nature Park at The Indianapolis Museum of Arts, Indianapolis, IN, USA

Architects Visiondivision through Anders Berensson & Ulf Mejergeren

Local Architect Donna Sink

Curators Lisa Freiman & Sarah Gr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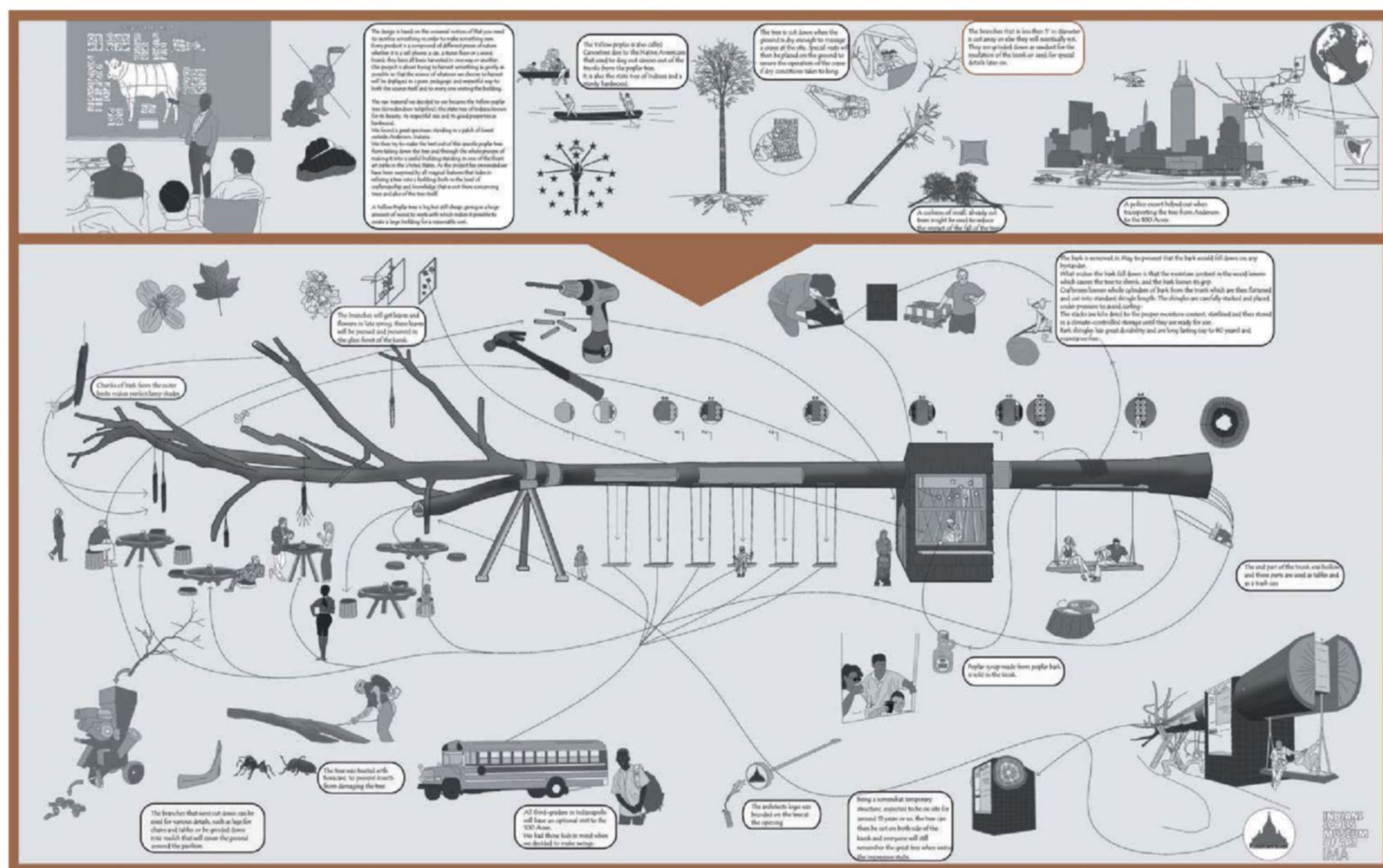
Structural Engineer Dave Steiner

Contractor The Hagerman group

Logger Dave and Dave

Client Indianapolis Museum of Arts

Photo by Eric Lubrick(IMA), Donna Sink, visiondivision





우리가 선택한 재료는 100피트의 노란색 포플러 나무로 인디애나 나무라고도 한다. 이 나무는 아름답고 존중 할 만한 크기와 좋은 속성의 상태로 인디애나 주 앤더스 밖 숲의 교외에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의 목적은 이 특수한 포플러 나무를 최대한 활용하여 현재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예술공원 안에 사용이 가능 하도록 건물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프로젝트가 진행 될수록 우리는 나무 한그루를 건물로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드러난 그 모든 놀라운 특징들에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목세공인들의 장인정신과 수목전문가들의 지식뿐만 아니라, 나무 그 자체도 감격의 대상이었다.

The raw material we selected is a 100 - foot yellow poplar tree, the state tree of Indiana, known for its beauty, respectable size, and good properties as hardwood. We found a great specimen standing in a patch of forest outside of Anderson, Indiana. Our goal was to make the best out of this specific poplar tree, from taking it down and through the whole process of transforming it into a useful building that is now part of one of the finest art parks in the United States. As the project proceeded, we continued to be surprised by all of the marvelous features that where revealed in refining a tree into a building ; both in the level of craftsmanship and knowledge of woodworkers and arborists, and also of the tree itself.

나무는 공원부지로 이송되었고, 공중에 매달린 수평보라는 새로운 구조가 되었다. 이는 거의 나무 자체로만 이루어진 구조였다.

나무껍질은 수분함량이 줄어들수록 나무가 수축되면서 껍질이 접착력을 잃고,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벗겨내었다.

장인들은 줄기에서 원통형의 모든 껍질들을 떼어낸 다음 평평하게 하고 표준적인 너와판 길이로 재단했다. 그리고 나서 적층재들은 적절한 수분함량을 갖도록 가마에서 건조시키고, 살균 처리한 후 기후제어보관용기에 넣어 사용할 준비가 될 때까지 보관하였다.

나무껍질로 만든 너와판은 매우 내구적이어서 80년까지 오래 지속되어 유지보수가 필요가 없다.

The tree was then transported to the park site, where it became the suspended horizontal beam of this new structure, which is almost entirely made out of the tree itself. The tree's bark was removed to prevent it from falling on bystanders, a process that occurs naturally as the moisture content in the wood drops, causing the tree to shrink and the bark to lose its grip. Craftsmen loosen entire cylinders of bark from the trunk that are then flattened and cut into a standard shingle length. The shingles was carefully stacked and placed under pressure to avoid curling. The stacks was then kiln dried to the proper moisture content, sterilized, and kept in climate - controlled storage until they where ready for use. Bark shingles are very durable, long lasting(up to 80 years), and maintenance f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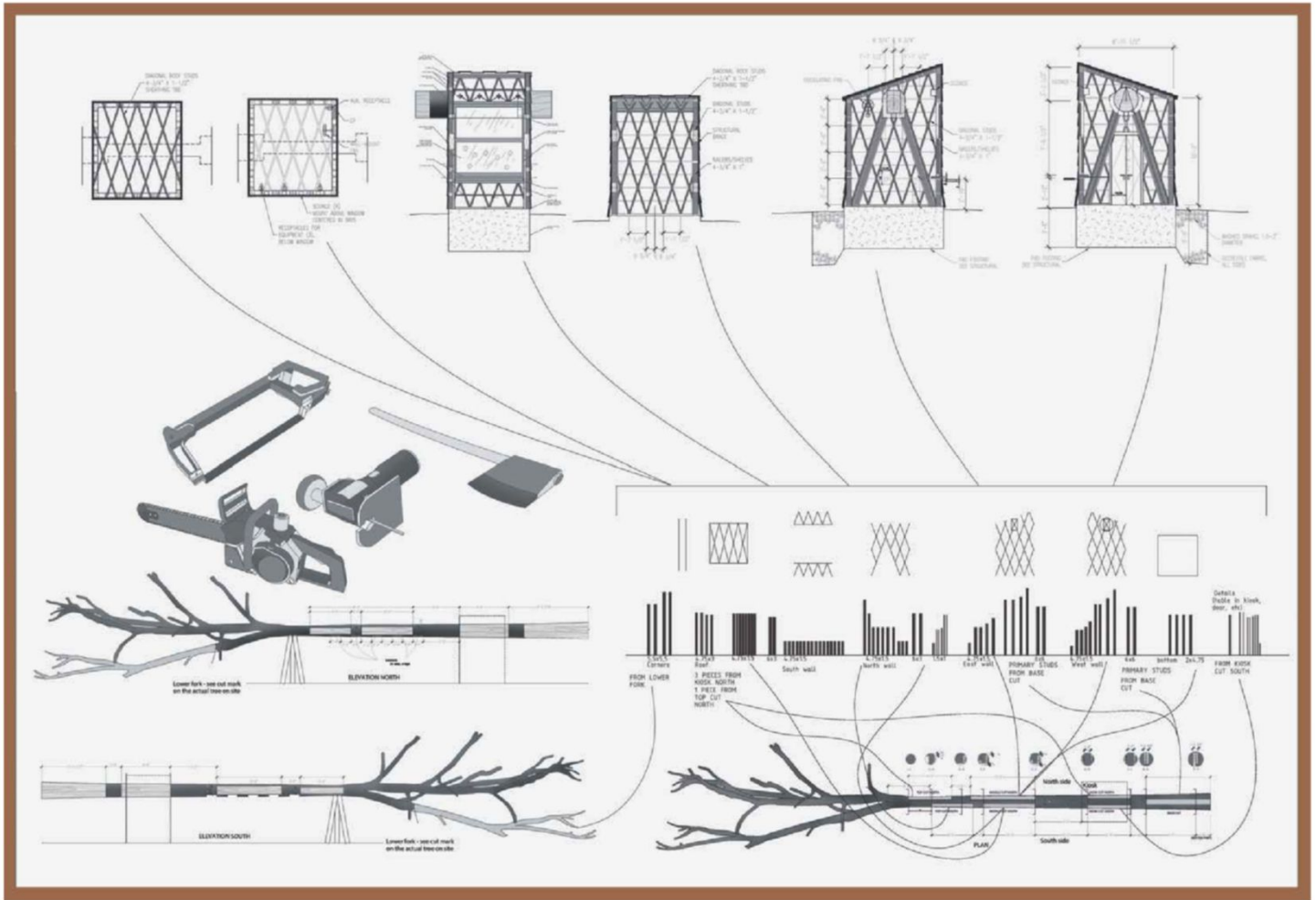
껍질을 벗긴 다음에는 매달린 나무에서 나무조각들을 이용해 매점의 각 부재들과 구조용 지지대, 기둥과 섯기둥, 아이들을 위한 나무 밑의 그네, 나무의 머리부분 밑에 놓을 의자와 탁자들을 만들었고, 머리 부분에는 나무껍질로 만든 특수조명들을 매달았다. 많은 취학아동들이 이곳을 방문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염두해 두고 나무에 그네를 매달기로 결정했다. 보다 적은 스케일로 나무의 다른 부분들을 매점에 사용할 방법도 모색했는데, 나무에서 떼어낸 잎사귀와 꽃들은 압착하여 매점의 전방 유리에 장식으로 활용한 게 그것이다. 또한 나무껍질의 추출액으로 만든 노란 포플러 시럽이 매점에서 판매될 것이다. 이것은 방문객이 건물의 일부를 실제로 맛볼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한다.

After debarking, pieces of wood are extracted from the suspended tree and used for each of the components of the concession stand ; structural support of the construction, pillars and studs for the kiosk, swings under the tree for kids, chairs and tables to be placed under the tree's crown, from which special fixtures made out of bark pieces will hang. Many school children visit 100 Acres, and we had those kids in mind when we decided to hang swings from the tree. On a smaller scale, we explored ways to use other parts of the tree in the concession stand, including pressed leaves and flowers that were taken from the tree and that became ornaments in the front glass of the kiosk. We also made Yellow Poplar syrup that was extracted from the bark of the tree and that will be sold in the kiosk, thus meaning that you could actually eat a part of the building.

매우 어려웠던 과제는 튼튼한 매점을 짓기 위한 일정량의 나무를 얻고 나무 자체의 하중을 견뎌내게 한다는 목적과 매달린 나무를 잘라내는 과정에서 나무가 약해질 위험 간의 미묘한 균형을 맞추는 일이었다. 구조의 최적화를 위해 컴퓨터를 모델로 다양한 절단 유형을 시도하면서 구조엔지니어와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 나무에서 실제로 절단한 필요 있는 모든 조각들을 조립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나무에서 잘라내는 모든 조각의 도면을 그려야 했다. 또한 매점은 매달린 나무 줄기의 많은 줄량을 부담할 것이기에 그 크기와 구조를 최적화 할 필요도 있었다. 엔지니어들의 응력 다이어그램 작성프로그램의 많은 도식들을 활용하여 벽이 나무 끝에 더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하중을 부담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고, 이에 따라 그벽에 쓸 두 나무조각의 크기를 키웠다. 이 모든 변경이 보다 균형적인 비례의 세련된 디자인을 만들어 실제로 더 아름다운 건물을 얻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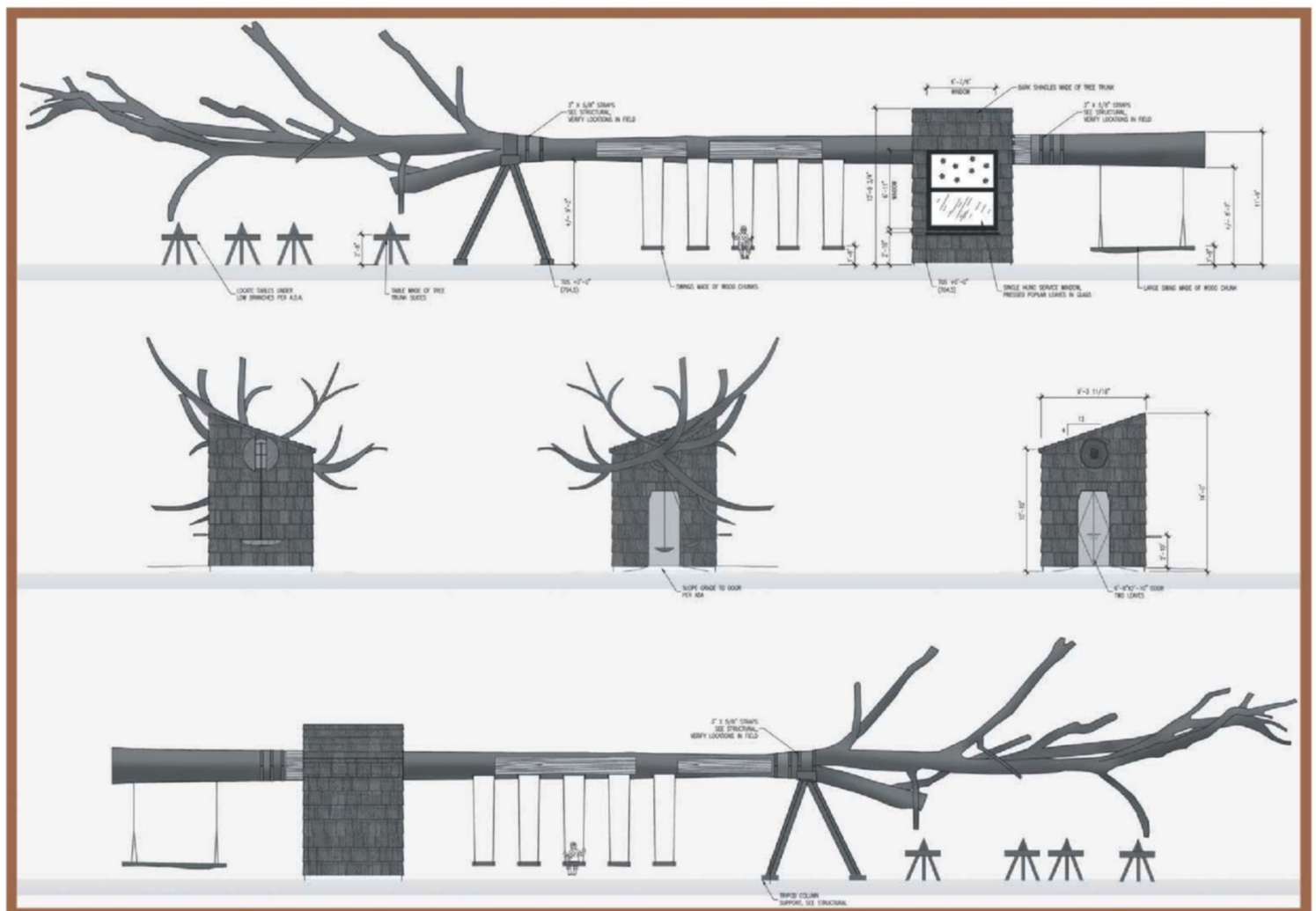
The delicate balance act of the risk of weakening the hovering tree with taking cuts from it versus having to have a certain amount of wood to stabilize and construct the kiosk and carrying the load from the tree itself was very challenging. Many days was spent with the structural engineer trying different types of cuts in a computer model to optimize the structure. To be able to fit all pieces that needed to be taken from the tree into the actual cuts we needed to make drawings for every single piece taken from the tree. We also needed to optimize the kiosk both in size and in its constructions since it would take a lot of weight from the hovering trunk. The kiosk got a truss frame construction with two larger pieces of wood that are right under the tree. Using the schematics from our engineers force diagram program, we concluded that the wall closer to the end of the tree was taking more load, thus we sized up the two larger pieces of wood in that specific wall. All these alterations really just made the project more beautiful since the design became more refined in terms of more balanced proportions.





The Cu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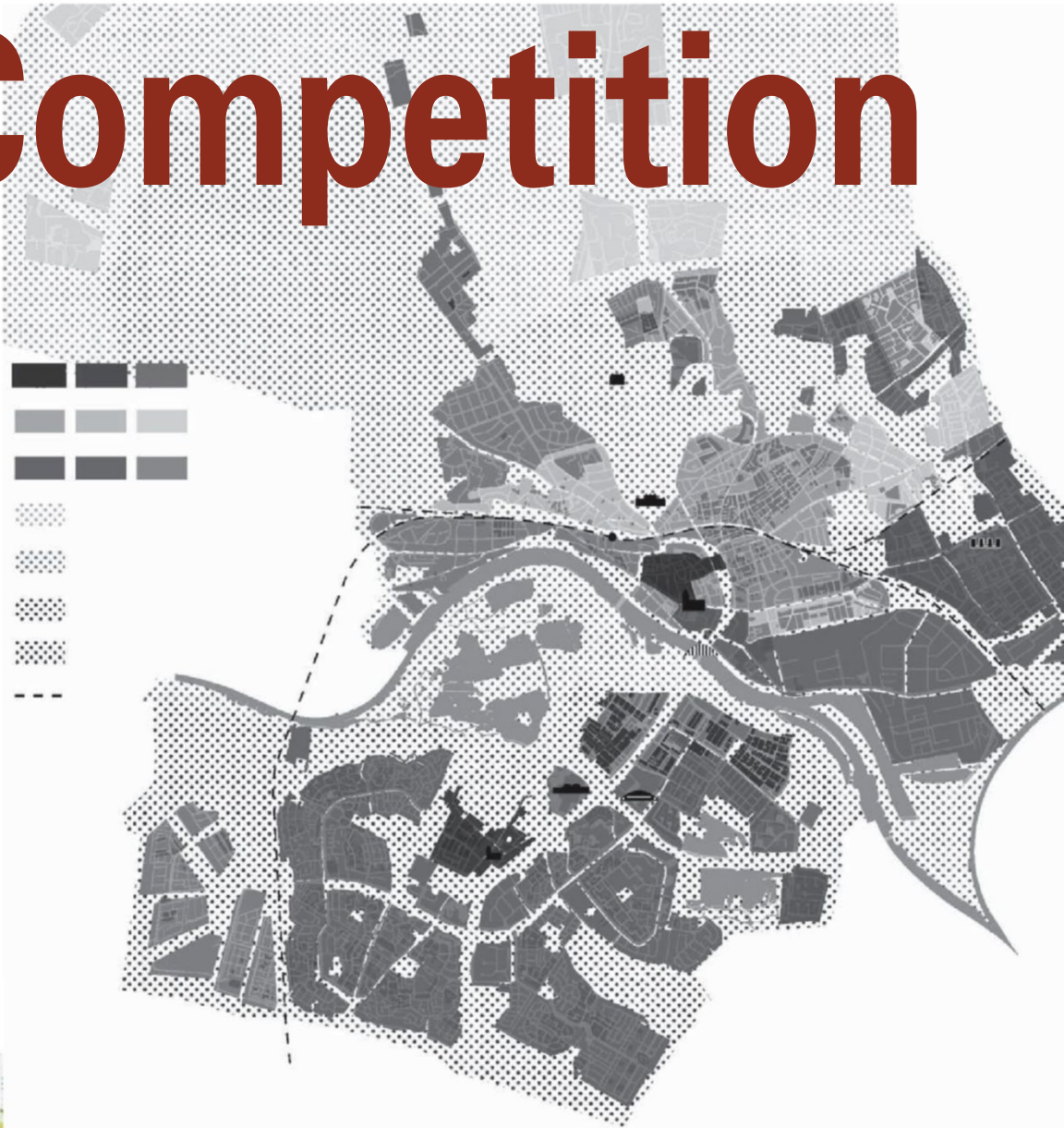




Facade



International Competition



Energetic City 2050

Team Innergy has won Energetic City 2050, a competition organized by Dutch power and gas network company Alliander and the city of Arnhem. Thanks to the Veld and other technological developments, you are no longer tied to a specific place. This means you can live where you want to live, and people will do that. They will become more nomadic. The city becomes fluid.

Even more than now, there will be a great diversity. Diversity in background, diversity in lifestyle, and therefore diversity in what people look for in the places where they live. The city of 2050 will be composed of numerous "habitats", each with their own character.

팀 이너지의 활기찬 도시 2050이 네덜란드 전력 및 가스 네트워크 회사 알리언더와 아른헴 시 주최의 공모전에서 수상하였다. 용접 및 기타 기술 개발 덕분에 사람들은 더 이상 특정 장소에 묶여있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싶은 장소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더 많은 유목민적 성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것은 도시가 유동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배경의 다양성, 라이프스타일의 다양성, 결국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것에 다양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2050년의 도시는 각각의 특색을 갖춘 수많은 "서식지"로 구분될 것이다.



2012 Urban Regeneration

The central core of the H+ project is located around the Bredgatan area, a former industrial sector which is already evolving with the presence of the Helsingborg Campus, and several dynamic companies.

This area is strategically located between the old city and the harbor, and will be one of the first areas to undergo transformation, it will serve as a "test - bed" for H+ at large, but will also be given its own identity in the H+ urban mosaic.

H+ 프로젝트의 핵심은 이전에는 공업단지였으나 현재는 헬싱보르그 캠퍼스로 바뀐 브레드가탄 지역과 여러 개의 공장들이 다.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 구 도시와 항구 사이에 위치하며, 도시의 모습을 완전히 탈바꿈하는 첫 번째 지역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며, 대체적으로 H+ 프로젝트의 "시험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H+ 도시 모자이크를 통해 이 도시만의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다.



Tsinghua Law Library Building

Kokaistudios has been announced as the winner competition for the new Tsinghua University Law Library located in Beijing, China. The proposal stands out amount the final 5 competing firms including ECUC, RTKL, ZahaHadid Architects and Zhubo Design Group.

The project proposes a reflection on the role of void in structuring functions and programs within the building, defining at the same time its relations with the surrounding. Circulation and public spaces, both indoor and outdoor, are interlocked in a innovative sequence of 'places', a coherent continuum of solids and voids directly inspired to the traditional urban carpet of the Courtyard Houses, characteristic of Beijing.

코카이스튜디오스의 계획안이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칭화 대학교 법학 도서관' 공모전에서 ECUC, RTKL, 자하디드 아키텍츠와 후보 디자인 그룹을 제치고 당선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건물의 구조적 기능과 프로그램들 가운데 보이드 공간의 역할을 반영하고 동시에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정의해 보고자 하였다. 실내와 실외의 동선과 공용 공간은 획기적으로 배치된 "장소"들과 서로 맞물려 있으며, 채움과 비움이라는 일관된 연속체는 베이징의 특색인 민가들로 뒤덮인 전통적인 도시 카펫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감을 받았다.



A.M. Qattan Foundation Building in Ramallah

DONAIRE ARQUITECTOS's A.M. Qattan Foundation Building in Ramallah Wins International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As a building bound to the ground, it is designed to be in harmony with its physical setting, while taking advantage of the site's features. The main body is conceived as a stone plinth carved in terraces out of the natural soil, enhancing the interior - exterior relation through the use of lattices and natural stone permeable screenings.

도나이레 아키텍토스의 라말라 A.M 퀴틴 재단 빌딩이 국제 건축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하였다. 이 빌딩은 부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설계되었다. 본체는 자연 흙으로 만든 테라스에 조각된 주춧돌로 설계되었으며, 격자와 자연석 투과율 검사를 통해 실내와 실외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Energetic City 2050 Netherlands

Team innergy

활기찬 도시 2050

도시의 새로운 형태는 향후 수십년동안 만남으로 이루어진 도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소셜 네트워크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물리적 도시에 얽매이지 않는다. 사람들 스스로가 도시인 것이다. 이것이 건물 자체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도시의 형상과 위치를 결정하는 사람들 사이의 교류가 나타날 것이다.

도심에서의 생활을 위한 차원이라면, 더 이상 도시에 거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트렌드의 반전을 의미하게 된다.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대도시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유럽의 인구는 2030년까지 몇몇 대도시에 집중하게 되는데, 결국 그들은 초신성처럼 다 타서 폭발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다시 도시 밖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융접 및 기타 기술 개발 덕분에, 사람들은 더 이상 특정 장소에 묶여있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싶은 장소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더 많은 유목민적 성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것은 도시가 유동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배경의 다양성, 라이프스타일의 다양성, 결국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것에 다양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2050년의 도시는 각각의 특색을 갖춘 수많은 "서식지"로 구분될 것이다.

A new form of urbanity will appear in the upcoming decades, urbanity consisting of encounters, of connections between people, of social networks. And those will no longer be bound to physical cities. People are the city. It won't be buildings, but human interaction which determines whether, where, and in what form the city will appear.

So for an urban life, it is no longer necessary to live in the city. And this means the reversal of an important trend. At this moment, people are still migrating towards the big cities. The European population will concentrate in a few "super cities" that will keep growing until around 2030, when they will explode and burn out like a supernova. Many people will move out of the city ag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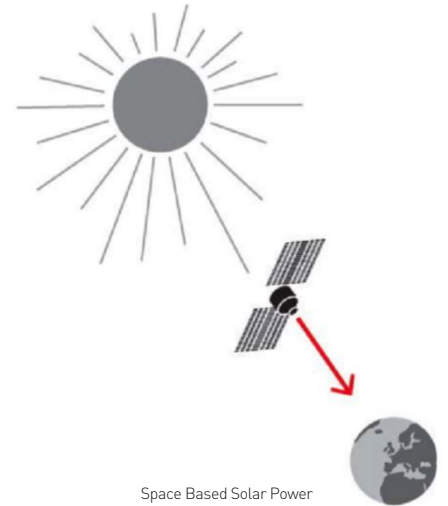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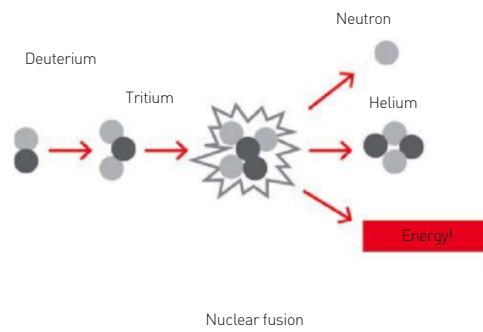
Thanks to the Veld and other technological developments, you are no longer tied to a specific place. This means you can live where you want to live, and people will do that. They will become more nomadic. The city becomes fluid.

Even more than now, there will be a great diversity. Diversity in background, diversity in lifestyle, and therefore diversity in what people look for in the places where they live. The city of 2050 will be composed of numerous "habitats", each with their own character.

Written by Team innergy



Architect Frank Marcus
Landscape Architect Chris Van Der Zwet Urbanist
Gertjan Rohaan
Philosopher Gerben Pennings
Film Artist Pieter Wack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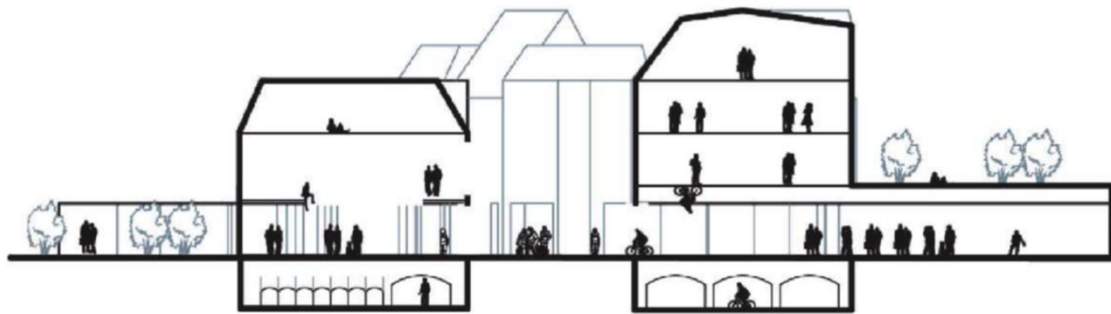


New Energy Sour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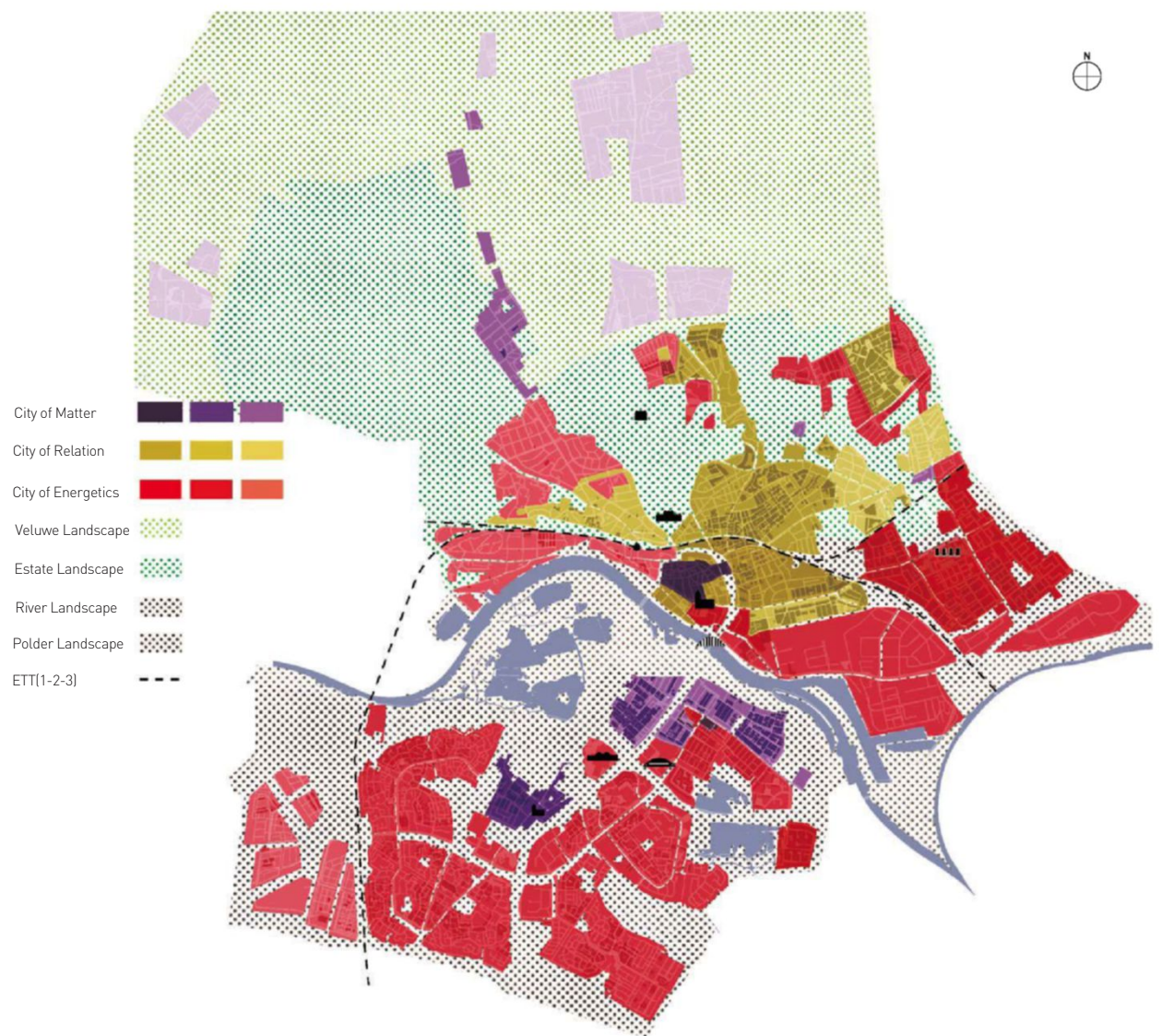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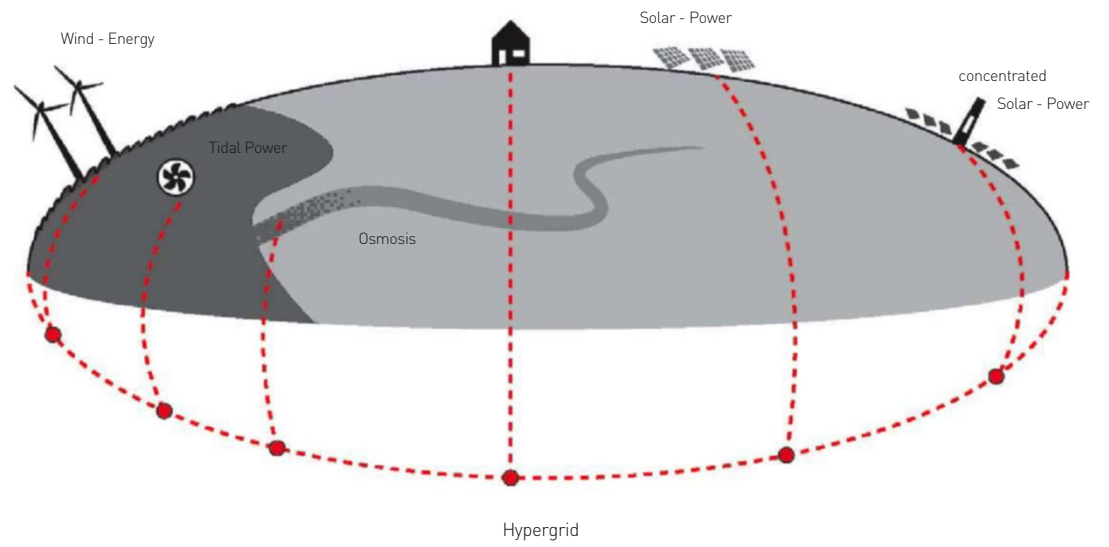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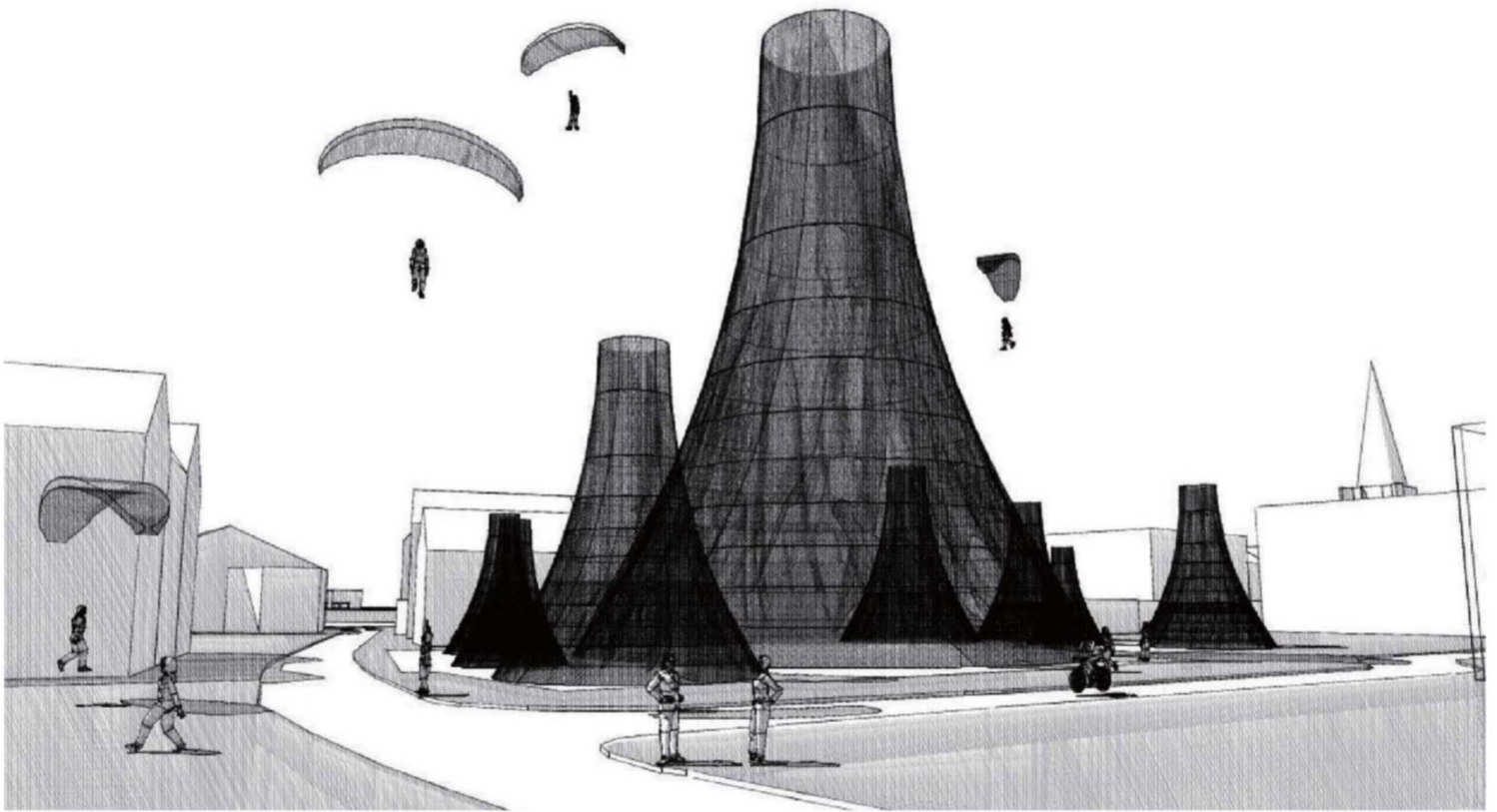
2050

Sections Center









2012 Urban Regeneration Sweden

Erik Giudice Architects(EGA)

2012 도시 재생

H+ 프로젝트는 스웨덴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물이 있는 풍경을 특색으로 하는 “청 - 녹 연결”이란 이름 하에 헬싱보르그의 남부 지역을 빠르게 변화시켜 바다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H+ 프로젝트의 핵심은 이전에는 공업단지였으나 현재는 헬싱보르그 캠퍼스로 바뀐 브레드가탄 지역과 여러 개의 공장들이다.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 구 도시와 항구 사이에 위치하며, 도시의 모습을 완전히 탈바꿈하는 첫 번째 지역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며, 대체적으로 H+ 프로젝트의 “시험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H+ 도시 모자이크를 통해 이 도시만의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미 이 지역에는 헬싱보르그 대학교 캠퍼스와 여러 개의 공장들이 들어섰으나, 주택이나 공공 서비스, 그리고 공용 공간이 부족하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기업가 정신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산학 협동을 증진시키면서 이 지역을 복합적인 도시 체계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중앙 산책로를 다양한 모습으로 꾸며 전혀 새로운 장소로 만들었다. 건물의 크기와 외관의 다양화, 옛 것과 새 것의 조합, 그리고 여기에 친근하고 더욱 화려한 공용 공간들을 더해 역동적인 도시 체계를 창조하였다.

운하를 따라 있는 1층들을 교육, 카페, 레스토랑 그리고 사무실로 이용하였다. 기존 건물들의 1층에 유리창을 달아 새로운 모습을 만들었다. 이 새로운 도시 구역은 운하의 여러 공간까지 이어지고 이곳에서 다양한 각종 행사가 열린다. 다목적 건물이라는 형태로 된 도시 촉매제들이 전략적 지점들에 위치해 운하 공간을 더욱 활기치게 만든다.

The H+ project is one of Sweden's most ambitious planning and urban renewal

projects. The ongoing process aims to radically transform the southern parts of Helsingborg connecting them to the sea through the “Blue - green connection”, a landscaped water feature. The central core of the H+ project is located around the Bredgatan area, a former industrial sector which is already evolving with the presence of the Helsingborg Campus, and several dynamic companies. This area is strategically located between the old city and the harbor, and will be one of the first areas to undergo transformation, it will serve as a “test - bed” for H+ at large, but will also be given its own identity in the H+ urban mosaic.

The area is already hosting the Helsingborg university Campus, and several dynamic companies, but lacks of housing, public services and has a poor public spaces. The aim is to transform the area into a mixed urban fabric, keeping the spirit of entrepreneurship and enhancing the collaboration between university and companies.

The varying width and depth of the central promenade gives ever new perspectives. Variation in scale and building typologies, mixing old and new, creates a dynamic urban fabric with a combination of intimate and more spectacular public spaces.

Along the canal ground floors are used for education, cafe, restaurants, and office. Ground floor of existing buildings are glazed to create new relationships. The new city blocks opens up onto canal room which helps to give depth and richness of the event. Urban catalysts in the form of multi - functional buildings are placed in strategic points which activates the Canal space further.

Written by Erik Giudice Architects(E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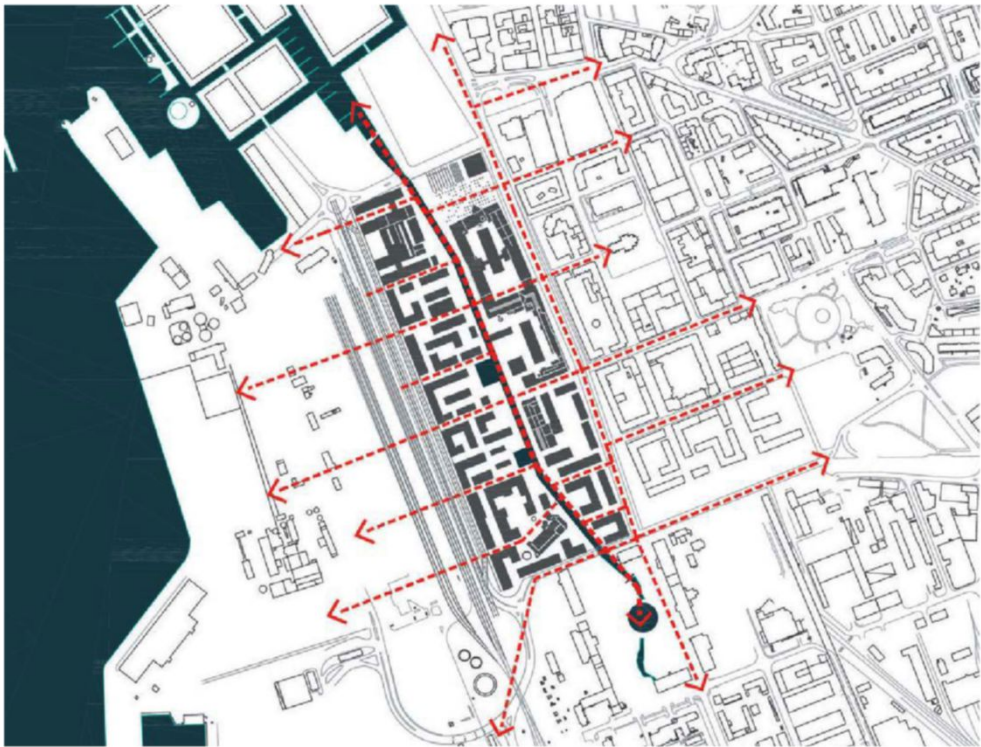


Urban Elevation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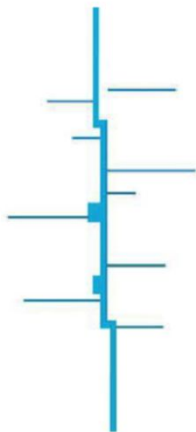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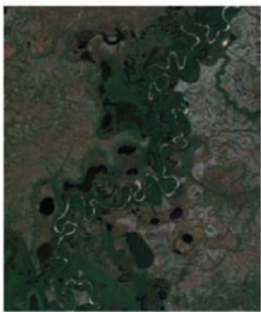


Urban Elevation 2

Site Area 1,510,000m²
Housing Area 160,000m²
Offices Area 60,000m²
Education Area 20,000m²
Shopping Area 16,000m²
Urbanism And Architecture Erik Giudice Architects(EGA)
Partners In Charge Erik Giudice and Federico Mannella
Project Team Lars Almgren and Francesca Venezia
Landscape And Planning Atkins Sweden
Artist Charlotte Von Poehl
Urban Economy Deloitte
Sustainability Transsolar
Ecology Naturforetaget
Client H+ Helsingborg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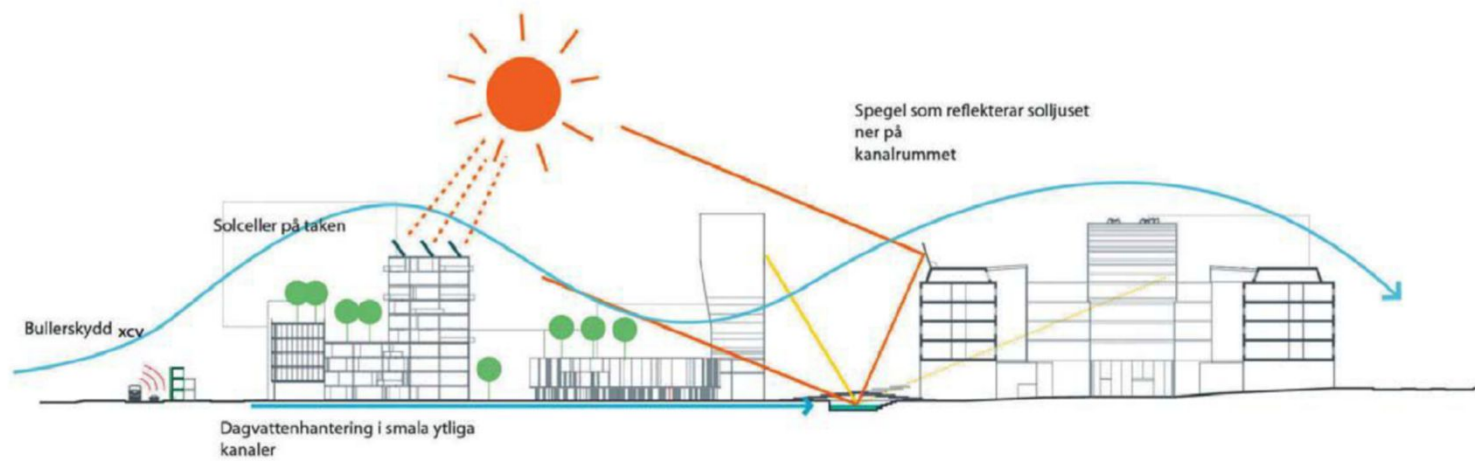


Circulation Plan



Circulation Plan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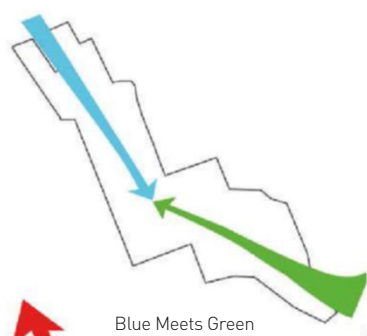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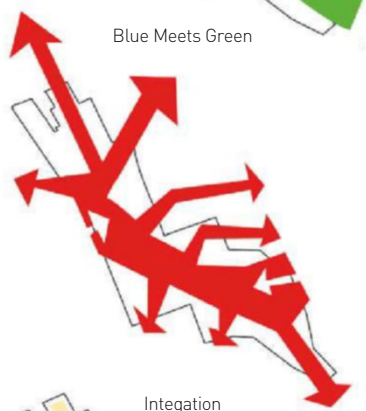
Daylighting Plan



Urban Elevation 3



Blue Meets Green



Integ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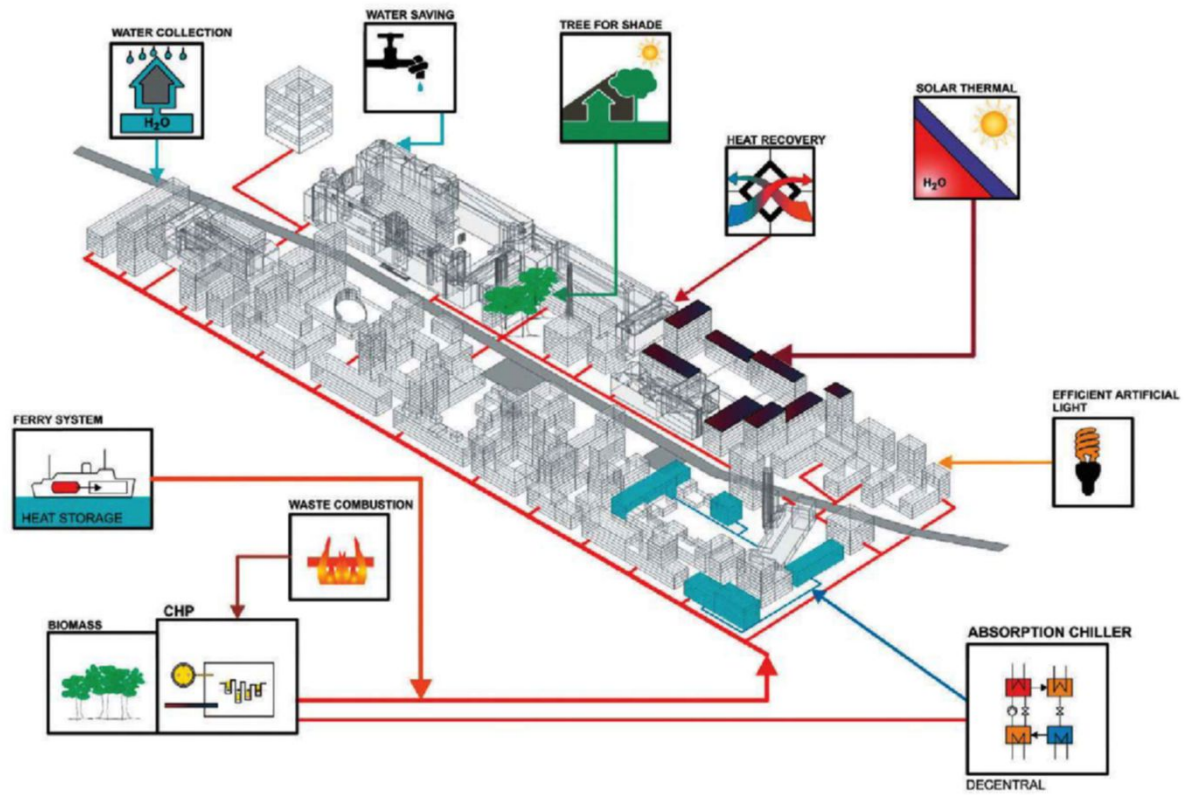
Diversity



Prigram Medium Level



Master Plan



Infrastructure Build







Tsinghua Law Library Building Beijing, China

Kokaistudios

칭화대학교 법학대학 도서관

이 프로젝트는 건물의 구조적 기능과 프로그램들 가운데 보이드 공간의 역할을 반영하고 동시에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정의해 보고자 하였다. 실내와 실외의 동선과 공용 공간은 획기적으로 배치된 "장소"들과 서로 맞물려 있으며, 채움과 비움이라는 일관된 연속체는 베이징의 특색인 민가들로 뒤덮인 전통적인 도시 카펫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감을 받았다.

부지에는 3동의 신축 다목적 건물이 있으며, 그 주위에는 새로운 침상원의 중심부인 광장이 있고, 옥외 보행자들은 이 광장을 통해 지하층과 1층에 있는 건물들의 대중적 기능들로 갈 수 있다.

법대 도서관 내부는 3개의 주요 기능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점차 증가하는 사생활 보호 요구에 따라 수직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교실 및 학생 편의 시설들은 아래층에 배치되었고, 가운데는 도서관을 배치한 반면에 교수 연구실과 연구소는 꼭대기 3개층을 차지하고 있으며 옥상 정원에 연결되어 있다.

전면을 석재로 마감한 법대 도서관 건물의 내부는 비움과 공용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간에 끊어짐 없는 연속적인 열린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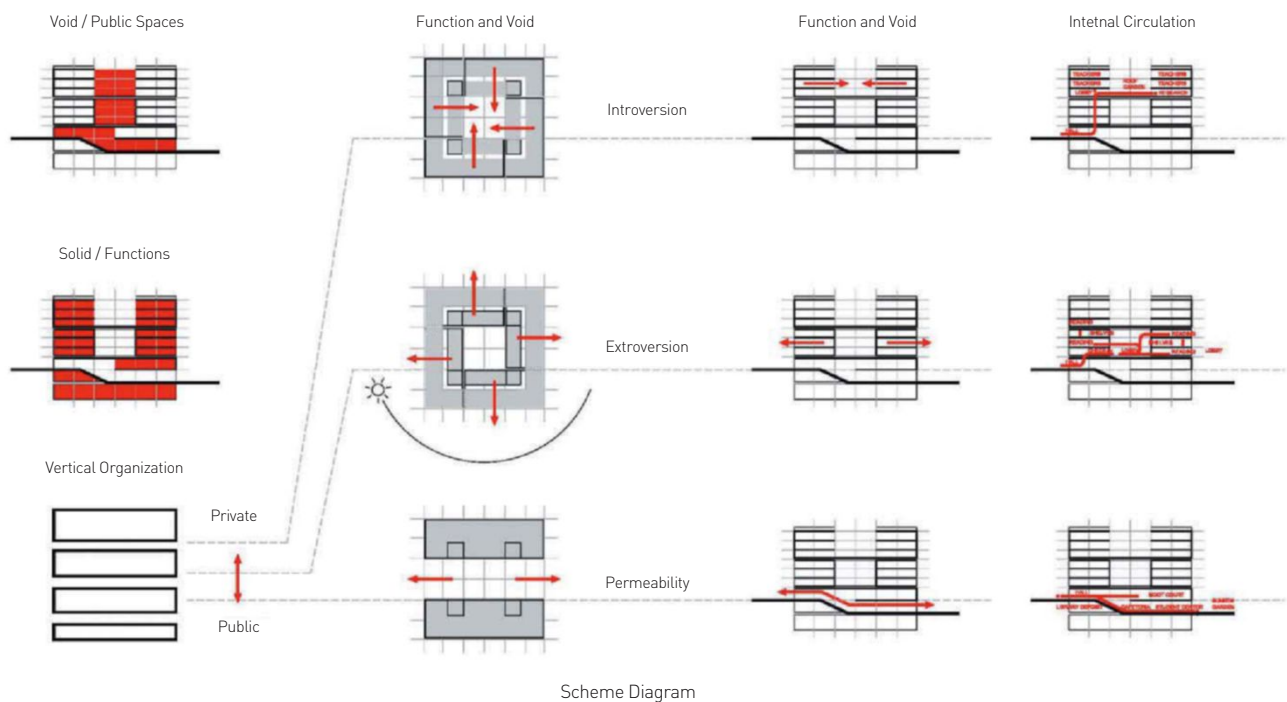
The project proposes a reflection on the role of void in structuring functions and

programs within the building, defining at the same time its relations with the surrounding. Circulation and public spaces, both indoor and outdoor, are interlocked in a innovative sequence of 'places', a coherent continuum of solids and voids directly inspired to the traditional urban carpet of the Courtyard Houses, characteristic of Beijing. Within the proposed site, three new multifunctional buildings are located around a public square, center of a system of new sunken gardens and outdoor pedestrian connections providing access to the buildings' public functions located in the basement and Ground Floor.

Inside the Library of Law Faculty, the program is structured in three major functional areas, vertically organized according to their increasing requirement from privacy : classrooms and students' facilities are located in the lower floors, the Library at the center, while Teachers laboratories and Research Institute occupy the three top floors, opened around the roof garden.

This inner system of voids and public spaces is expressed as a seamless and continuous sequence of openings carved in the stone modular facade of the Law Library Building.

Written by Kokaistudi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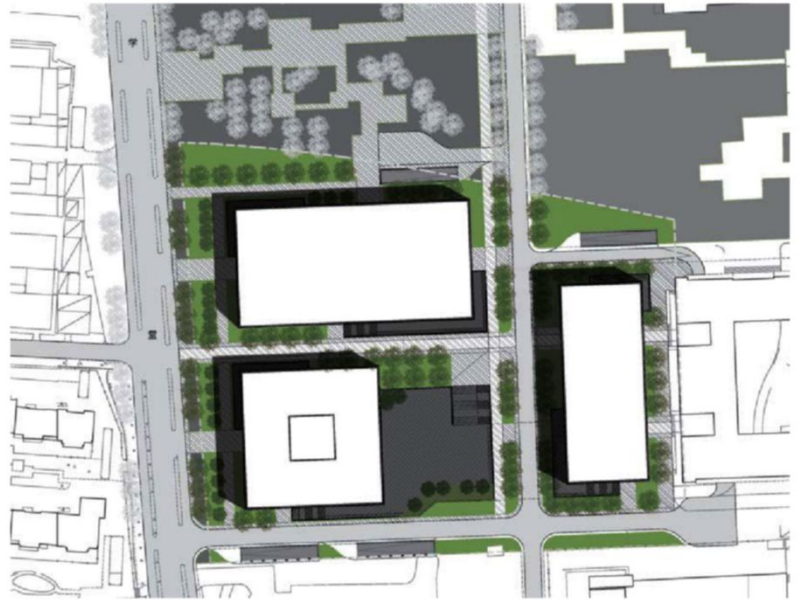
Location Beijing, China

Site Area 20,00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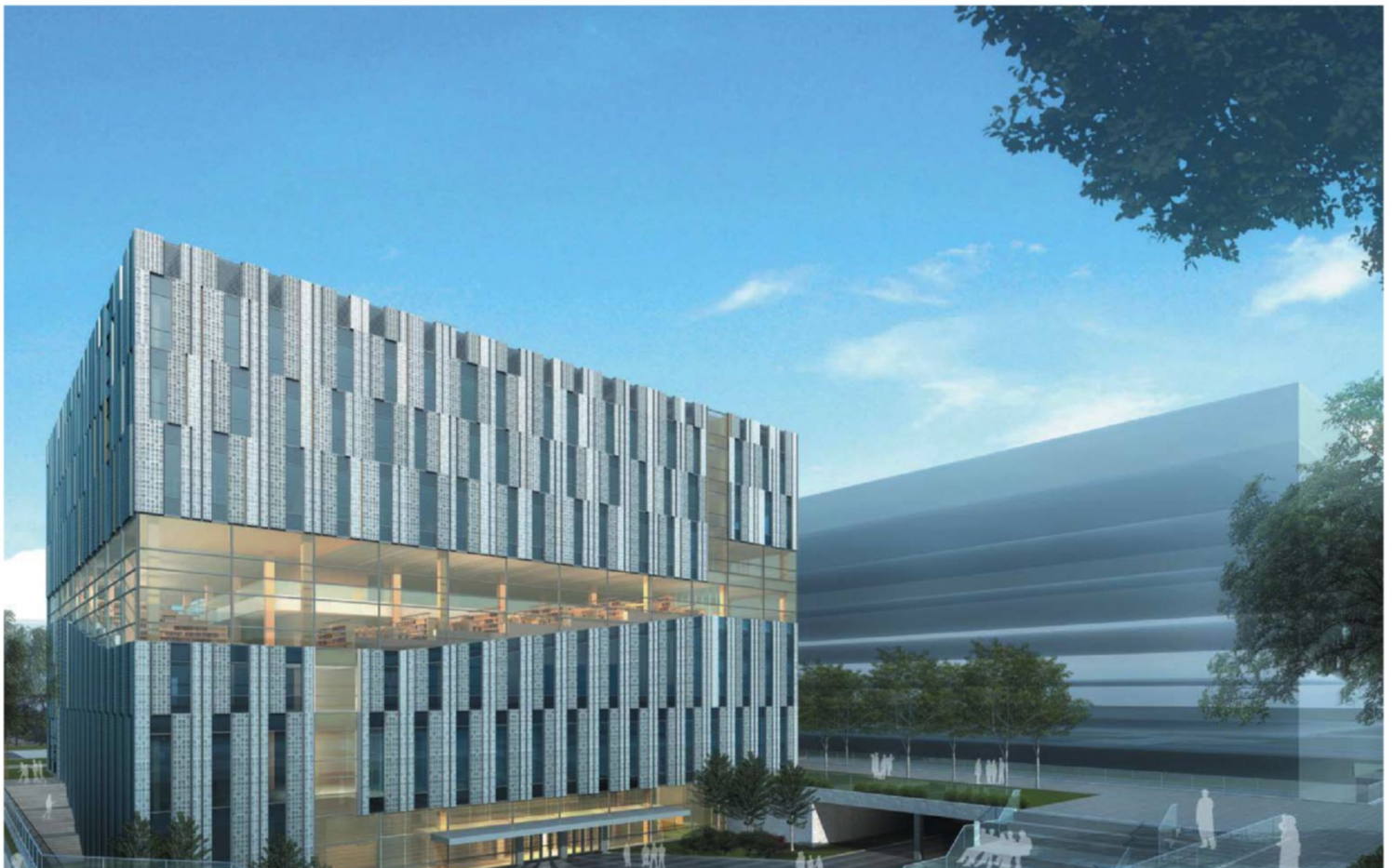
Architects Kokaistudios

Project Team Filippo Gabbiani · Andrea Destefanis · Pietro Peyron · Li Wei · Qin Zhantao · Daniel Ding

Client Tsinghua University



Site Plan





Section







1st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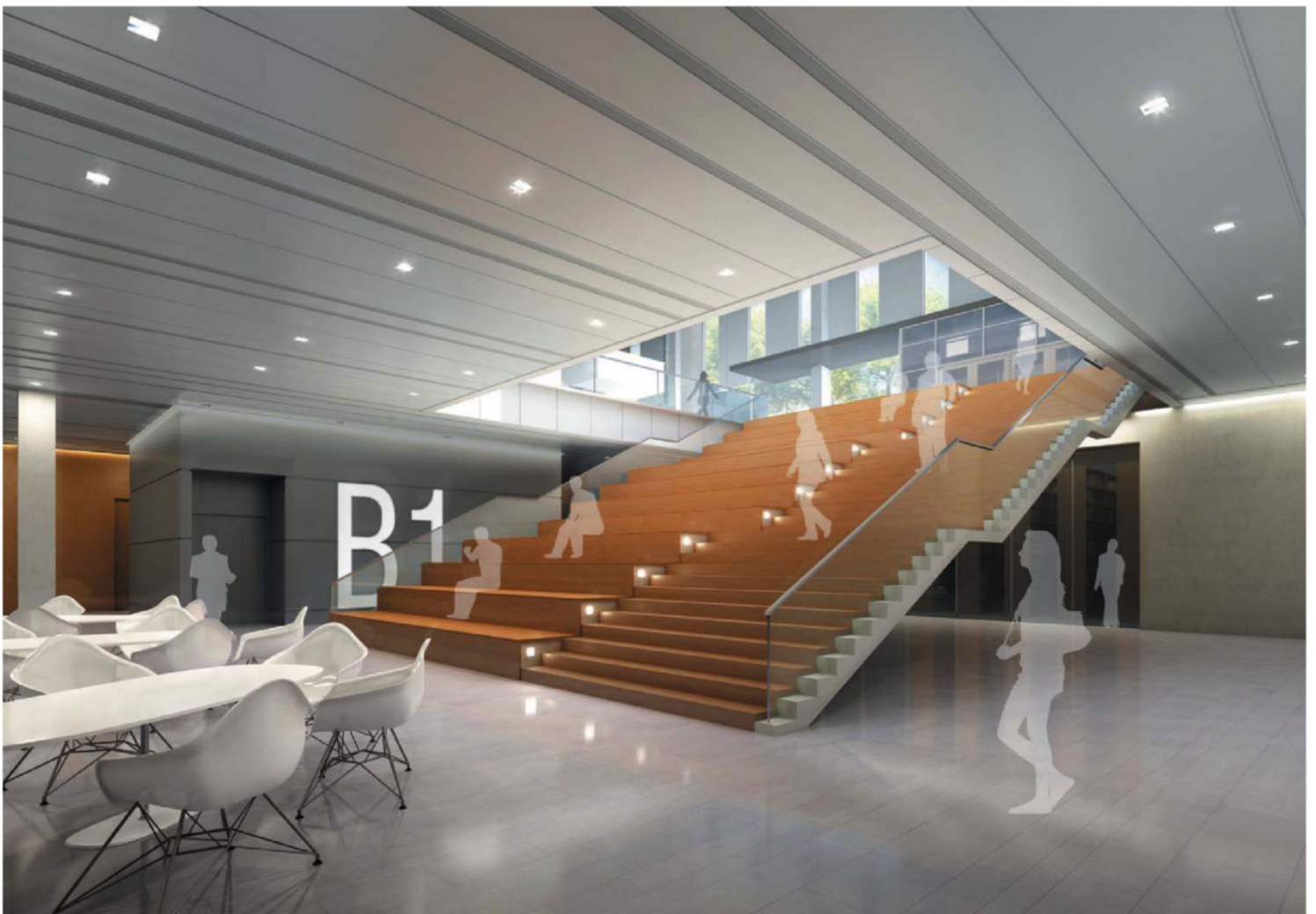


3rd Floor Plan



5th Floor Plan





A.M. Qattan Foundation Building in Ramallah Ramallah, Palestine

DONAIRE ARQUITECTOS

라말라 A.M. 퀴탄 재단 빌딩

이 빌딩은 부지의 특성들을 감안하여 그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설계되었다. 본체는 자연 흙으로 만든 테라스에 조각된 주춧돌로 설계되었으며, 격자와 자연석 투과율 검사를 통해 실내와 실외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이와 같이 혁신적이고 현대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여 이 지역의 석재를 가지고 주춧돌 위에 있는 높고 투명한 본체의 외면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그 결과 언덕 꼭대기에 있는 이 빌딩은 등대처럼 화려한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As a building bound to the ground, it is designed to be in harmony with its physical setting, while taking advantage of the site's features. The main body is conceived as a stone plinth carved in terraces out of the natural soil, enhancing the interior - exterior relation through the use of lattices and natural stone permeable screenings. This innovative and contemporary use of the local stone will be used to clad entirely a tall transparent volume seating on top of the plinth. This volume will therefore perform like a lighthouse, a glittering landmark on top of the hill.

Written by DONAIRE ARQUITECTOS



Location Ramallah, Palestine

Project Area 4,372.00m²

Architects Authors DONAIRE ARQUITECTOS

Project Team Juan Pedro Donaire · Juan Pedro Donaire · Pablo Baruc Garcia Gomez · Jose Francisco Garcia Gutierrez · Hector Arderius Salvador · Carlos Iglesias Carbonell

Administration Ana Garcia Guerra · Eva Hidalgo Fernandez · Marta Garcia Guerra

Local Partners Sakakini & Partners

Graphics Juan Francisco Garrido Rite

Model Adrian Vazque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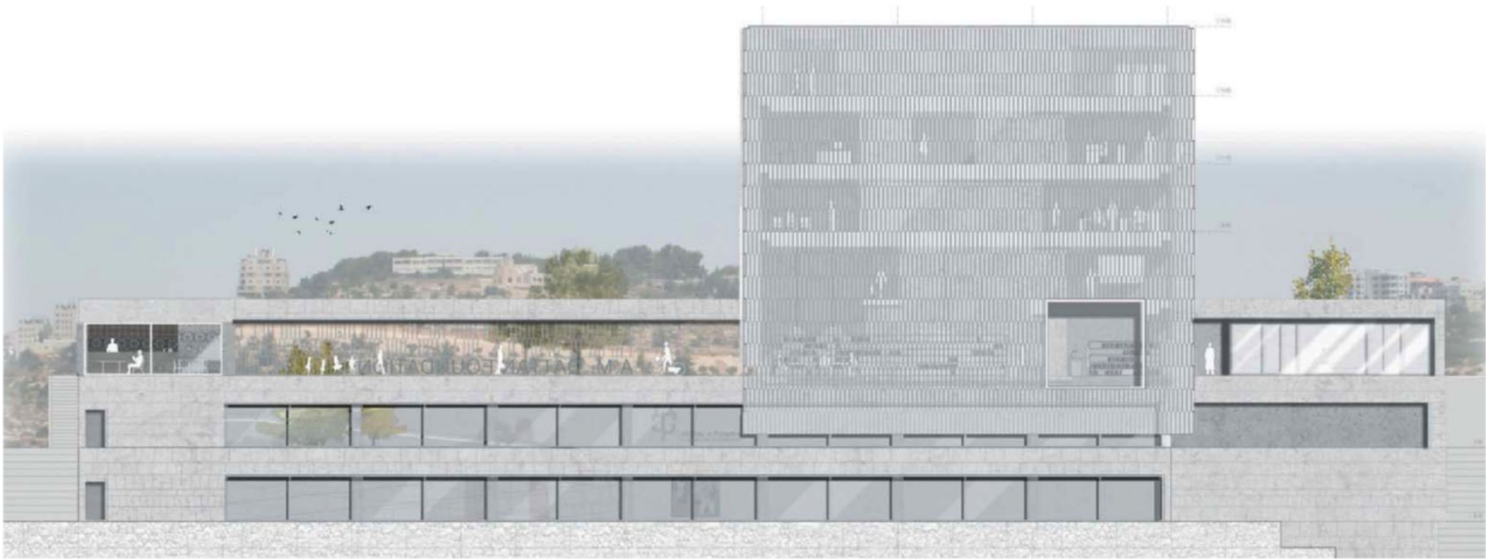
Finalist FRANCISCO MANGADO ARQUITECTOS + MRJ RUNDELL & ASSOCIATES + PESQUERA ULARGUI ARQUITECTOS

Client A.M. Qattan Foundation



Site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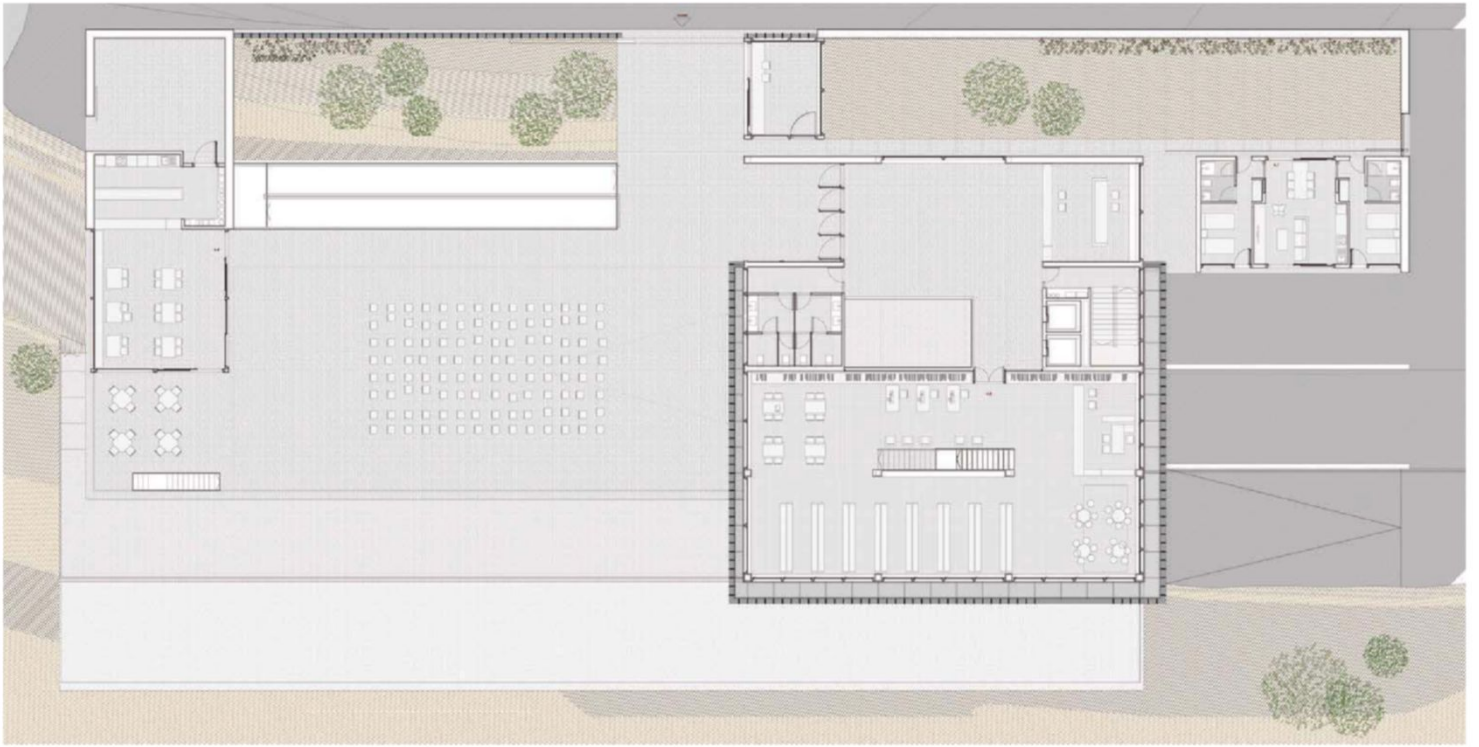
Elevation



Cross Section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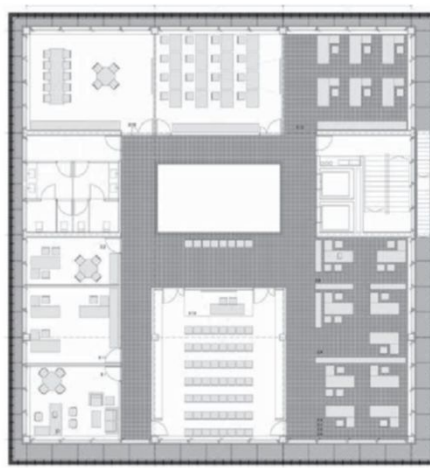
Cross Section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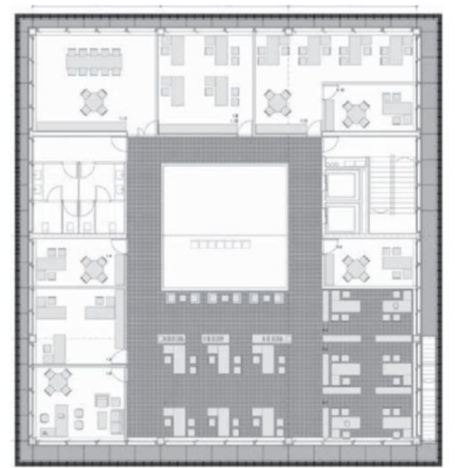
Ground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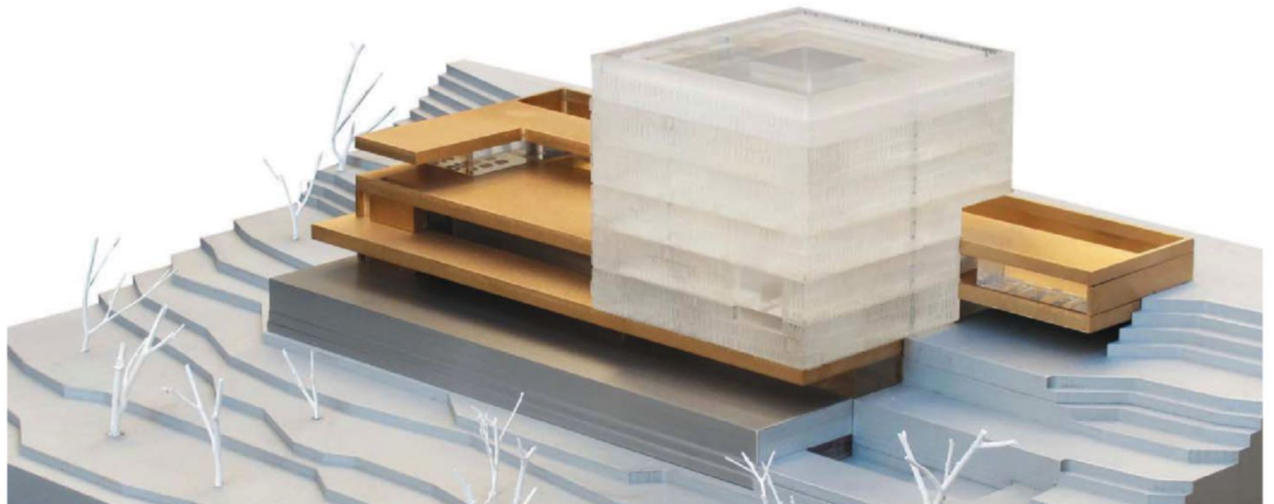
1st Floor Plan



2nd Floor Plan



3rd Floor Plan







BLUE ECONOMY

블루 이코노미 하우스

주택은 인간생활의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다. 사람의 생리와 심리에 다양한 영향을 주는 유기체라고도 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이나 성격은 그가 사는 집과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쾌적한 주택은 사람의 정신적 안정과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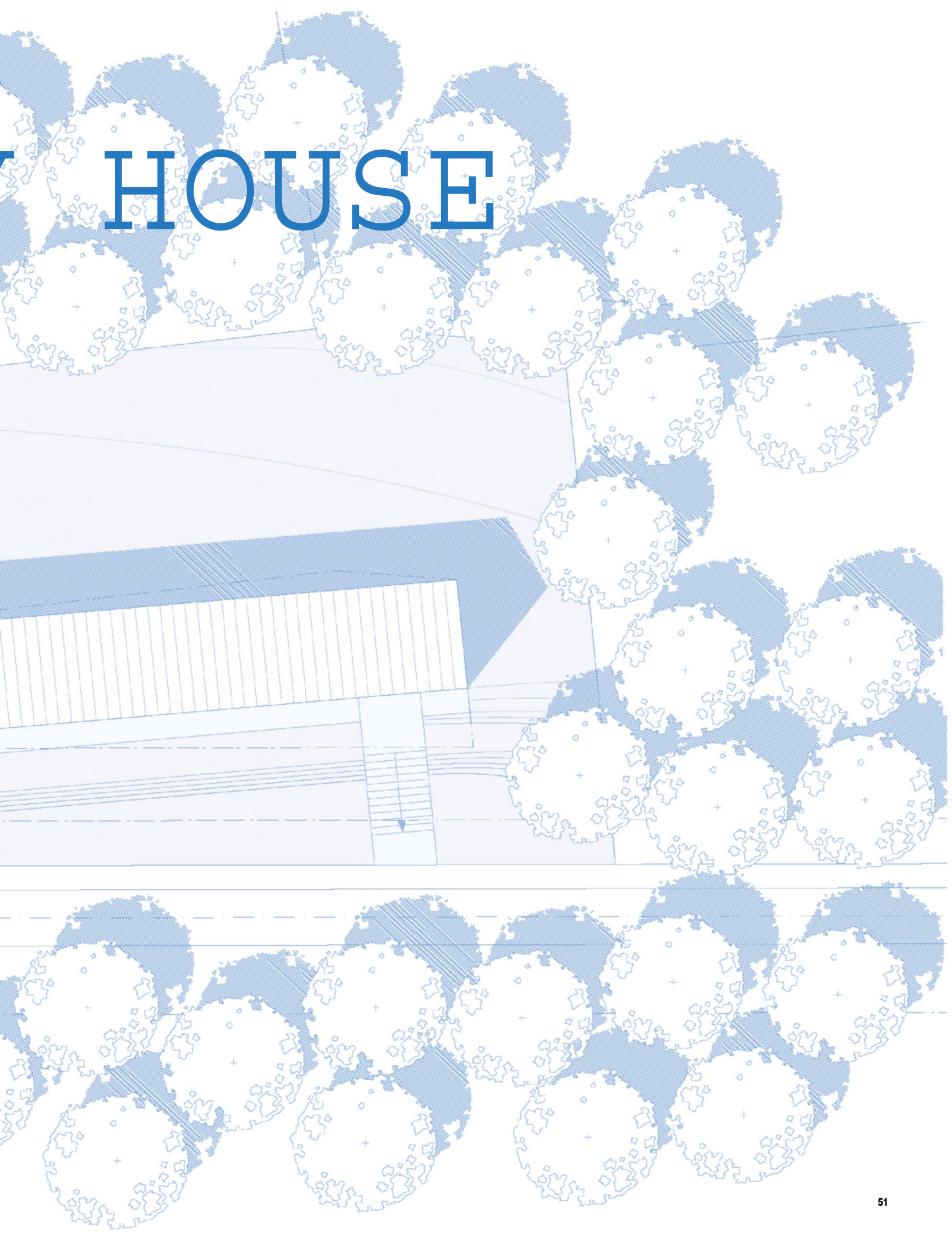
21세기에는 다양한 기능을 갖는 집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미래형 주택인 블루 이코노미 하우스가 화제가 되고 있다. 블루 이코노미 하우스는 단순한 자연 보호의 차원을 넘어 재생산을 의미하는 지속가능한 저에너지형 하우스이다.

이번 호에서는 블루 이코노미 하우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House is not just a simple structure for human life. It can be called an organism which gives various influences to human physiology and psychology. Human minds or characters are greatly influenced by their residences and environments. And therefore, pleasant residences give great influences to human mental life and the whole society.

Accordingly in 21 century, there is a trend that numerous types of residences are born which have various functions. Recently, blue economy house which is a future residence becomes a big topic. Blue economy house is a sustainable low - energy - consuming house which transcends simple nature conservation level but up to a regeneration level.

This issue introduces an Blue Economy House.



HOUSE



Location Sweden

Architects Eco Cycle Design

Project Team Karin Nyquist _ Architect SAR / MSA, BRE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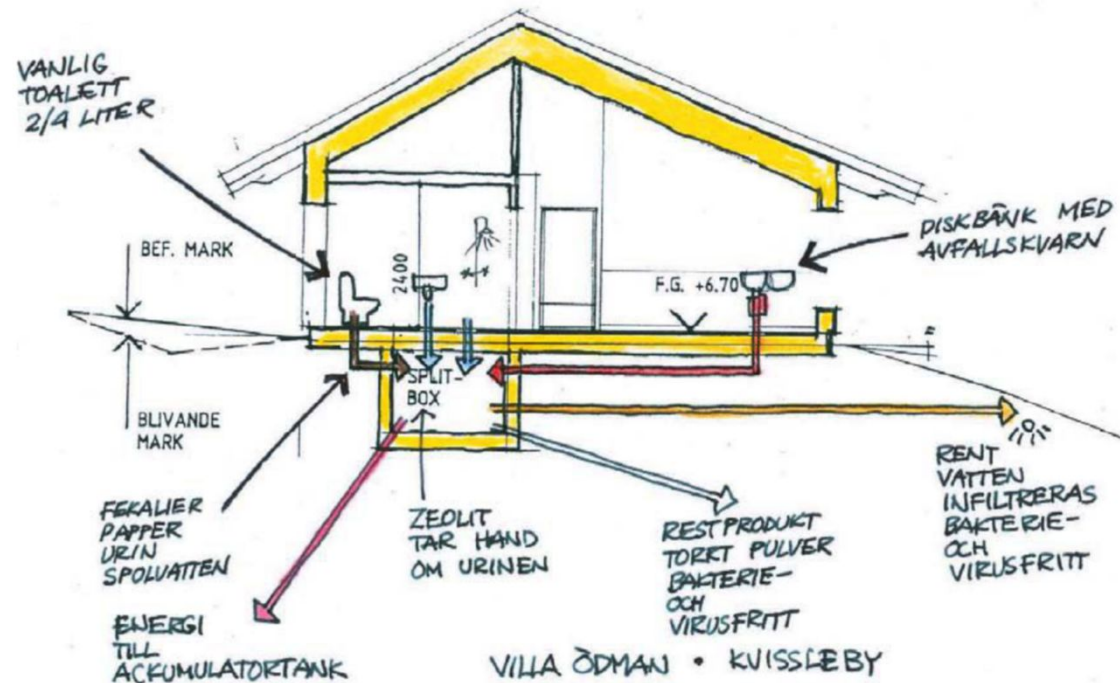
International Assessor · Anders Nyquist_ Architect SAR /

MSA · Peter S. Dean _ BFA Architecture, MFA Furni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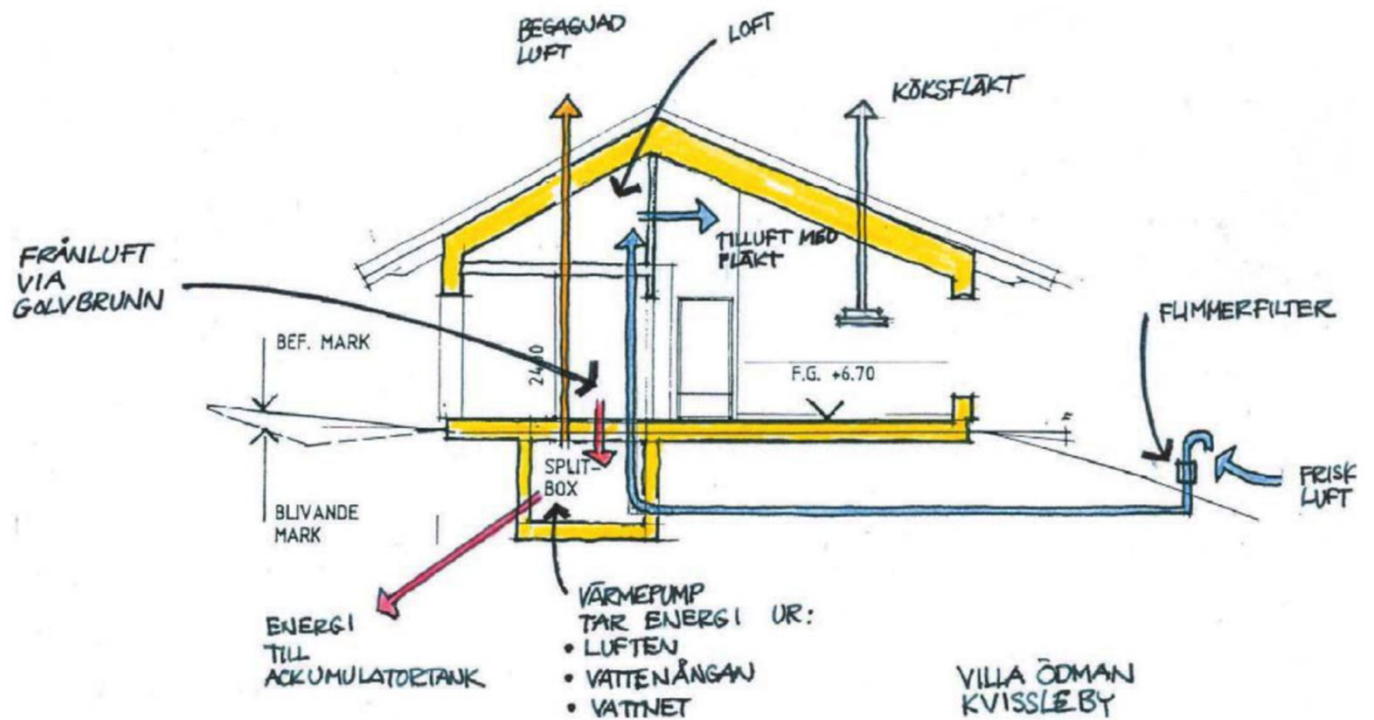
Design

Energy Wise House - Villa Odman

Eco Cycle Design



Splitbox 1



Splitbox 2

현명한 에너지 주택 - 빌라 오드만

에너지 효율적 주택의 목적은 에너지 소비가 적게들어 연간 에너지 비용이 저렴하고, 유지 보수가 간편하면서도 유지비가 적게 들도록 하며 공용 하수구 또는 지역 난방과 연결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다른 건축 자재들 및 조명 등을 선택할 수도 있다.

에너지 효율적 주택들은 완벽하게 친환경적이며 친생태학적이다. 본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는 스웨덴과 외국에서 시행되었던 친생태학적 프로젝트들에 대한 평가들을 꼼꼼히 확인하였다.

에너지 효율적 주택들은 우리가 기존의 구태의연한 인프라 속에서 어떻게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주택들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단독 주택들을 짓는 본 프로젝트를 완성하면 그 안에 다양한 식물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자랄 가능성이 아주 커질 것이다.

이 주택은 최소한의 굴착 공사만이 필요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효율적 주택을 아파트 단지, 학교 및 상업용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적 주택들은 스플릿박스(SplitBox)와 콜젠(Koljern)기술이 결합해 만들어졌다.

The objective of Energy Wise Houses is to create a new platform for housing with low energy consumption, low annual costs, simple maintenance, low service life

costs, no connection to municipal drains or district heating, i.e. a house with a minimal impact on the environment.

In addition you have the selection of other construction material, lighting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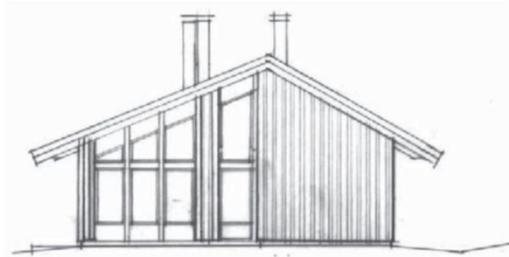
Energy Wise Houses are entirely environmental and ecocycle adapted. As supporting documentation for the project we have used a checklist that is a result of the evaluations of the ecocycle projects we have conducted in Sweden and abroad.

Energy Wise Houses show how we can incorporate environmental and ecocycle adapted houses in existing developments with antiquated infrastructure. Completed projects that involve single family houses where the existing vegetation has been preserved to the greatest possible ext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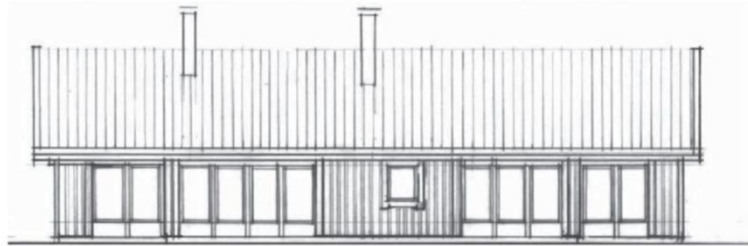
The houses are located to ensure a minimum of excavation work. The solution for Energy Wise Houses also works for apartment blocks, offices, schools and commercial constructions.

Energy Wise Houses have been created by combining the SplitBox and Koljern techniques.

Written by Eco Cycle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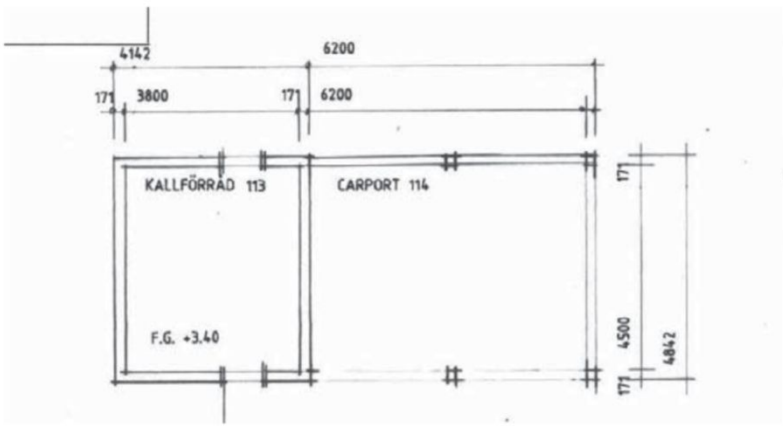


East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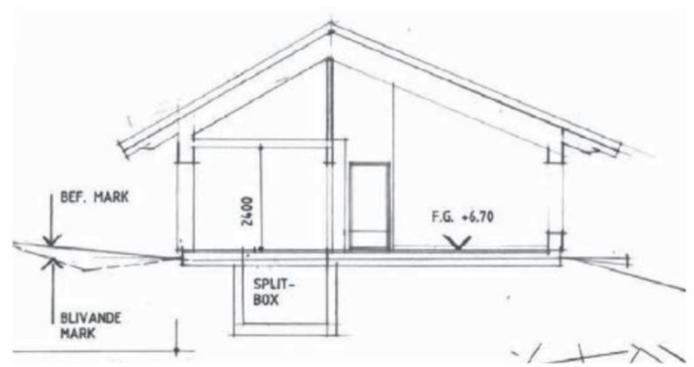


South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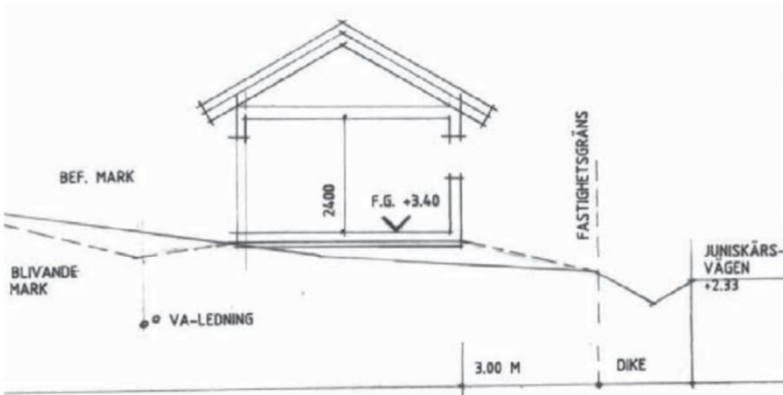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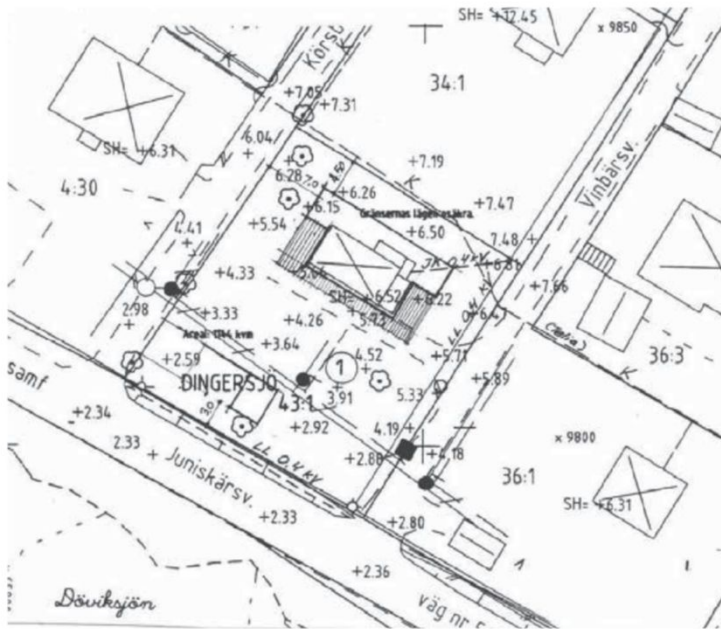


Section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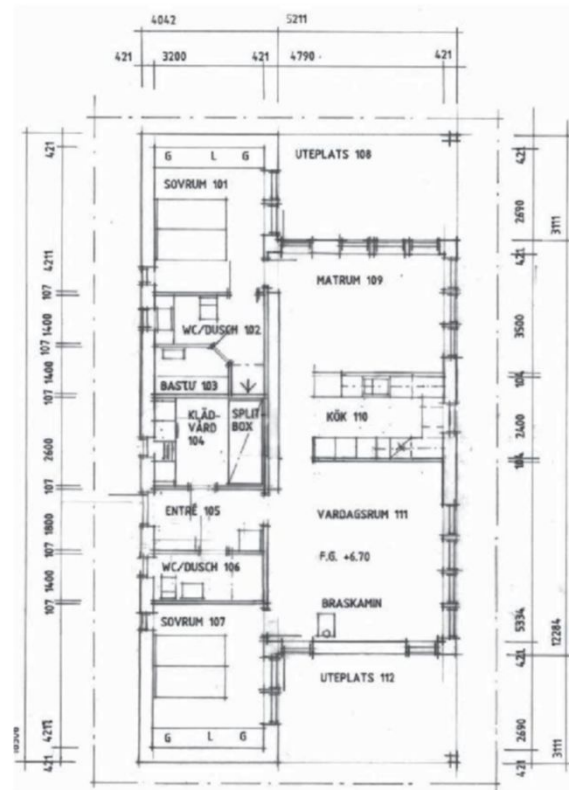


Section 2





Site Plan



1st Floor Plan







Location Beukenlaan - 3110 Rotselaar - Belgium

Use Private Single House

Site Area 1,060m²

Bldg. Area 118m²

Gross Floor Area 260m²

Bldg. Scale 2/3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Wood

Landscape Area 1,060m²

Parking Lot 2 Cars

Exterior Finish Bamboo, Steel

Architects AST 77 Architecten

Architect Peter Van Impe

Project Team arch.- ing. Peter Van Impe + ir. arch. Bart Gullentops + 2B-Safe + Kris Herman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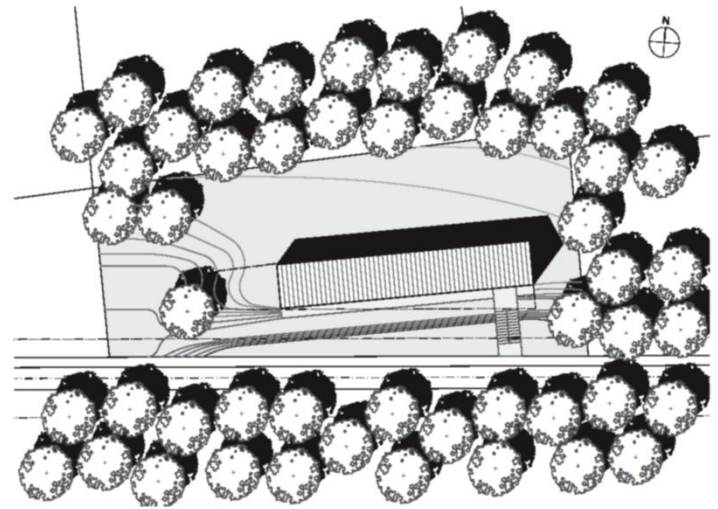
Bamboe Fencing · Climasolutions · Carl Deckers · Makke dakwerken · Kwadro ramen

Client Thijs - Peeters

Photo by Steven Massart

Low Energy Bamboo House

AST 77 Architecten



Site Plan



저 에너지 대나무 하우스

오래된 빌딩들을 대체하면서 기존의 벽들을 지능적으로 이용하였다. 길거리 방향을 따라 집을 짓는 대신에, 집의 긴 정면 방향을 뒤쪽 방향으로 보이도록 약간 바꿨다. 현관을 향해 긴 정면을 따라 나있는 약간 경사진 길을 걷노라면 이 집의 길이와 좁은 폭을 알게 된다.

외벽에는 검정색 강철 프레임 안에 생태학적인 대나무 막대기를 수직으로 세워 붙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광경이 거울을 통해 반사되는 주위 나무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재미있는 광경을 만들어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외벽 중간 중간에 창문을 배치하여 다양한 나무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였다. 겨울에는 햇빛이 거리 반대편에 있는 나무들을 지난 다음 창문들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와 태양열을 제공하고, 여름에는 나무들이 천연 햇빛 가리개 역할을 한다.

나무들은 여분의 햇빛 가리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길거리 쪽을 향해 여분의 완충 역할까지도 제공한다. 세탁실과 빗물 저장소를 지하실에 배치하였으며 정원으로 가는 길을 마련하였다. 냉난방 시설, 바닥 난방, 대규모 절연 처리, 환기 시스템 그리고 뛰어난 집의 방향으로 인해 이 집은 지속 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집이 되었다.

Replacing the old buildings the architects made an intelligent use of the exis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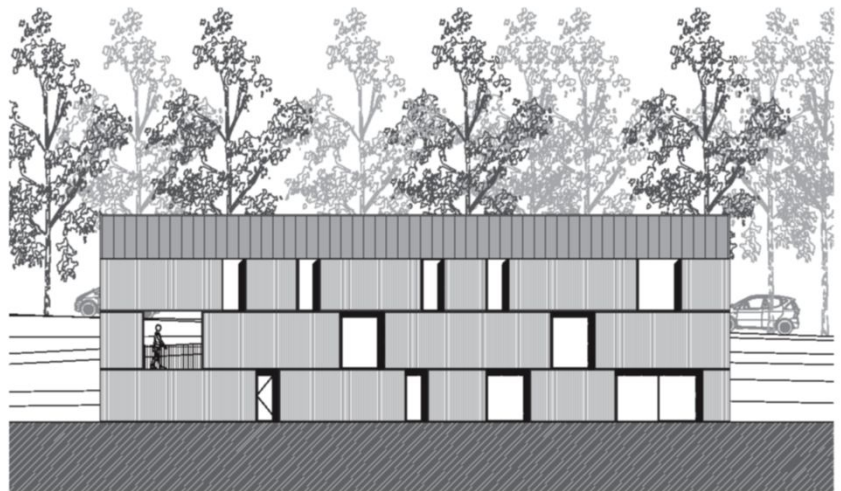
retaining wall. Rather than following the direction of the street, the house faintly changes the direction of its long front facade in favour of the direction of the perimeter at the back. Walking on the slightly sloping path along the long front facade towards the entrance, one notices the length and narrowness of the house. The exterior is clad with ecological bamboo sticks vertically placed in black steel frames. In combination with the surrounding trees mirrored in the glazing, this creates an interesting effect.

Strategically placed windows in between and in the volumes provide various views on the tree crowns. During winter period sunlight is able to provide passive solar gain through the windows after passing through the trees on the opposite side of the street, while in summer the trees provides a natural sunscreen. Not only will they provide a supplementary sunscreen but also an extra buffer towards the street. The cellar houses the installations for water cleansing and recuperation of rain and offers access to the garden. A heat pump, floor heating, extensive insulation, a ventilation system and its favourable orientation make this house a sustainable and effective low energy house.

Writtn by Edith Wouters(Teema architects)



East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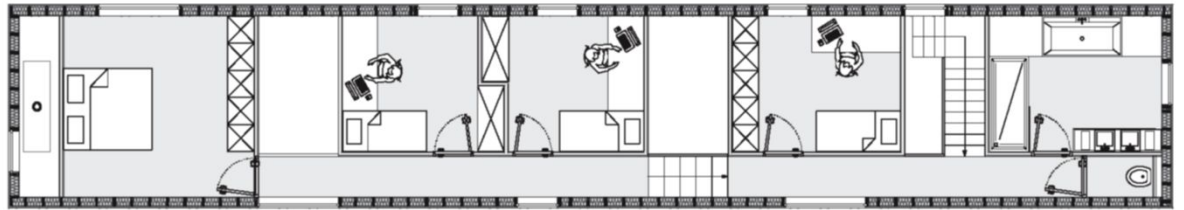
North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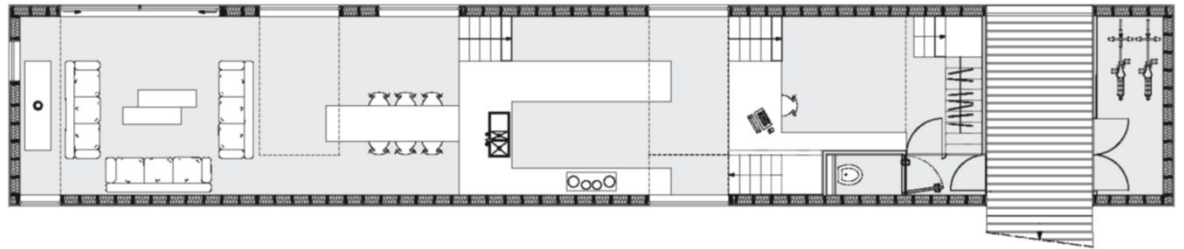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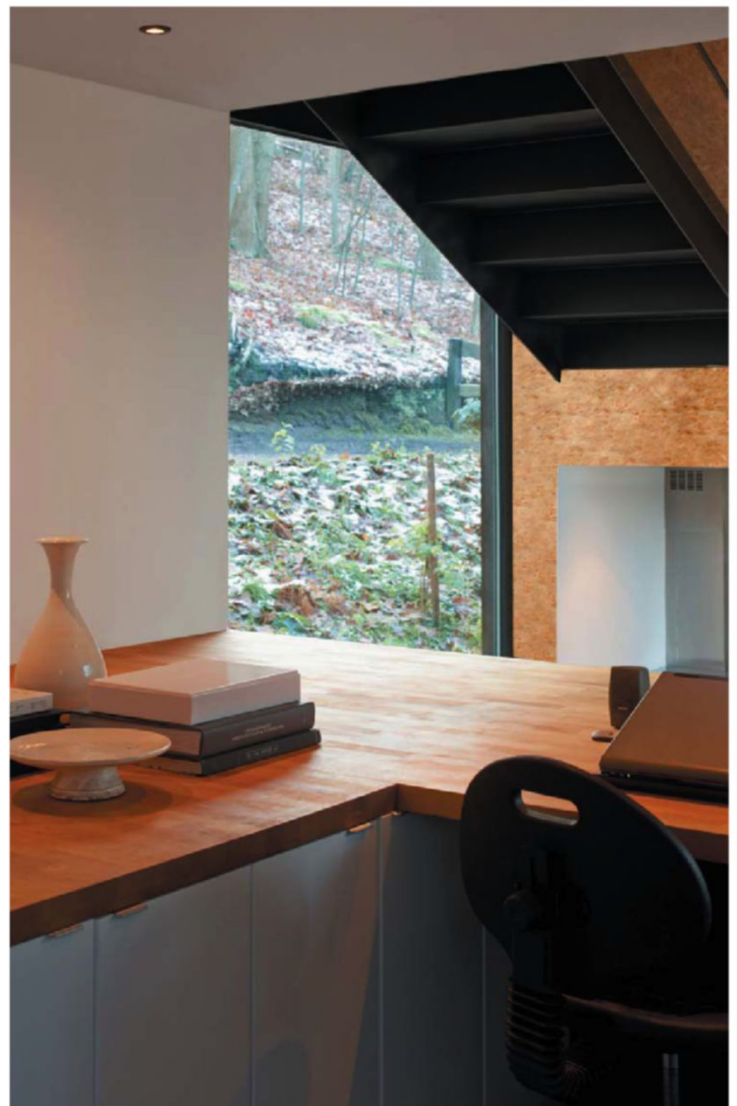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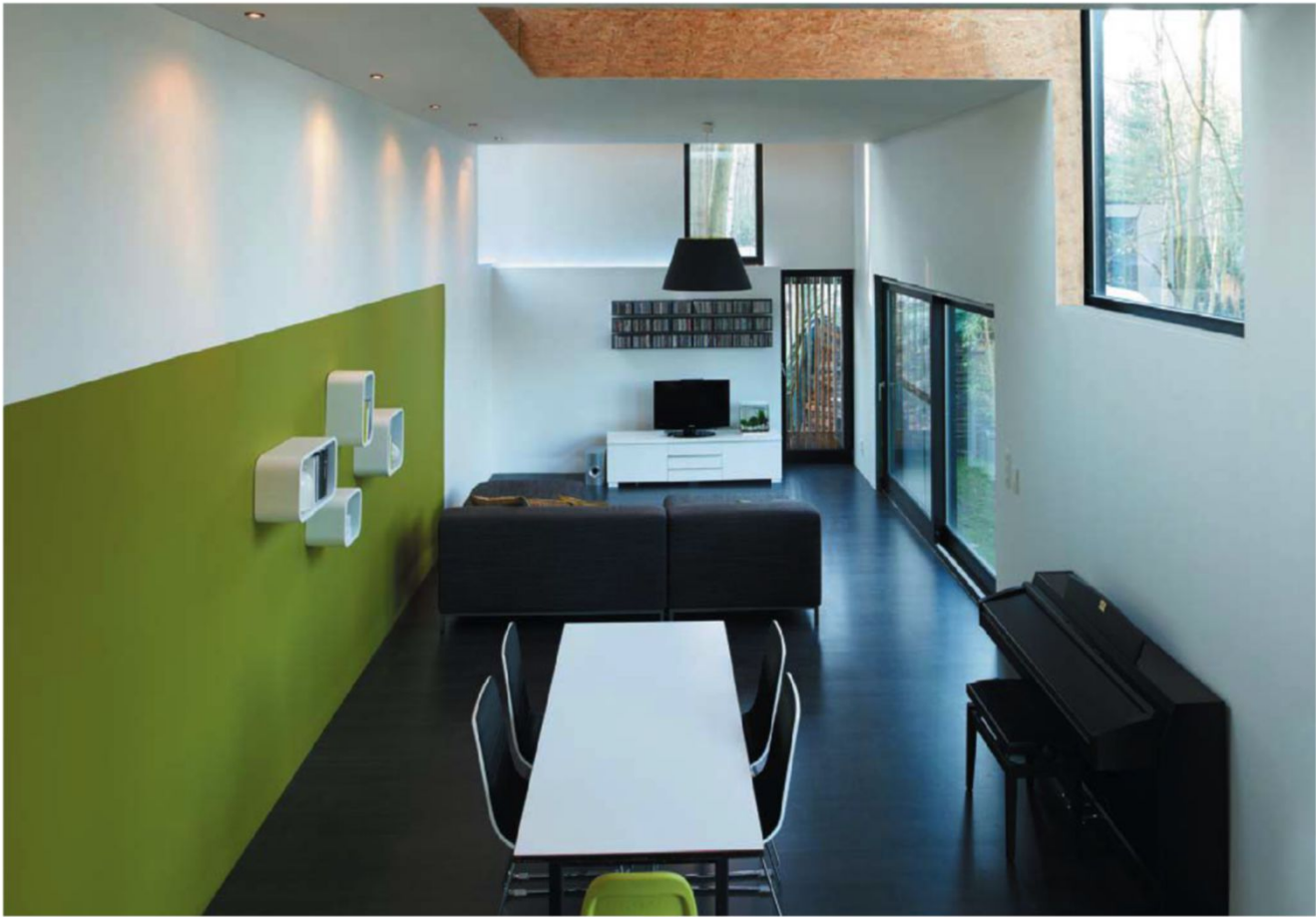


1st Floor Plan



Ground Floor Plan









House In Bioclimatic Experimental Urbanization

Studio of Jose Luis Rodriguez Gil



West View

Location Spain

Area 120,00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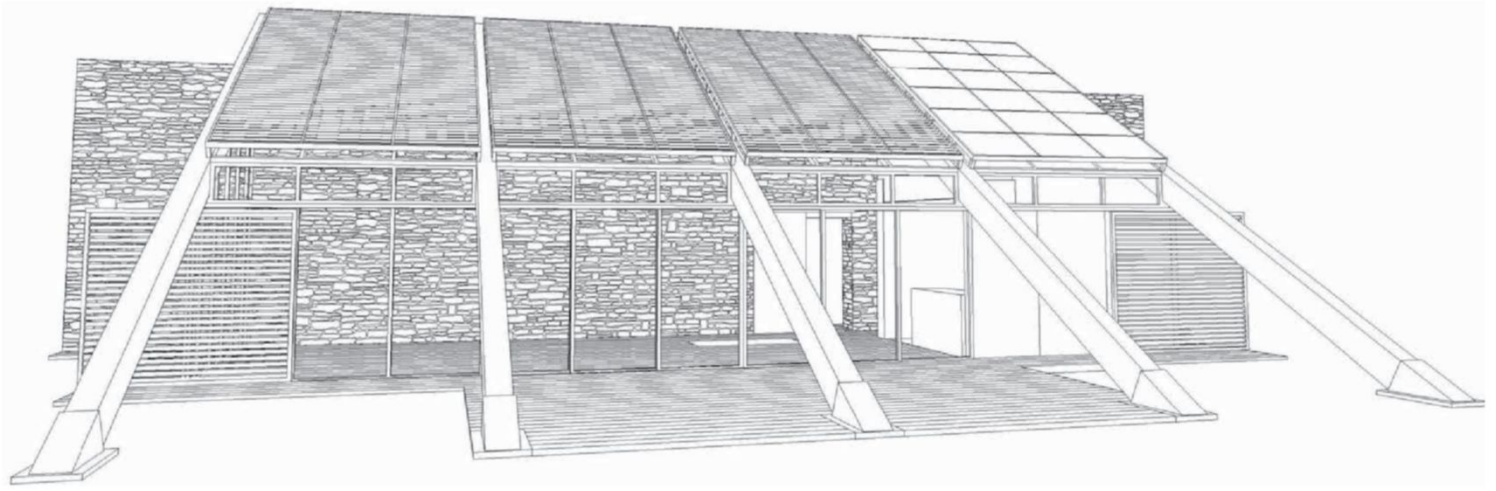
Architect Studio of Jose Luis Rodriguez Gil

Design Team Jose Luis Rodriguez Gil · J. Rueda,

Collaborators Maria Delgado(Building Work's Architect),
Rosenda V. Marrero Hernandez(Building Engineer)

Developer ITER(Renewable Energy Technology Institute),
Government(cabildo) of the Island of Tenerife

Photo by ITER



North Elevation

생물기후환경(친환경) 실험적 도시화 주택

이 프로젝트는 풍경과 사용자를 연결하는 매개체의 요소 개념으로 잉태되었다. 이는 풍경의 본질을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그 가치가 더해지는 맥락으로 파악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한다. 바깥과 연결되는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은 풍경을 이기고, 바람과 태양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역이다. 벽 뒤의 북쪽으로는 침실 공간인데 작고 은밀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충분한 난방이 공급된다. 이 이중성은 개념적인 공간 재료와 건축으로 표시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거실 구역(사람끼리의 관계, 사람과 풍경의 관계가 존재하는 공간)과 침실 구역(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어두운 공간) 간의 비물질화와 무경계를 뜻한다.

The Project is conceived as an element of intermediation(almost a platform) between the landscape and the users. This initial though guides us to rethink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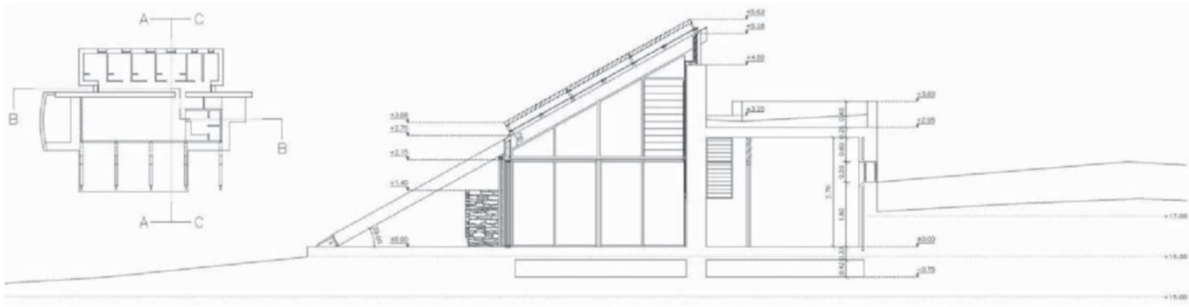
essence of landscape, that is understood as CONTEXT, adding values to human interaction (topographical, cultural, environmental).

Is generated as well an area connected to the outside (the day area), relationship space that dominates the landscape and is protected from sun and wind. After the wall is located the sleeping area to the north formed of small intimate venues to which is provided with high thermal inert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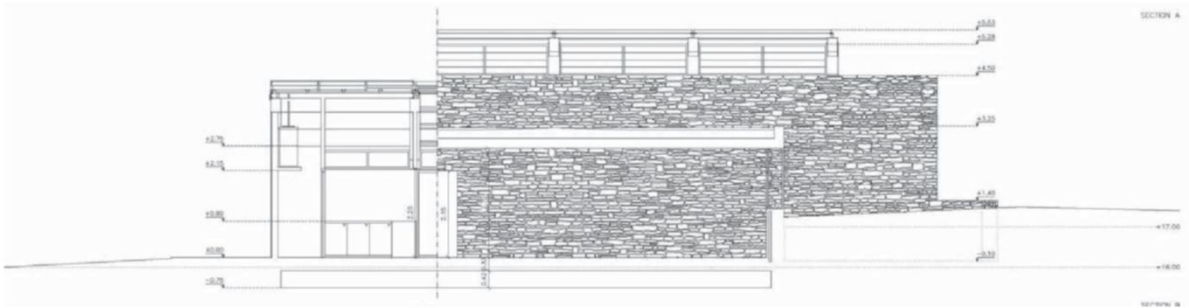
This duality is expressed in conceptual spatial material and construction: dematerialization and the absence of limits of the living area(space of relationship between users and between them and the landscape) against the austere interior containment for shady sleeping area(areas of privacy).

Written by Studio of Jose Luis Rodriguez Gil





Section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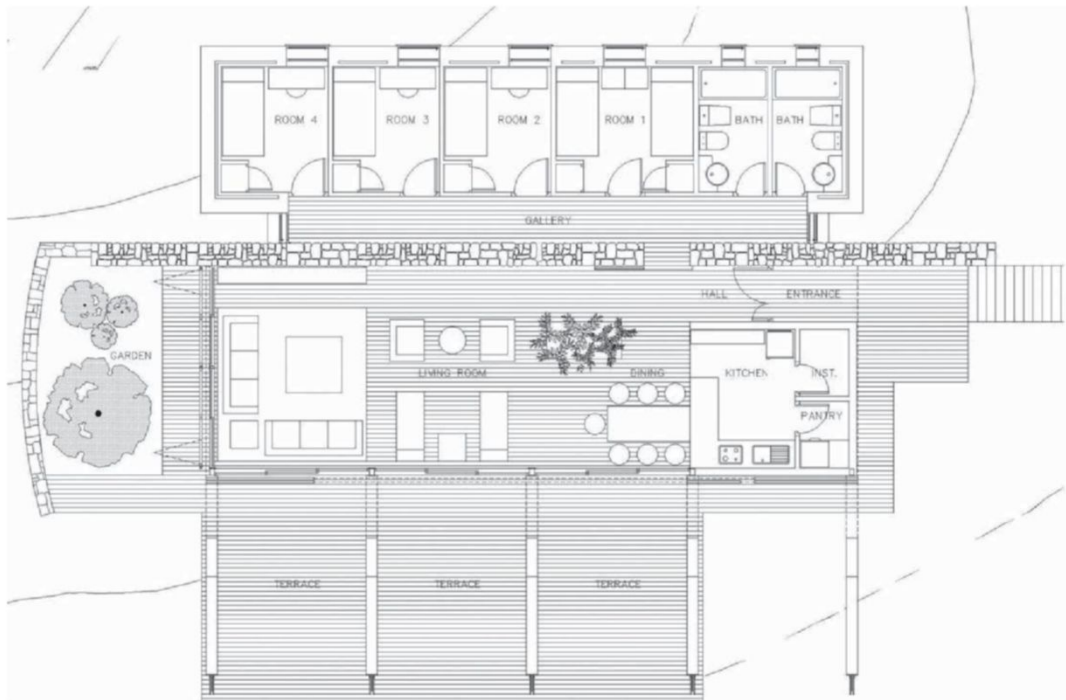


Section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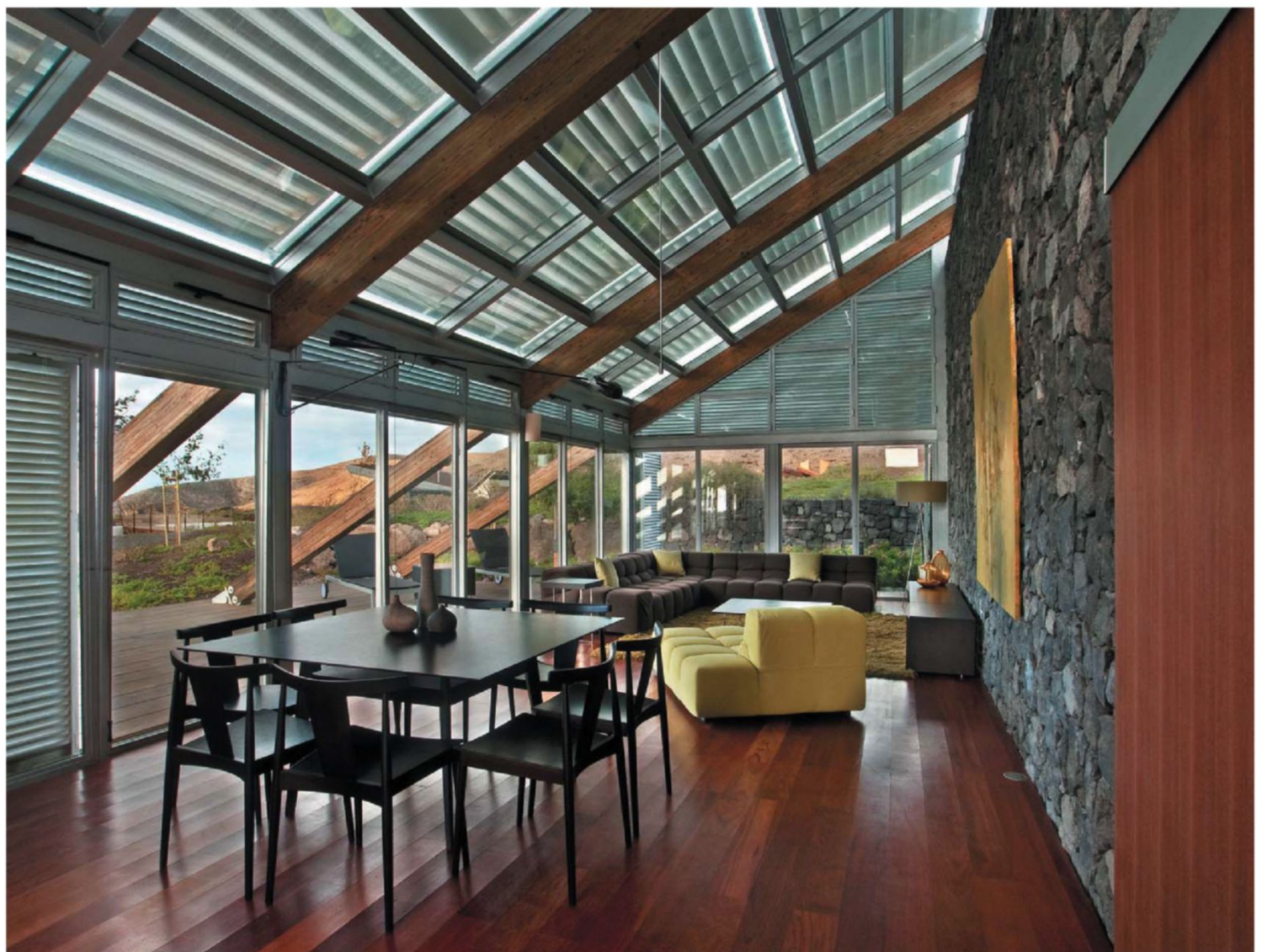


Section C





Ground Floor Plan







Parameter



The Grove At Grand Bay

Rising 20 stories over the bay - front, Grove at Grand Bay will showcase 96 expansive residences with panoramic views from every angle as the two towers take off from the ground and clear the surrounding buildings, readjusting their orientation to capture the full breadth of panoramic views from sailboat bays and the marina to the Miami skyline.

그랜드 베이의 베이 프론트에 솟아있는 20층 빌딩인 그로브에는 96세대가 살고 있으며, 각 세대에서 전경을 조망할 수 있다. 2개의 타워를 세워 주변 건물 및 범선 정박지와 마리너 그리고 마이애미 스카이라인의 전경을 볼 수 있도록 이 타워들의 방향을 조정하였다.

Hanking Nanyou Newtown Urban Design Project

Urban regeneration involves the preservation of community areas while enriching the locale programmatically and experientially. Taking this as a point of departure, old housing at the south-eastern edge of the site was adaptively reused into an Art Village.

도시 재생은 보존 작업을 통해 계획된 프로그램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공동체를 더 번창하게 만든다. 이 작업을 시초로 사이트의 남동쪽 끝에 있는 낡은 집들을 개량하여 아트 빌리지(Art Village)로 재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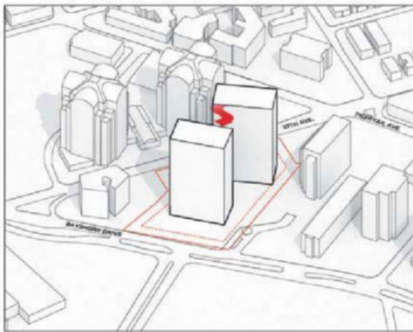
DQZ Culture Center

The new DQZ C building takes its form from the traditional Chinese courtyard square. By lifting the square in the diagonal corners, dual entry points to the building are created which leads visitors and locals through the building's ground level public programs to the mid - and upper - level exhibition spaces while extending the existing North - South axis of the surrounding city.

새로운 DQZ 빌딩은 전통적인 중국식 안마당 형태를 본 따 지었다. 우각부 모서리들의 사각형을 들어 올려 2중 출입구를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방문객들과 지역 주민들이 1층에 있는 공공 프로그램들과 중간 층과 윗층에 있는 전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였으며, 도시 기존의 북부 - 남부 축을 확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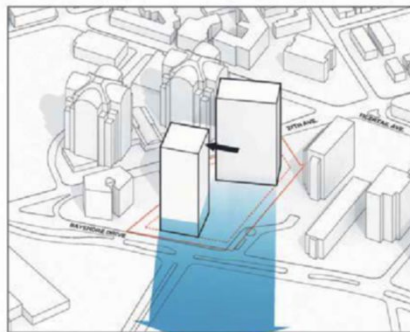
The Grove At Grand Bay Miami, FL, USA

BI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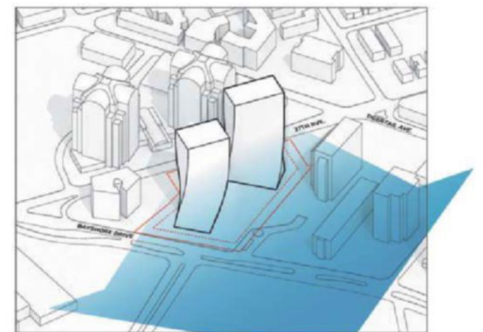
FRONT/BACK

The central challenge of the site is to create two condominium towers that do not block each others' views, creating a front and back building.



COMPACT FOOTPRINT

By compacting the footprint of the south tower, the north tower is offered views straight out to the water.



SIDE-BY-SIDE

As the buildings rise over their neighbors, the optimum views change to favor a panorama that encompasses both the marina in front and the Miami skyline to the

Location Coconut Grove, Miami, FL, USA

Use Commission

Area 58,900m²

Architect BIG

Project Leaders Leon Rost · Ziad Shehab

Collaborators NICHOLS BROSCHE WURST
WOLFE & ASSOCIATES, INC · ESRAWE ·
DESIMONE · HNGS · RAYMOND JUNGLES

Partner in Charge Bjarke Ingels, Thomas
Christoffersen

Project Team Tiago Barros · Jitendra Jain ·
Brian Foster · Ed Yung · Terrence Chew ·
Ji-Young Joon · Kasper Hansen · Chris
Malcolm · Alana Goldweit · Martin Voelkle ·
Greg Knobloch · Ho Kyung Lee · Mina
Rafiee · Cat Huang · Maureen McGee ·
Chris Falla · Valerie Lechene

Client TERRA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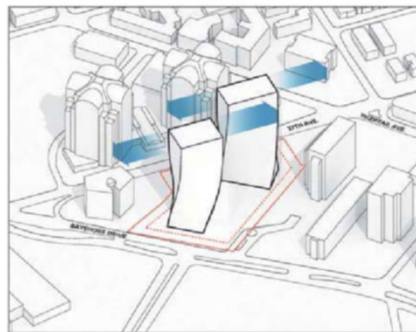
그랜드 베이 더 그로브

그랜드 베이의 베이 프론트에 솟아있는 20층 빌딩인 그로브에는 96세대가 살고 있으며, 각 세대에서 전경을 조망할 수 있다. 2개의 타워를 세워 주변 건물 및 범선 정박지와 마리너 그리고 마이애미 스카이라인의 전경을 볼 수 있도록 타워들의 방향을 조정하였다. 이 두 타워는 연동해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 그로브 스카이라인에 춤추는 듯한 실루엣을 볼 수 있다. 빌딩들의 비틀어진 정면이 그림자에 상관없이 그로브 거주자들은 야외 생활을 만끽하고 즐기게 될 것이다. 정원과 그 건축 양식이 조화를 이루어 쾌적한 공간을 형성하여, 남 플로리다 기후에 걸맞은 실내, 실외 생활 경험을 극대화시켰다. 정원을 내려다보고 주변의 덮개를 덮은 건물들 바라보고, 범선 정박지 너머까지 보이는 전경은 우아한 실내 주거 공간과 넓은 발코니에 평화롭고, 푸르른 배경을 선사할 것이다. 각 세대의 인테리어는 간결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디자인하였다.

Rising 20 stories over the bay - front, Grove at Grand Bay will showcase 96 expansive residences with panoramic views from every angle as the two towers take off from the ground and clear the surrounding buildings, readjusting their orientation to capture the full breadth of panoramic views from sailboat bays and the marina to the Miami skyline. The interactive movement of the two towers creates a new dancing silhouette on the Grove's skyline.

Whether in the shade of the buildings twisting facades or inside, residents of the Grove at Grand Bay will fully experience and relish living amid the open air. The gardens and architecture will fuse seamlessly at the amenity levels, maximizing indoor outdoor living experiences that are unique to the South Florida climate. Views down into the gardens, towards the surrounding canopied neighborhoods, and beyond Sailboat Bay will offer peaceful, verdant backdrops to elegant residential interiors and vast balconies. The interior design of the individual units are refined towards minimalism and luxury.

Written by BI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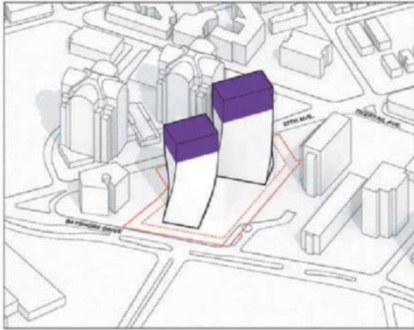


ADDITIONAL VIEWS

The building alignment allows for additional views up and down SW 27th Ave.



North - East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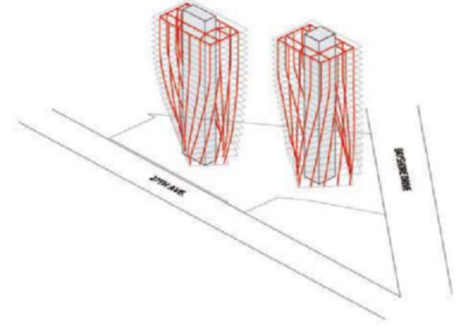
TOP OPTIMIZATION

Optimizing the upper floors of the towers provides a far greater number of residents with premium views.



CARPET OF LUSH VEGE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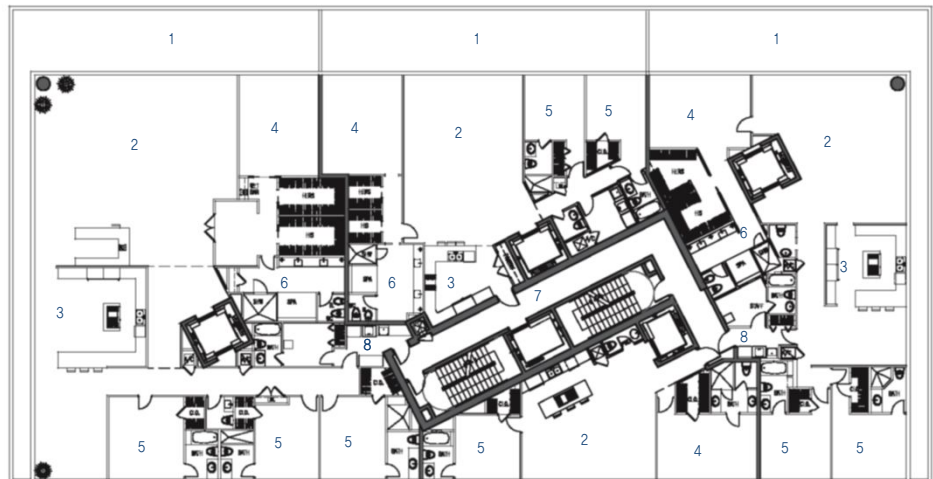
The podium of parking and amenities is "groved over" by a carpet of lush jungle vegetation from which the towers emer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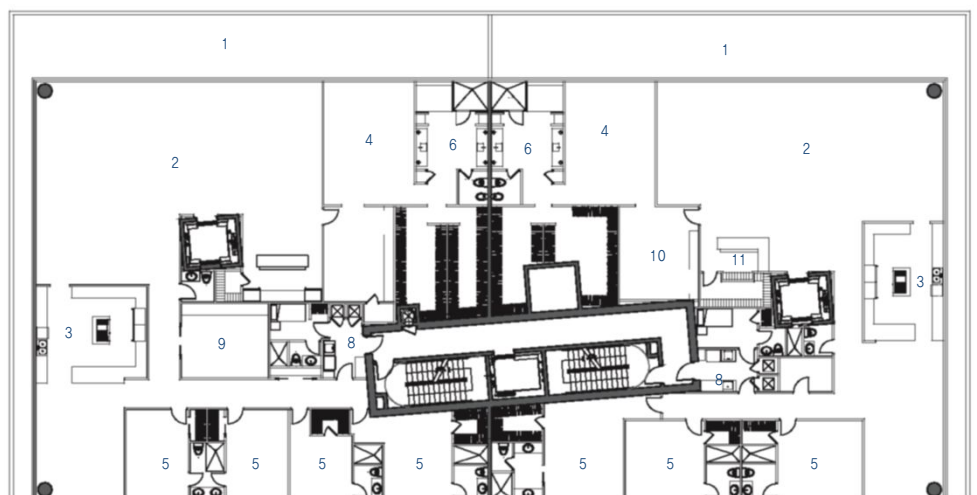
BUILDING STRUCTURE

Post-tensioned slabs rest on round concrete columns that slant and turn with the building while the core resists the torque created by the twist. A hat truss at the top of the each tower diffuses the force within the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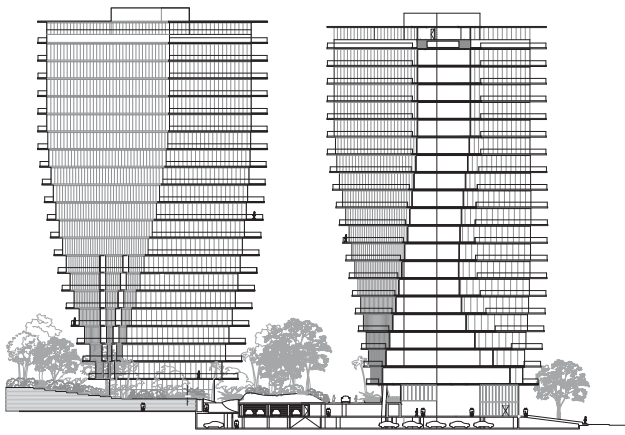
1. Terrace
2. Living
3. Kitchen
4. Master Bedroom
5. Bed Room
6. Master Bath
7. Service Corridor
8. Laundry
9. Media Room
10. Sitting Room
11. B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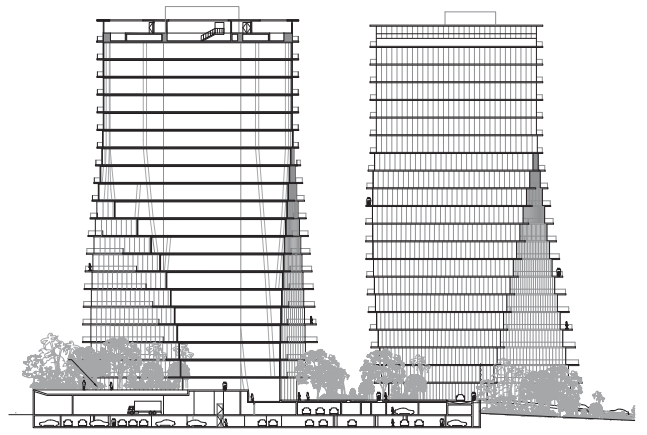
Towe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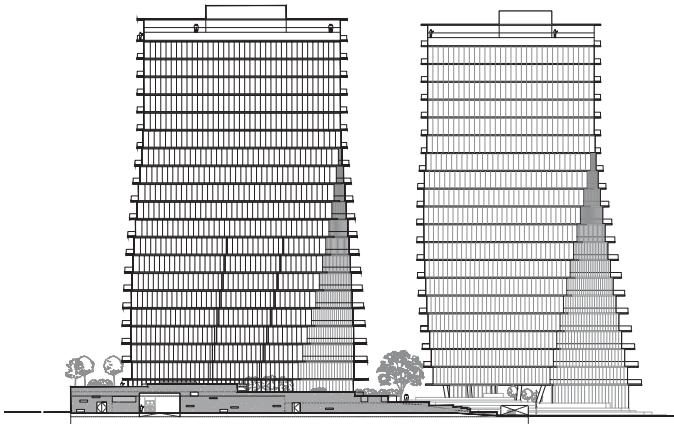
Penthouse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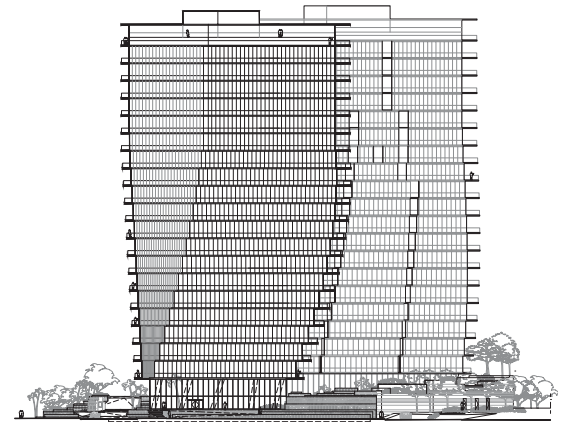
Section 1



Section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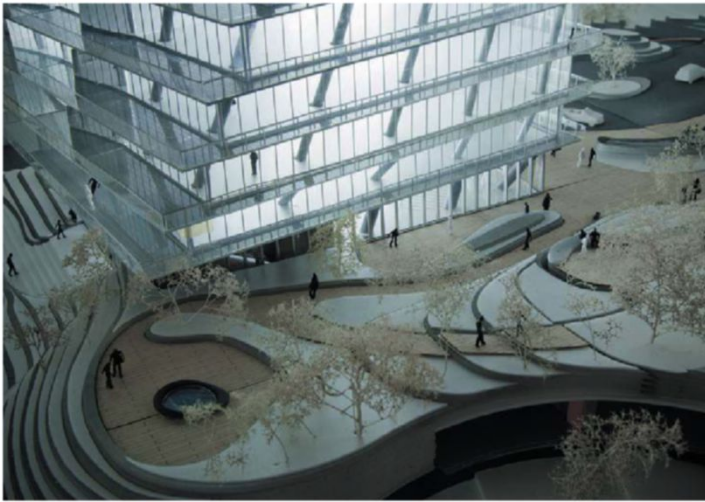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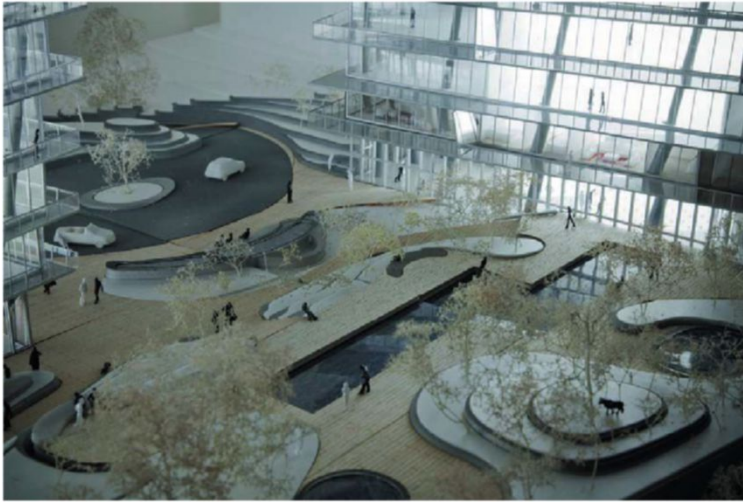


West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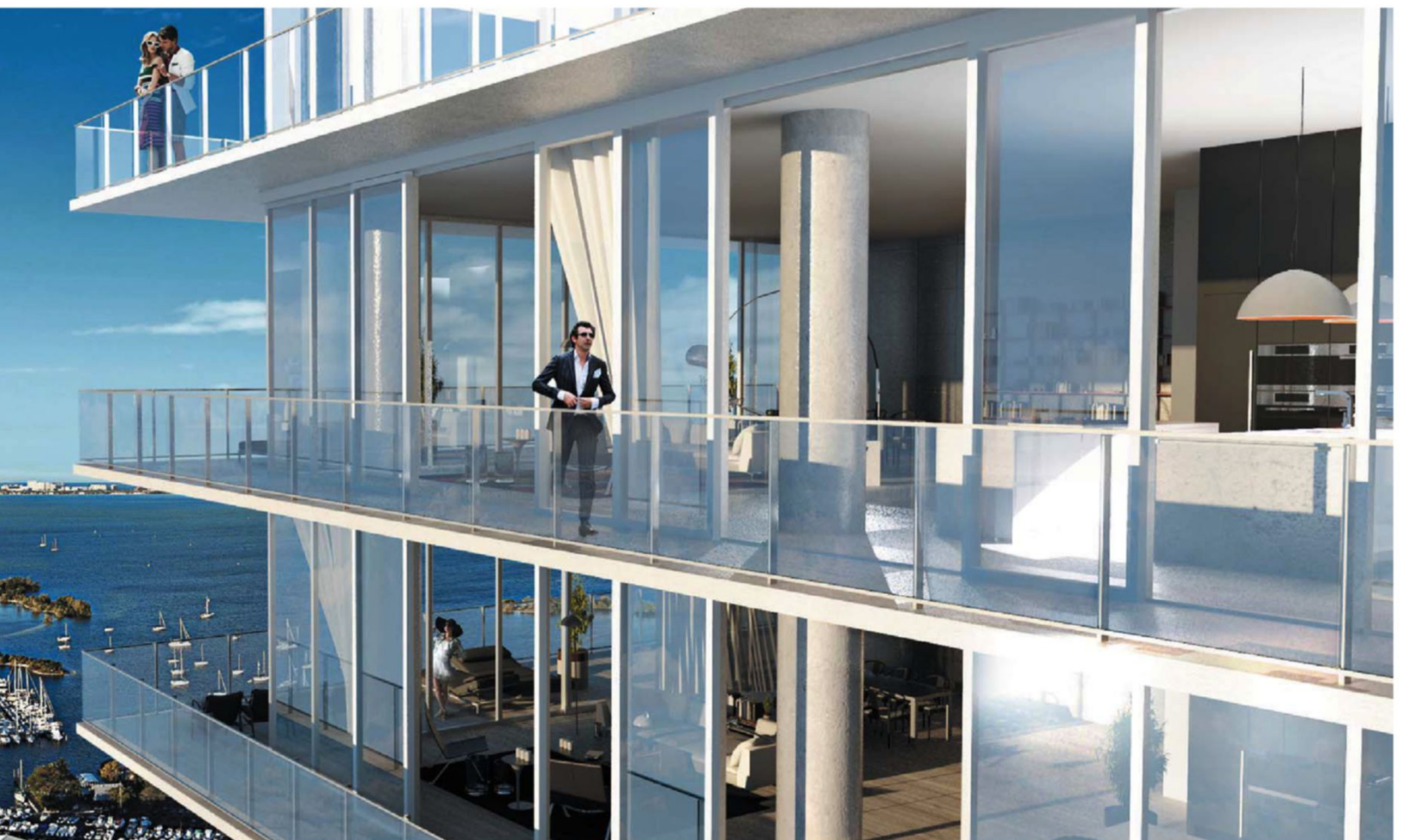
South - East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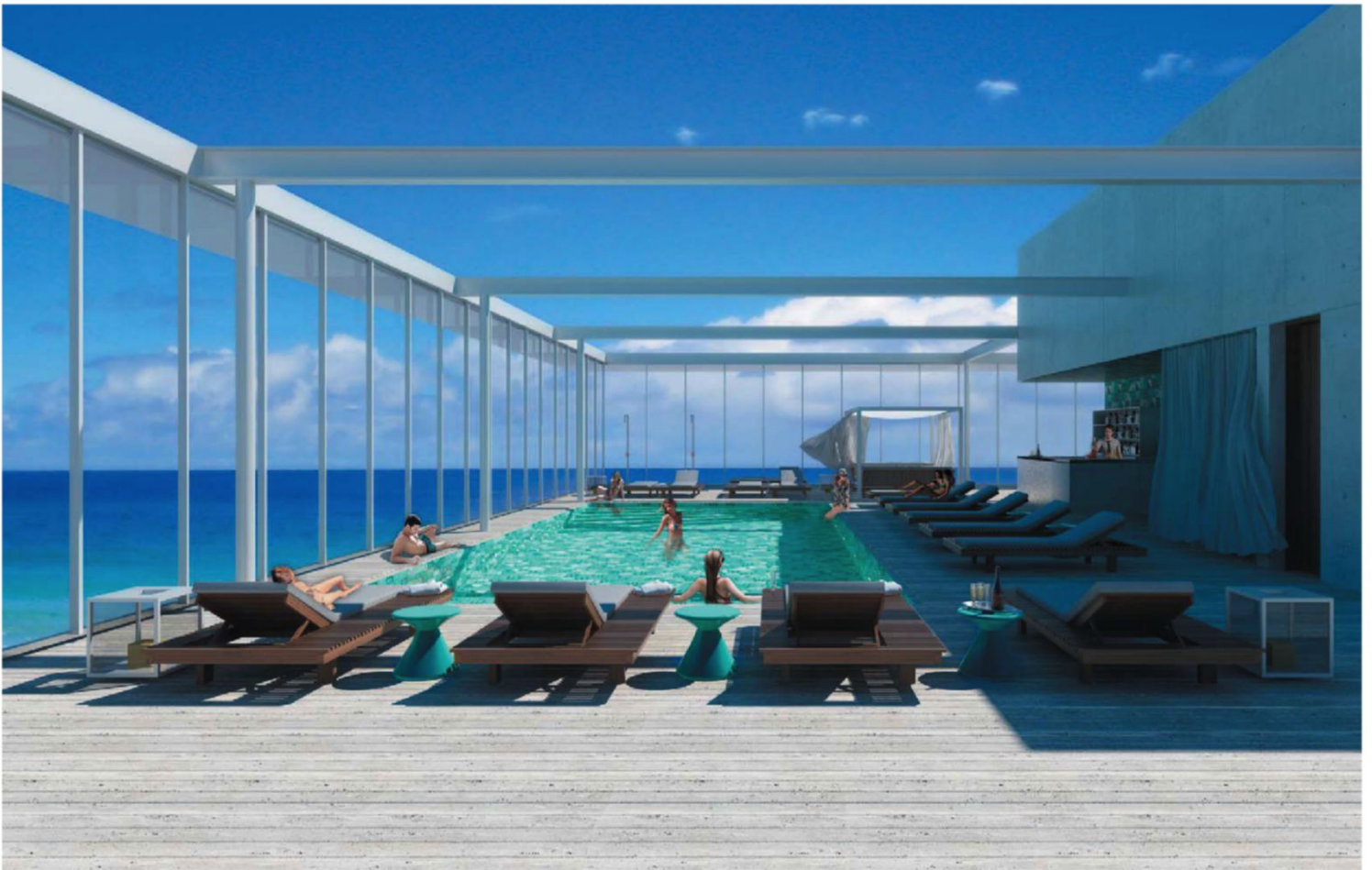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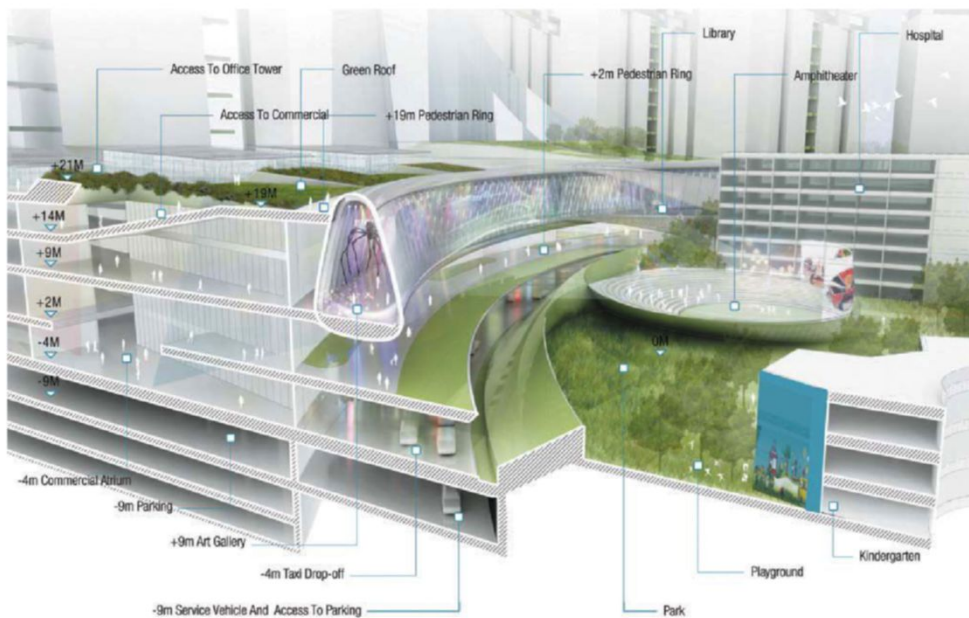






Hanking Nanyou Newtown Urban Design Project China

Jaeger and Partner Architects



Section Planning



Location Nanyou, Nanshan District, Shenzhen, China

Use Mix Use, Commerce, Office, Residence

Site Area 275,000m²

Bldg. Area 110,000m²

Gross Floor Area 2,200,000m²

Bldg. Coverage Ratio 40%

Gross Floor Ratio 8%

Max. Height 400m

Landscape Area 82,000m²

Parking Lot 6,000 Cars

Architects Jaeger and Partner Architects

Architect Johannes Jaeger[Design Principal]

Project Team Tarak Mehta · Leonardo F. Micolta Diaz ·

Tim Bauer · Shawn Cai · Eva Lee · Lu Peng

Client Hanking Group

Photo by Leonardo F. Micolta Diaz

한킹 난요 뉴타운 어반 디자인 프로젝트

도시 재생은 보존 작업을 통해 계획된 프로그램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공동체를 더 번창하게 만든다. 이 작업을 시초로 사이트의 남동쪽 끝에 있는 낡은 집들을 개량하여 아트 빌리지(Art Village)로 재사용하였다. 이 밖에도 사이트 기존의 AOS 주 광장에 있던 교육 시설들 및 의료 시설들을 그대로 보존하였다. 그러나 이 편의시설들은 부지의 가장 좁은 부분, 즉 시의 중심에 위치한다. 기존의 도로에 직접 연결하고 확장하여 자동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하였으며,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들은 후 순위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 보존된 공동체 특성들을 원형으로 이어 기존 도로에 연결하여 AOS 중심에 쉽게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후에 높이가 다른 몇 개의 층을 만들어 중심부를 높이고, 각 층은 도시 데이터를 바꾸어 놓아 프로그램을 짜고 도시 환경을 창조하였다. 난산 산(Nanshan Mountain)의 뒤집힌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중심을 강조하기 위해 그리고 그 개방성을 표현하기 위해 그 전체를 오목 표면으로 조각했다. 이 밖에도 교차 그리드 시스템을 통해 현재의 직교적인 도시 체계와 유사 깊은 대각선 수로 축과 혼합하였다. 기존의 도시 점점들과 광장들이 그리드를 약간 바꾸어 도시 연결선들을 보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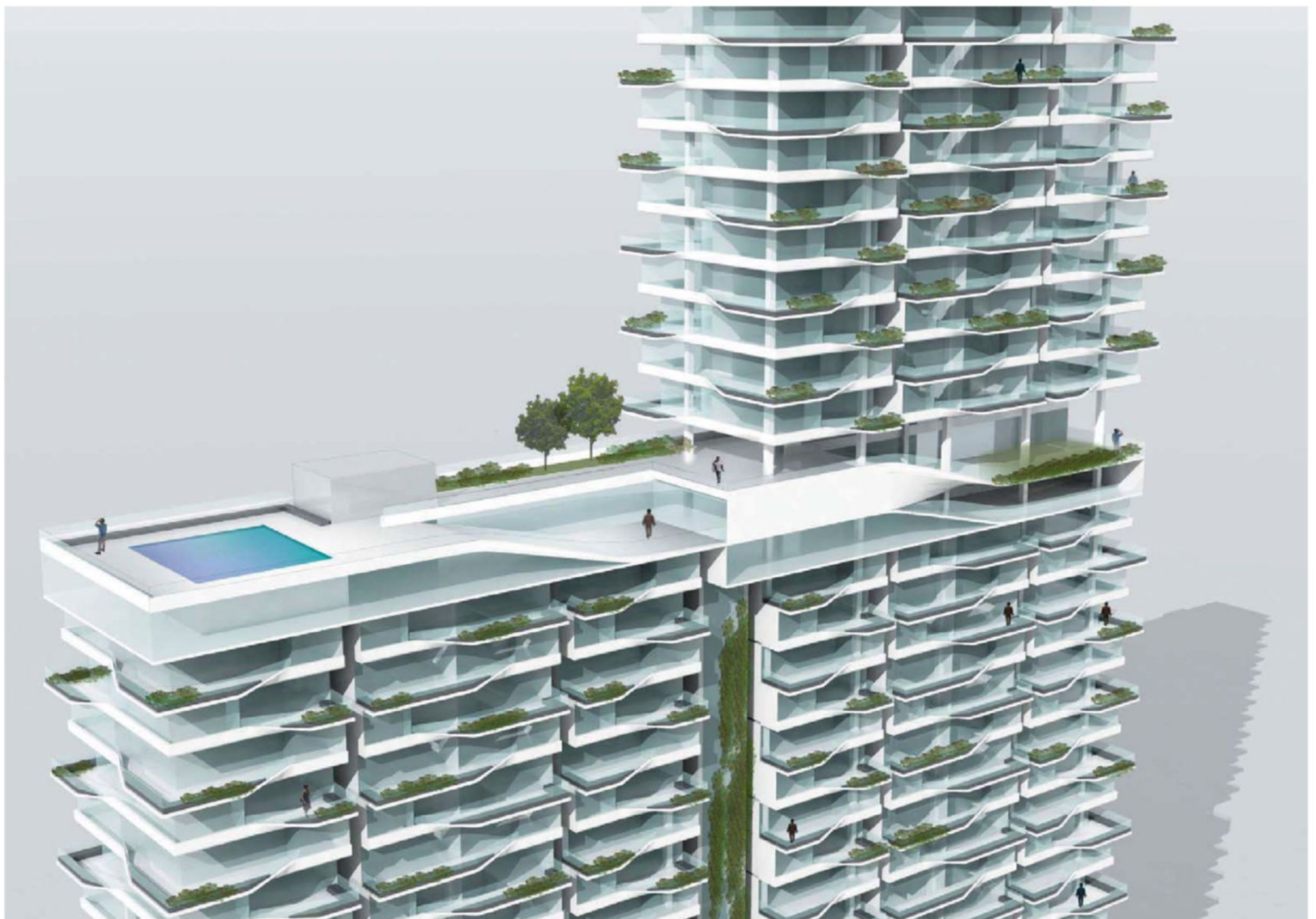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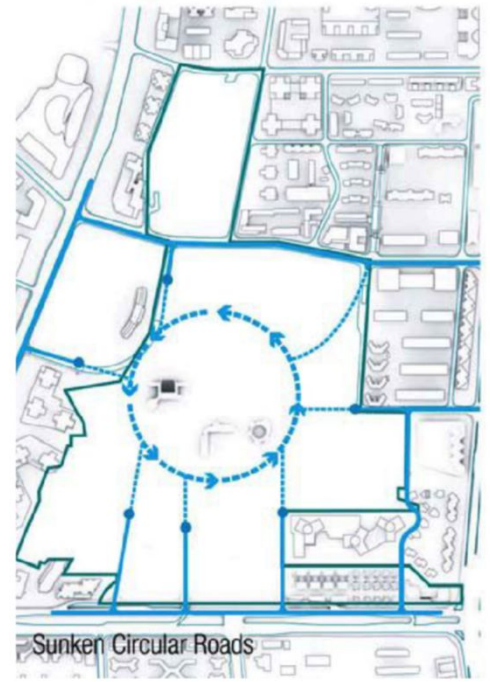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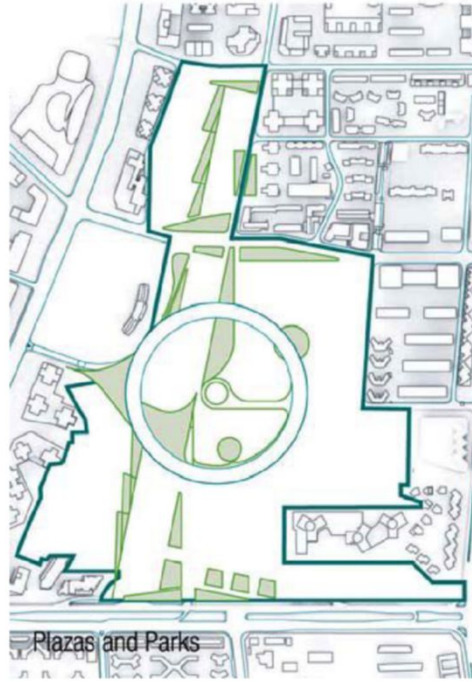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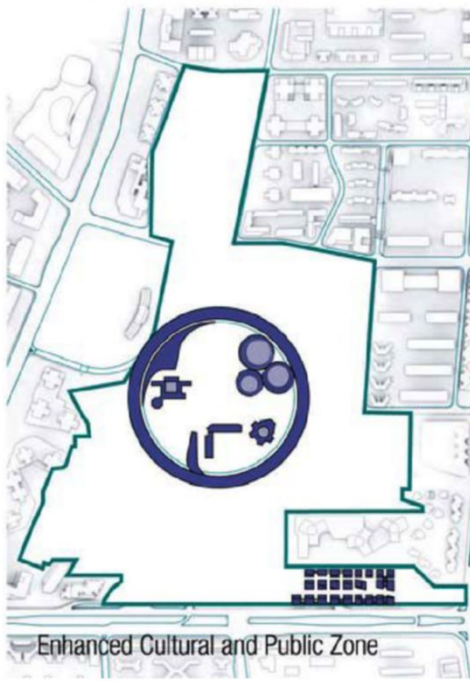
Urban regeneration involves the preservation of community areas while enriching the locale programmatically and experientially. Taking this as a point of departure, old housing at the south - eastern edge of the site was adaptively reused into an Art Village. Furthermore, the site AOS main existing plaza, educational and medical facilities were preserved. However, these amenities lie in the narrowest segment of the site at its center. Directly connecting and expanding the existing rounds would give priority to vehicular access and less opportunity for community enhancement. To resolve this, a circular link circumscribing the preserved features, connects the existing roads while facilitating a focal point at the site AOS 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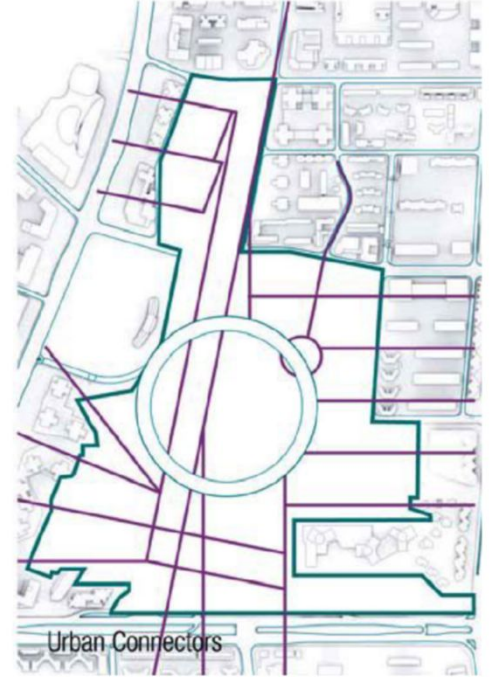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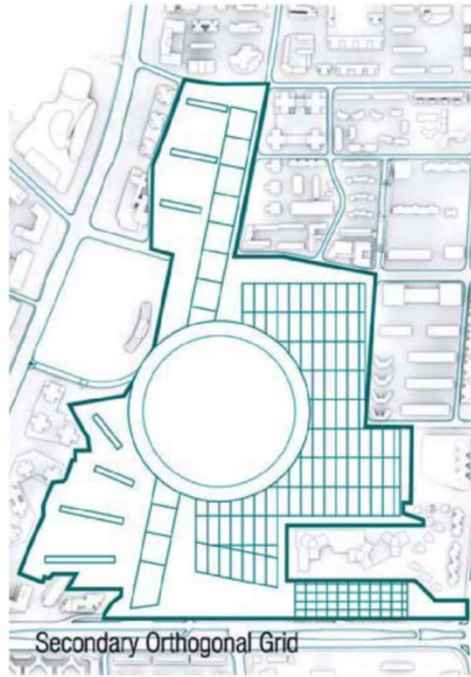
The central core was then enhanc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manifold ground levels. Each layer displaces the urban datum to weave in programs and create urban settings. A concaved surface, inspired by an inverted Nanshan Mountain, carves the massing to accentuate the core and to give the impression of openness within. Furthermore, an interlaced grid system blends the current orthogonal urban fabric to a historic diagonal aqueduct axis. Existing urban nodes and plazas modify the rigidity of the grids to reinforce urban links.

Written by Jaeger and Partner Architects



Site Plan





DQZ Culture Center Daqiuzhuang, China

HAO / holm Architecture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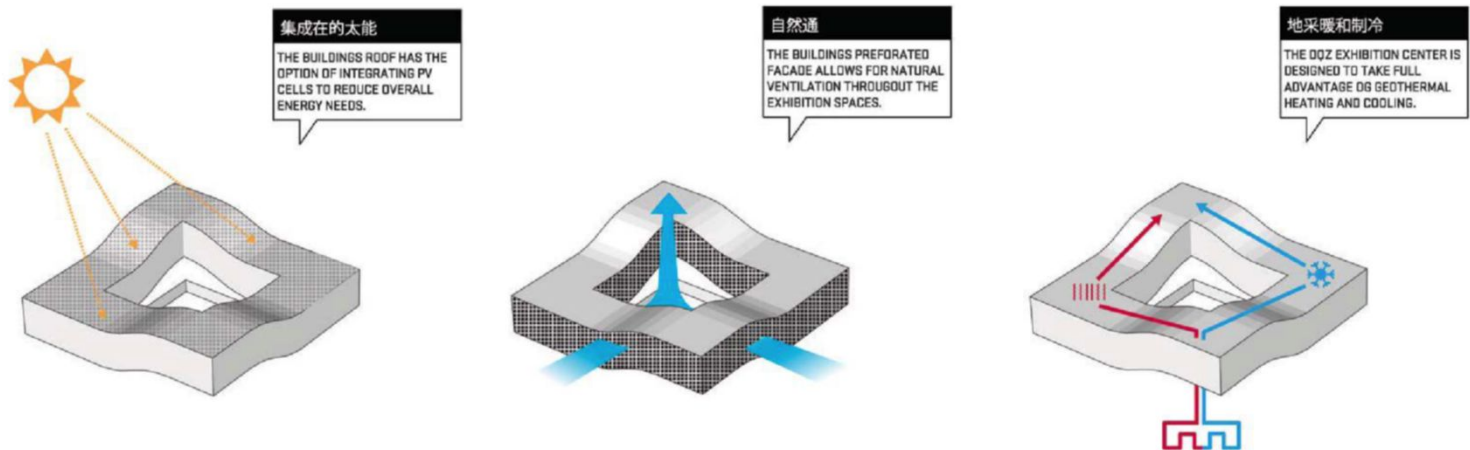


Diagram 1

Location Daqiu Zhuang, China

Architects HAO / holm Architecture Office

Type Invited Proposal

Size 20,000m² / 200,000 SF Building, 100,000m² Landscape

Program Exhibition, Education, Community Center and Landscape

Collaborators AI, Kragh & Berglund

Status Ongoing

DQZ 문화 센터

새로운 DQZ 빌딩은 전통적인 중국식 안마당 형태를 본 따 지었다. 우각부 모서리들의 사각형을 들어 올려 2중 출입구를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방문객들과 지역 주민들이 1층에 있는 공공 프로그램들과 중간 층과 윗층에 있는 전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였으며, 도시 기존의 북부 - 남부 축을 확장하였다. 빌딩에 안마당을 만들어 무성한 체리 나무들과 테라스를 보호하였으며, 이 안마당은 야외 연극 행사장과 페스티벌 행사장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빌딩은 중앙 전시 공간에서는 유리 전면을 통해 실내 공간과 외부 안마당을 연결하는 안마당을 훤히 바라볼 수 있다.

이 도시 발전의 역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DQZ 빌딩의 정면은 유공 강철판으로 만들었다. 이 유공 철판으로 인해 자연 환기뿐만 아니라 이 빌딩의 간판과 정면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설뿐만 아니라 지붕 일부와 공공 광장 지역의 일부에 태양광 전지를 설치하였다.

The new DQZ C building takes its form from the traditional Chinese courtyard square. By lifting the square in the diagonal corners, dual entry points to the building are created which leads visitors and locals through the building's ground level public programs to the mid - and upper - level exhibition spaces while extending the existing North - South axis of the surrounding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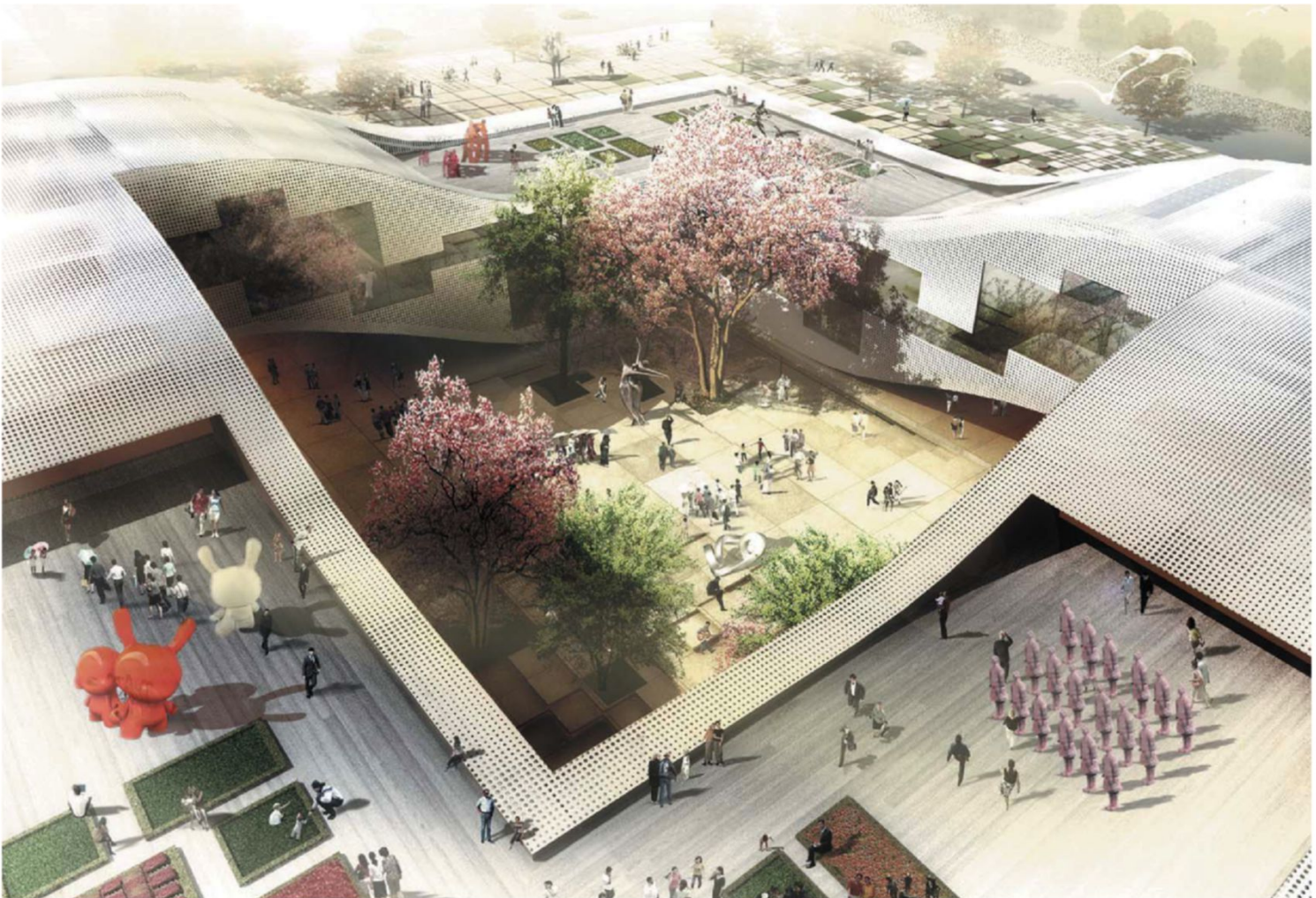
The inner courtyard of the building creates a protected lush landscape with cherry trees and terraces, which can be used as an outdoor venue for local theater and festival events. The central exhibition space of the building opens up visually through glass facades to the courtyard connecting the interior spaces with the exterior courtyard.

Celebrating the history of the city's growth, the DQZ building's facade is made of perforated steel plates. This allows for natural ventilation as well as the integration of the building's signage into the facade itself. The building is designed to integrate geo - thermal heating for heating and cooling as well the integration of PV cells in parts of the roof and in areas of the public plaza.

Written by HAO / holm Architecture Office



Site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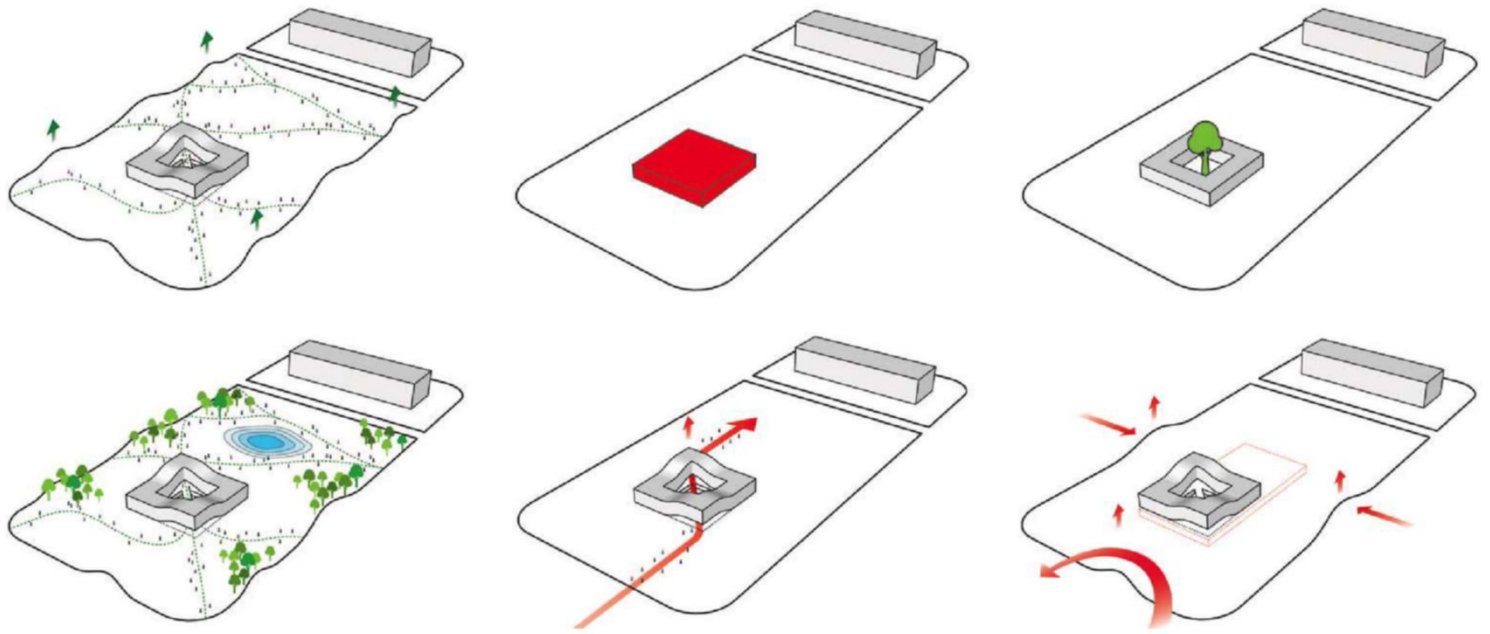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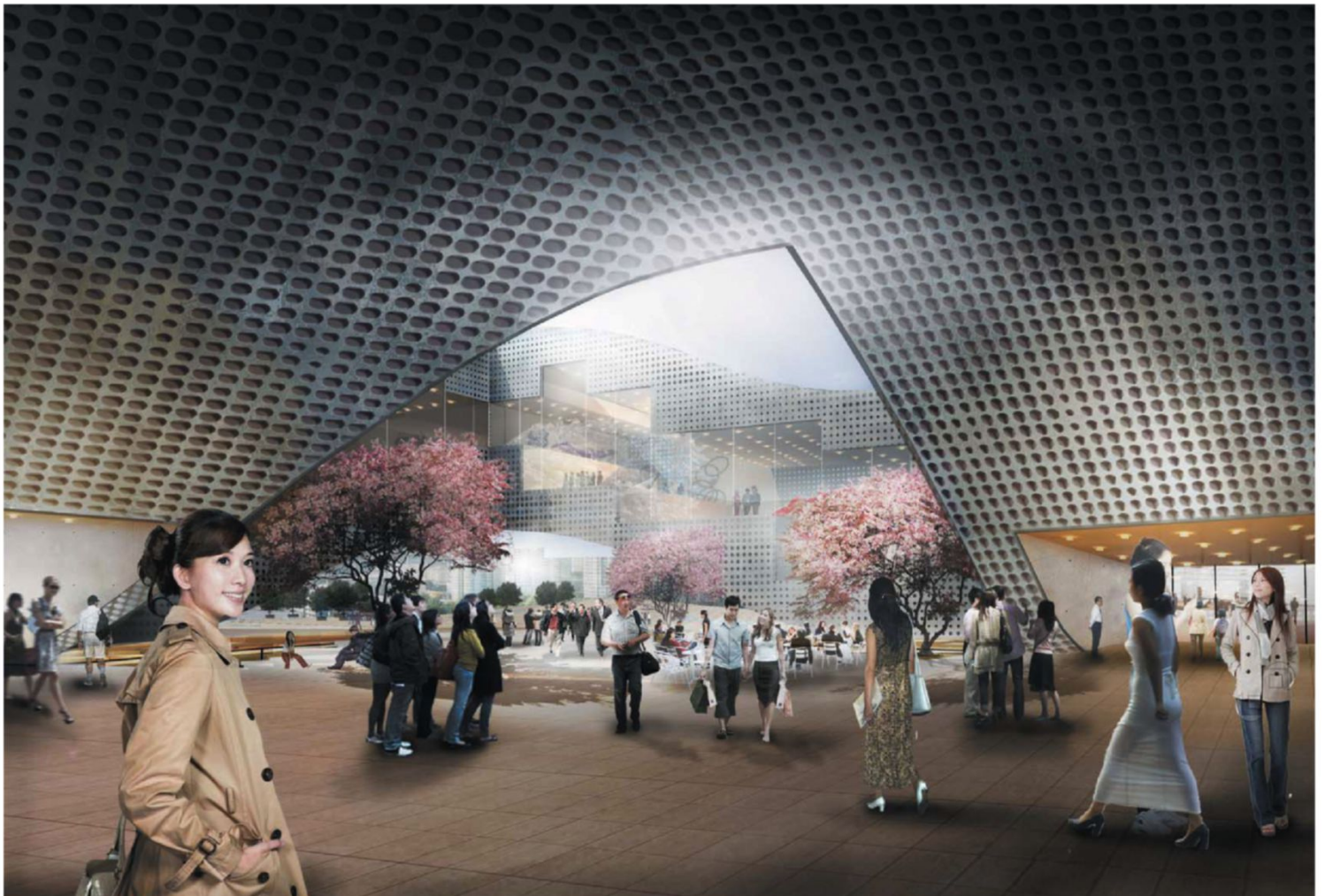


Diagram 2



Zaha Hadid Architects

Creative Design Pursuit Architect Zaha - Hadid

독창적 디자인을 추구한 건축가 자하 하디드

Zaha - Hadid, founding partner of Zaha Hadid Architects, was awarded the Pritzker Architecture Prize in 2004 and is internationally known for both her theoretical and academic work. Each of her dynamic and innovative projects builds on over thirty years of revolutionary experimentation and research in the interrelated fields of urbanism, architecture and design. Having first received international recognition through her striking images and designs, Zaha - Hadid is now widely known as an innovative architect who constantly tests the boundaries of architecture and design. In addition to the Pritzker Prize, her work has received numerous awards from the world's most prestigious institutions, including the Mies van der Rohe Foundation of European Architecture ;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 the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 the Royal Academy of Arts ;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 The Austrian Commissions for Science & Art and Columbia and Yale Univers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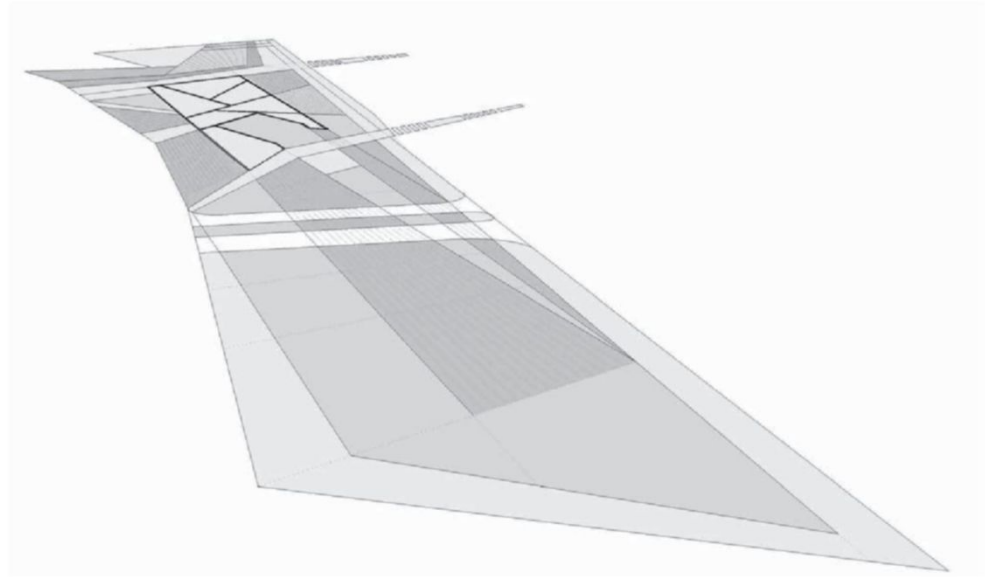
자하 하디드 건축사무소의 창립 파트너인 자하 하디드는 2004년 프리츠커 건축상을 수상했고, 그녀의 이론 및 학술적인 성과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녀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각각의 프로젝트는 도시 설계, 건축 및 디자인의 상호 연관된 영역에서 30년 넘게 갈고 닦은 혁명적인 실험과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처음 인상적인 이미지와 디자인으로 전 세계적 인정을 받았던 자하 하디드는 이제 건축과 디자인의 경계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혁신적인 건축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프리츠커 상 이외에도 그녀의 작품은 유럽 건축의 미스 반 데 로에 재단을 포함하여 미국 건축가 협회, 영국 건축 학회, 영국 왕립 미술원, 올림픽위원회, 오스트리아 예술과학 위원회, 컬럼비아 대학 및 예일 대학 등 전 세계의 가장 권위 있는 기관들로부터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Zaha - Had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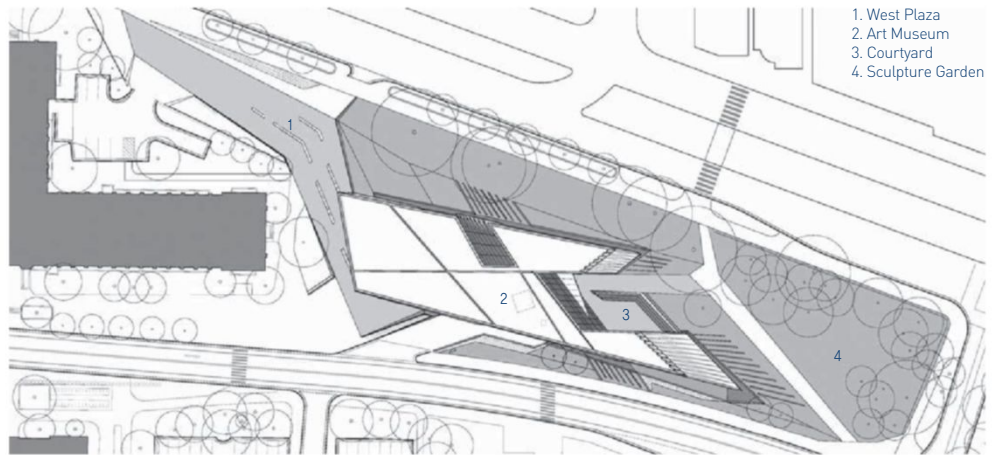
Eli & Edythe Broad Art Museum USA



Location East Lansing, USA
Site Area 65,000m²
Bldg. Area 46,000m²
Gross Floor Area 39,000m²
Foot print Area 19,000m²
Material Steel, Concrete, Pleated Stainless Steel, Glass Exterior
Architect Zaha Hadid Architects
Project Director Raig Kiner
Project Architect Alberto Barba
Project Team Michael Hargens · Edgar Payan Pacheco · Sophia Razzaque · Arturo Revilla · Charles Walker
Client Michigan State University
Photo by Iwan Baan · Paul Warchol



Site Plan Diagram



Site Plan

〈없음〉엘리 & 에디스 브로드 미술관

미술관은 미시간 주립대학교 캠퍼스 북쪽 끝에 있다. 동쪽 랜싱 간선 도로와 캠퍼스 주 진입로를 따라 그랜드 리버 애비뉴의 동서 방향으로 나있는 순환 도로가 또 다른 연결도로 역할을 하면서 도시와 캠퍼스간에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 이어져 있다. 주변 풍경, 지형 및 부지 주변에 대한 이러한 세부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주요한 연결 도로들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연결 도로들을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미술관은 독특한 미시간 주립 대학교 지형에 잘 어울리게 되면서도 대학교의 주위 환경들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브로드 미술관은 아주 잘 정제된 건축물로서 주변 풍경의 지형적 특성과 순환적 특성들을 반영하여 방향성이 있는 주름을 형성하였다. 외피는 이러한 다양한 방향성과 위치를 모방하여 끊임없이 변형하는 듯한 형태로 공공증을 유발하지만, 그 내용을 전적으로 내비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열린 특성은 박물관의 주요 기능이 커뮤니티의 문화 허브인 것을 강조한다.

The Eli and Edythe Broad Art Museum, located at the northern edge of the Michigan State University campus. The circulation travelling in an east -

westdirection on Grand River Avenue, along the main road of East Lansing and also on the main approach street to the campus produce an additional layer of connections that are applied to this highly frequented interface between city and camp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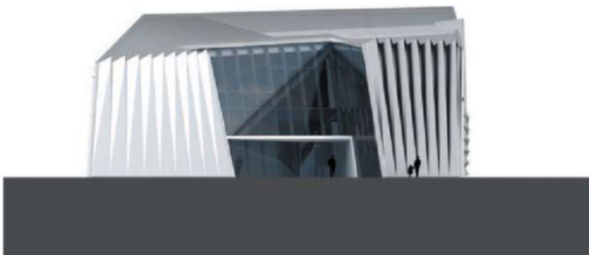
These detailed investigations and research into the landscape, topography and circulation of the site, enable us to ascertain and understand these critical lines of connection. By using these lines to inform the design, the museum is truly embedded within its unique context of Michigan State University, maintaining the strongest relationship with its surroundings. The Broad Art Museum presents as a sharp, directed body, comprising directional pleats which reflect the topographic and circulatory characteristics of its surrounding landscape. Its outer skin echoes these different directions and orientations - giving the building an ever - changing appearance that arouses curiosity yet never quite reveals its content. This open character underlines the museum's function as a cultural hub for the community.



North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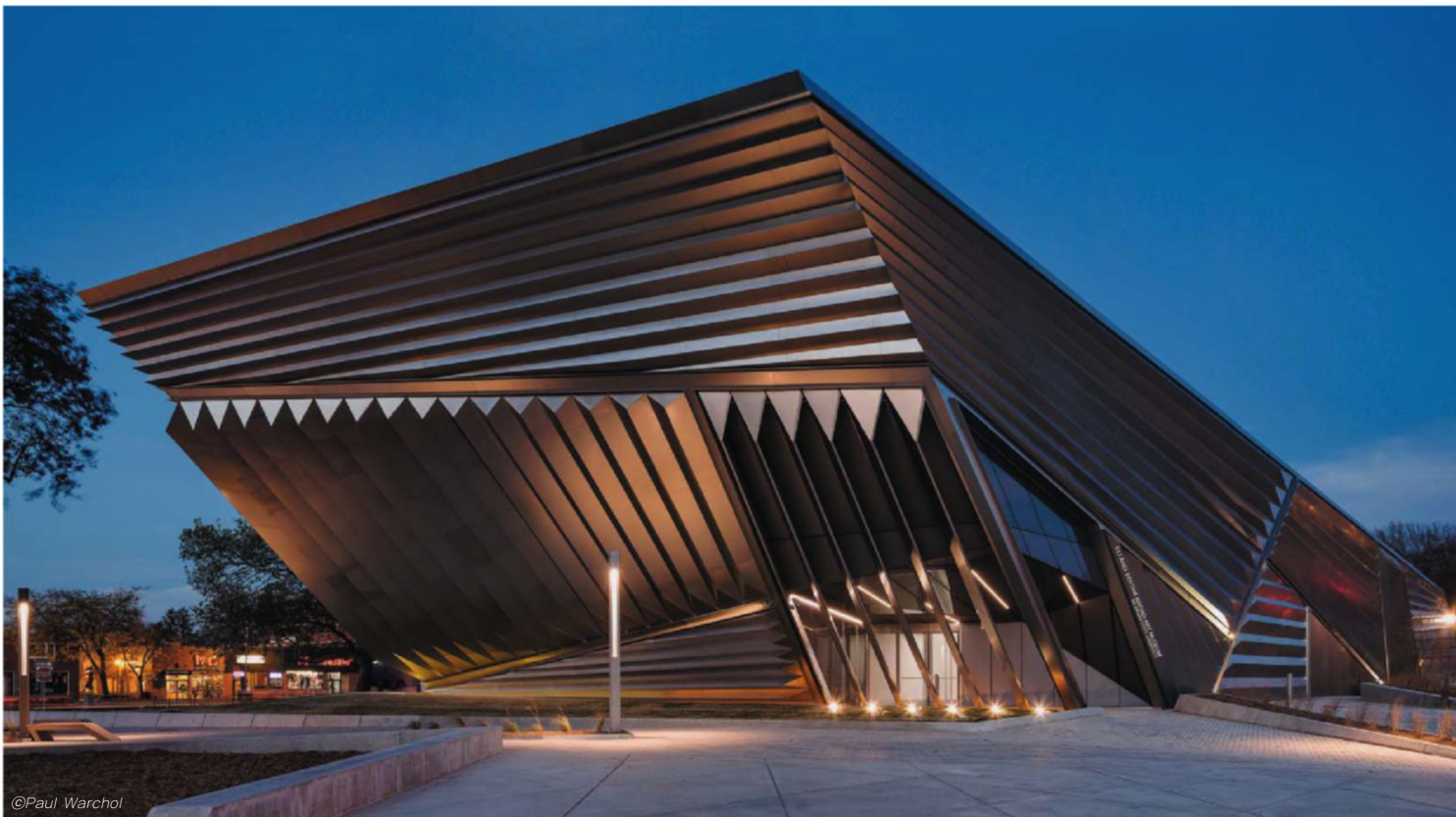
South Elevation



East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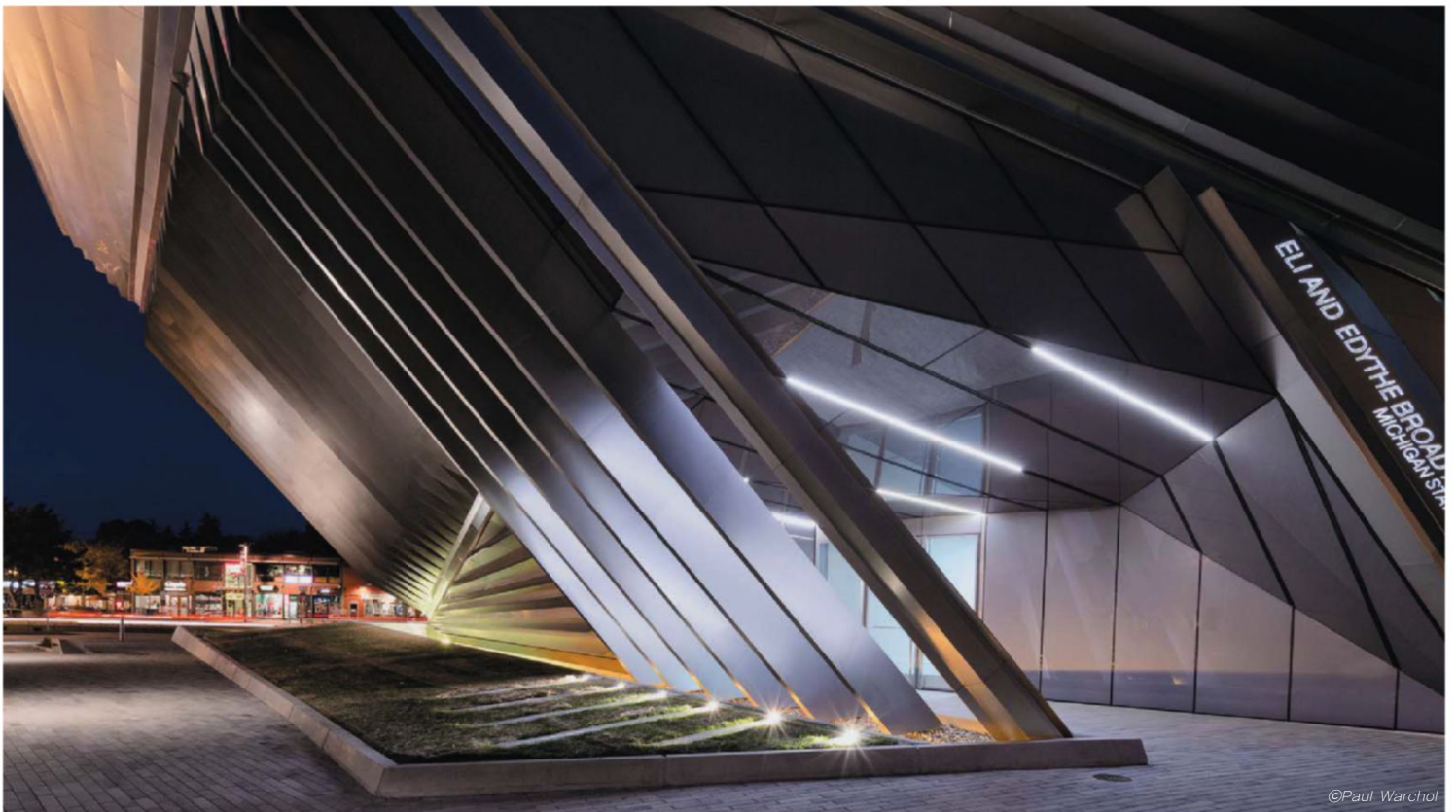
West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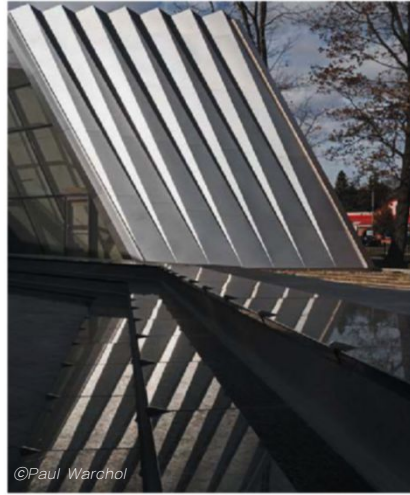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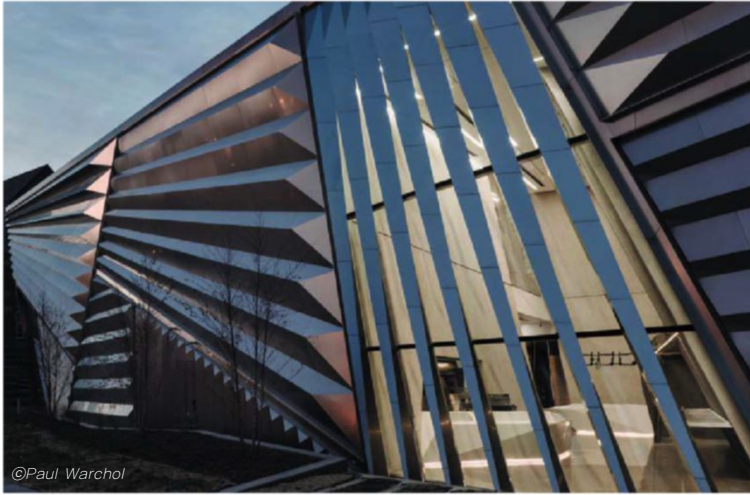
©Paul Warch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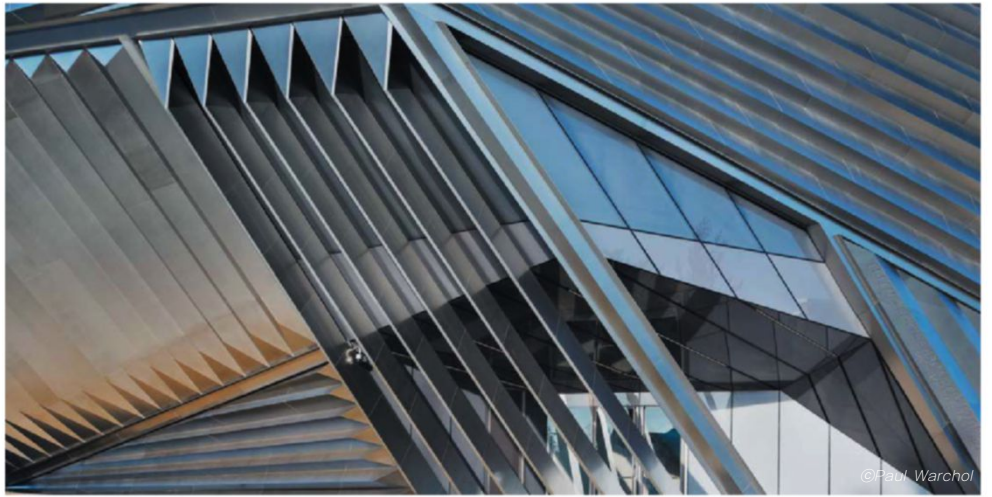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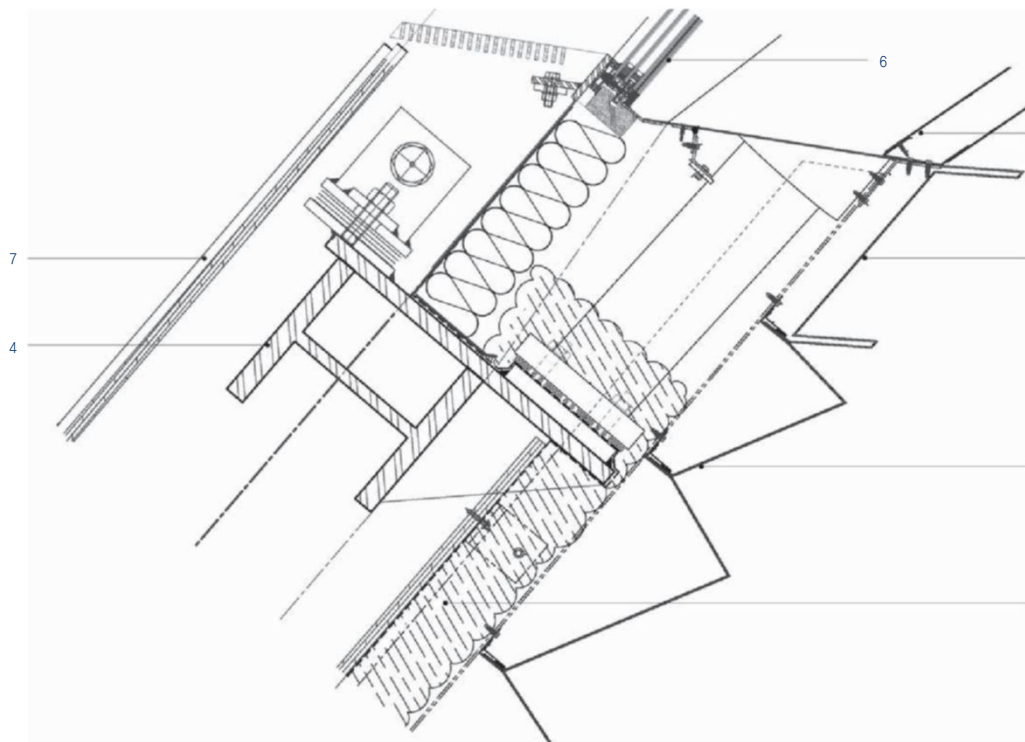
©Paul Warchol



©Paul Warch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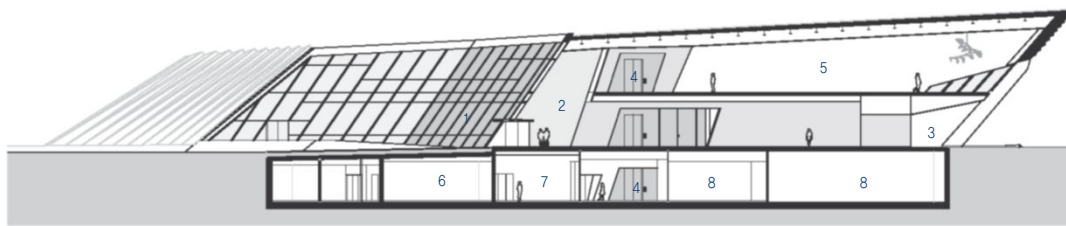
1. S / S "Pleat"
2. S / S "Portal"
3. S / S "Fin" on Chs Section
4. Primary Structure
5. Weather Barrier on Plywood Substrate
6. Glazing System
7. Interior Finish

Opening Sill Det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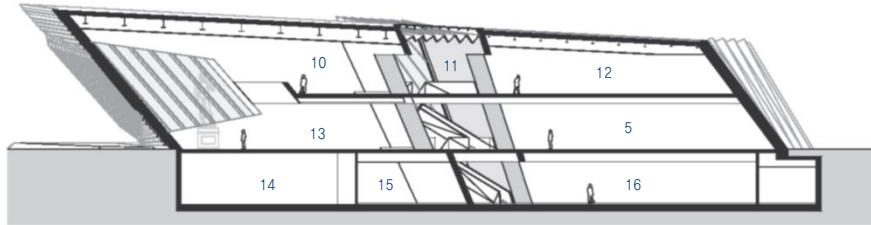


©Paul Warch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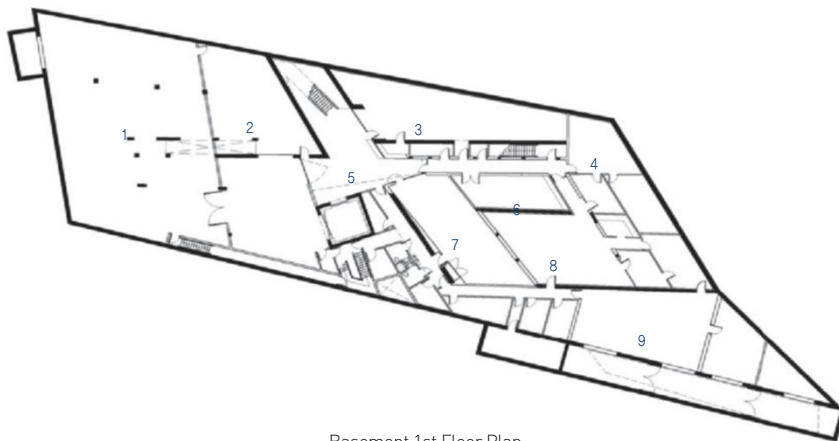


Section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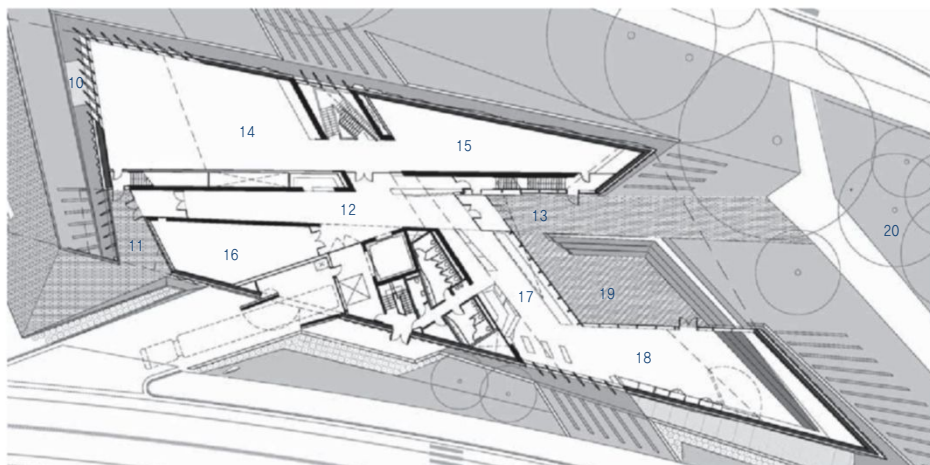
Section 2

1. Courtyard
2. Reception / Lobby
3. West Entrance
4. Two South Gallery
5. One East Gallery
6. Administration Wing
7. New Media Gallery
8. Art Handling
9. Mechanical Room
10. Two West Gallery
11. Lobby
12. Two East Gallery
13. One West Gallery
14. Mechanical Room
15. Art Handling
16. Study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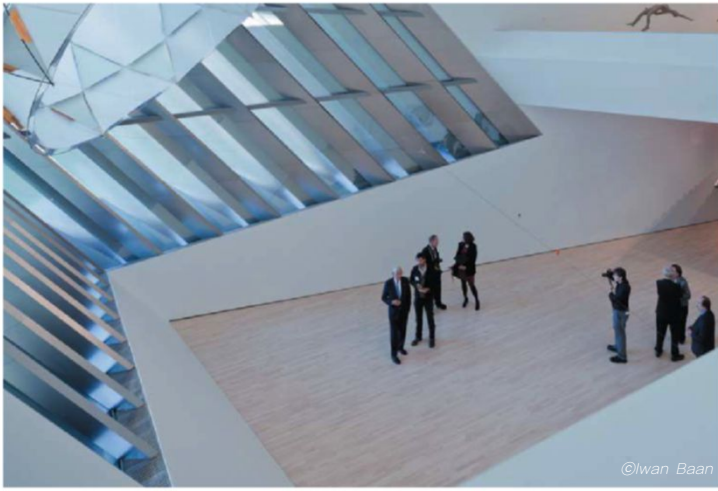


Basement 1st Floor Plan

1. Mechanical Room
2. Art Handling
3. Study Collection
4. Collections Study Center
5. Lobby
6. Benefactors Gallery
7. New Media Gallery
8. Administration Wing
9. Electrical Room
10. West Plaza
11. West Entrance
12. Reception / Lobby
13. East Entrance
14. One West Gallery
15. One East Gallery
16. One South Gallery
17. Cafe / Shop
18. Education Wing
19. Courtyard
20. Sculpture Ga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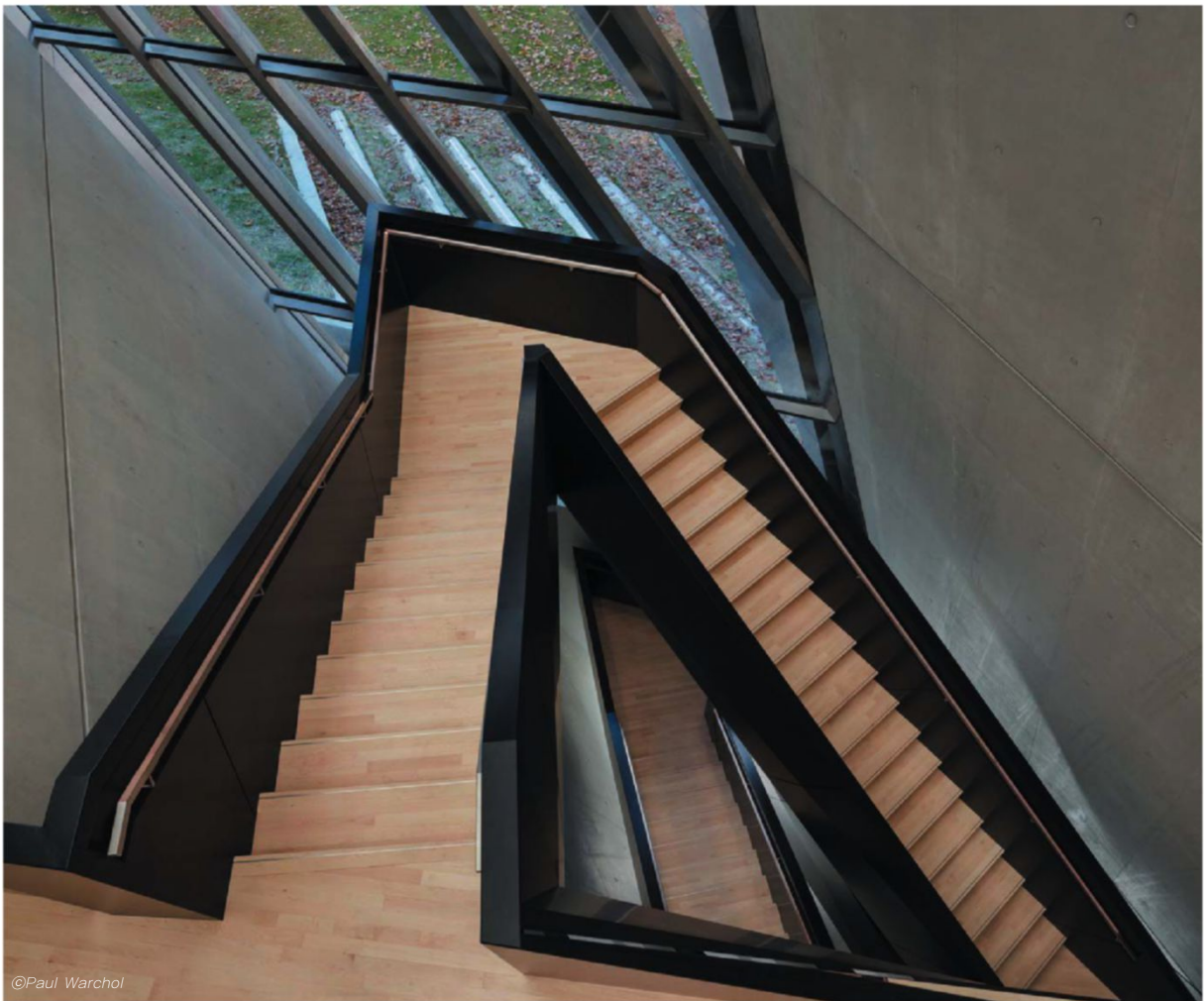


1st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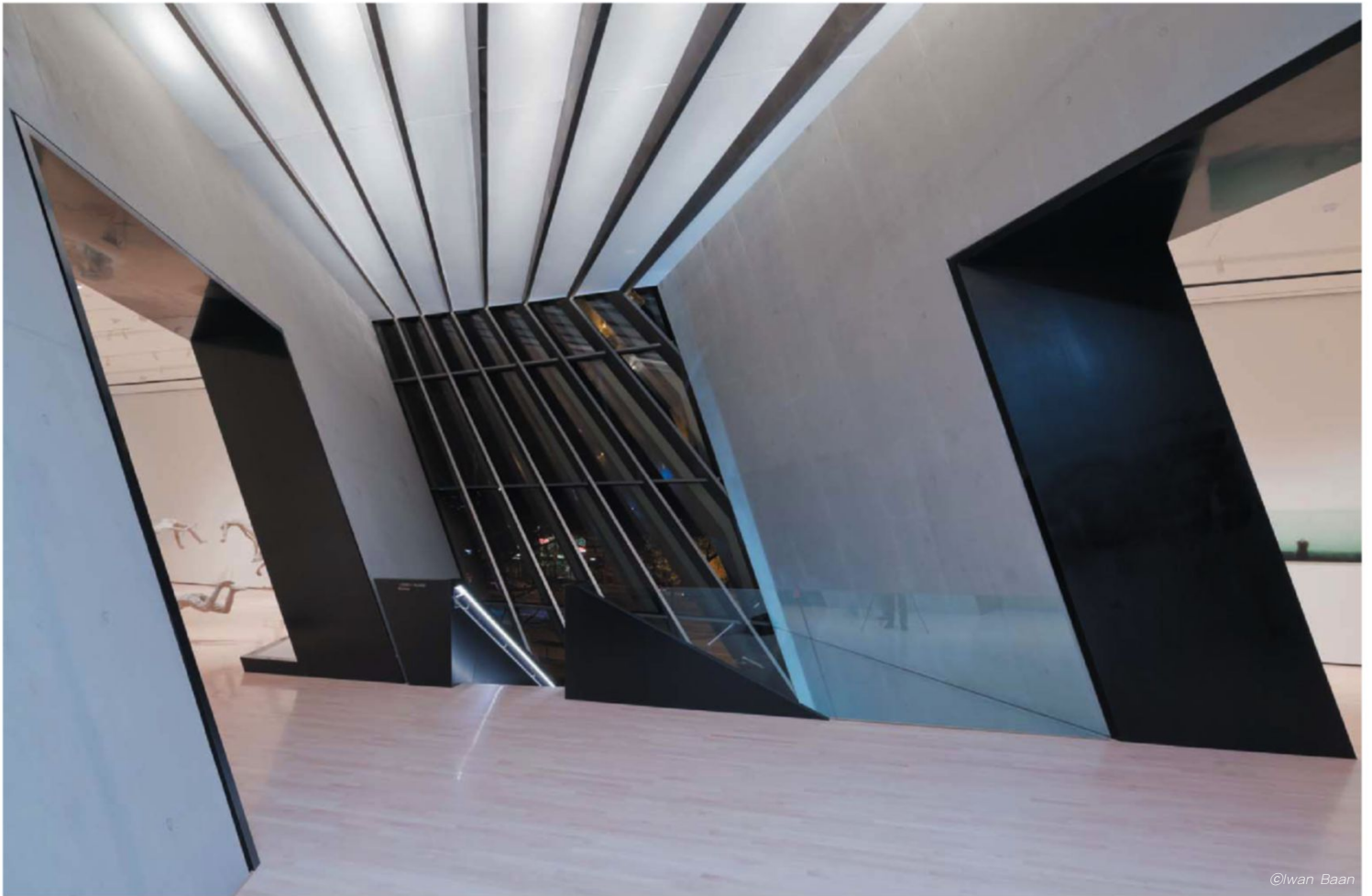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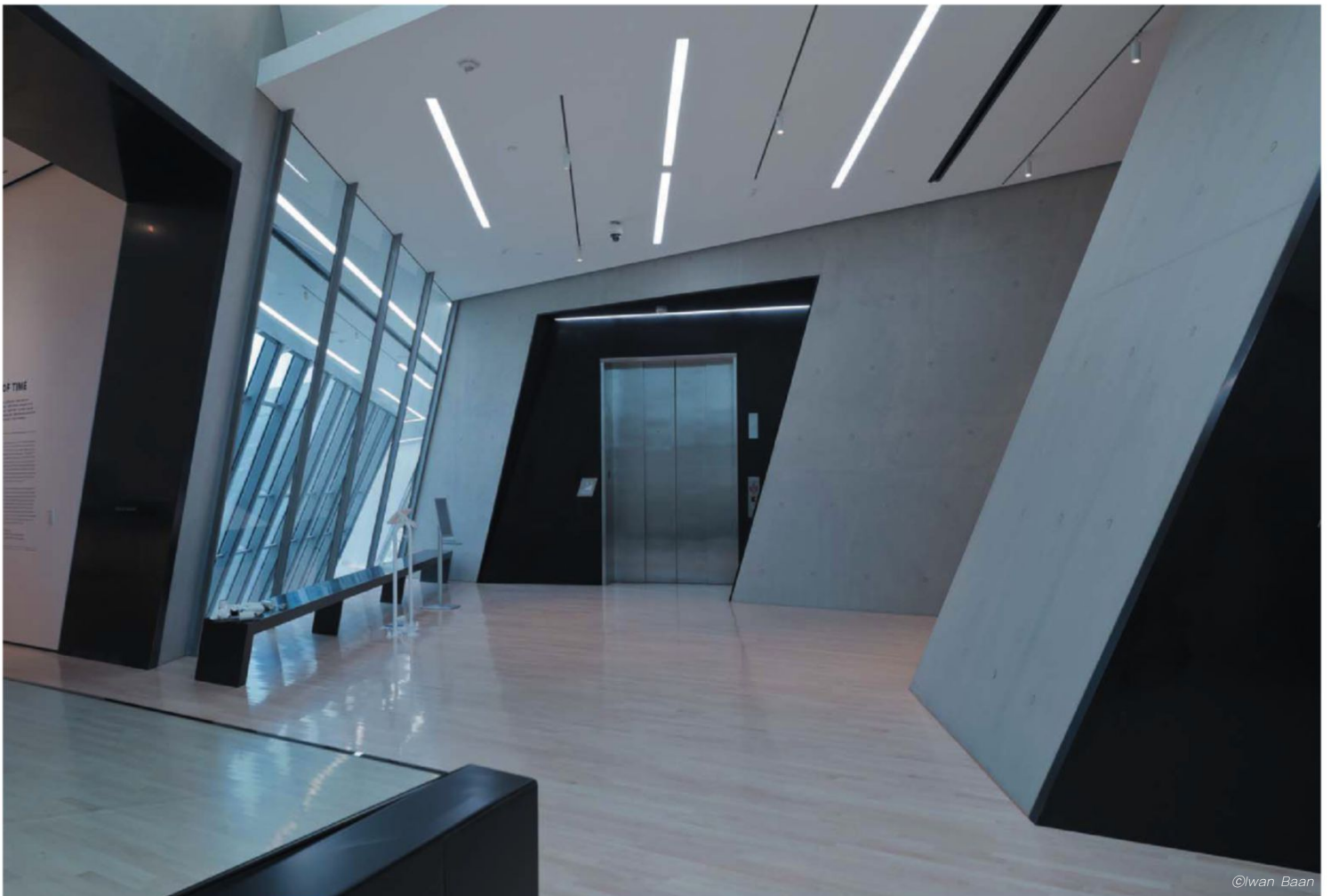
©Iwan Baan



©Paul Warchol



©Iwan Baan



©Iwan Baan

CMA CGM Tower France



Location Marseille, France

Size 94,000m²

Architect Zaha Hadid Architects

Project Director Jim Heverin

Project Architect Stephane Vallotton

Project Team Karim Muallem · Simone Contasta · Leonie

Heinrich · Alvin Triestanto · Muriel Boselli · Eugene Leun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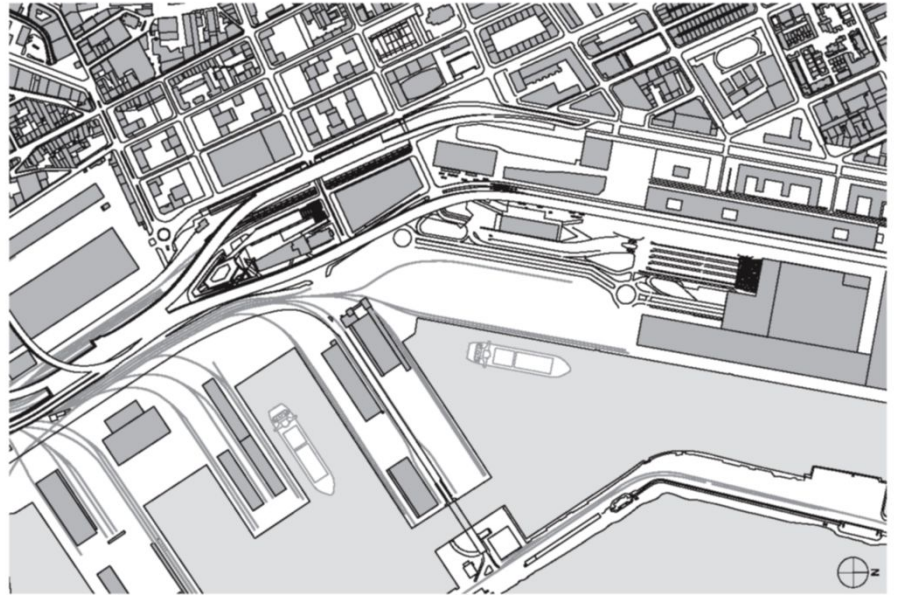
Bhushan Mantri · Jerome Michel · Nerea Feliz · Prashanth

Sridharan · Birgit Eistert · Evelyn Gono · Marian Ripol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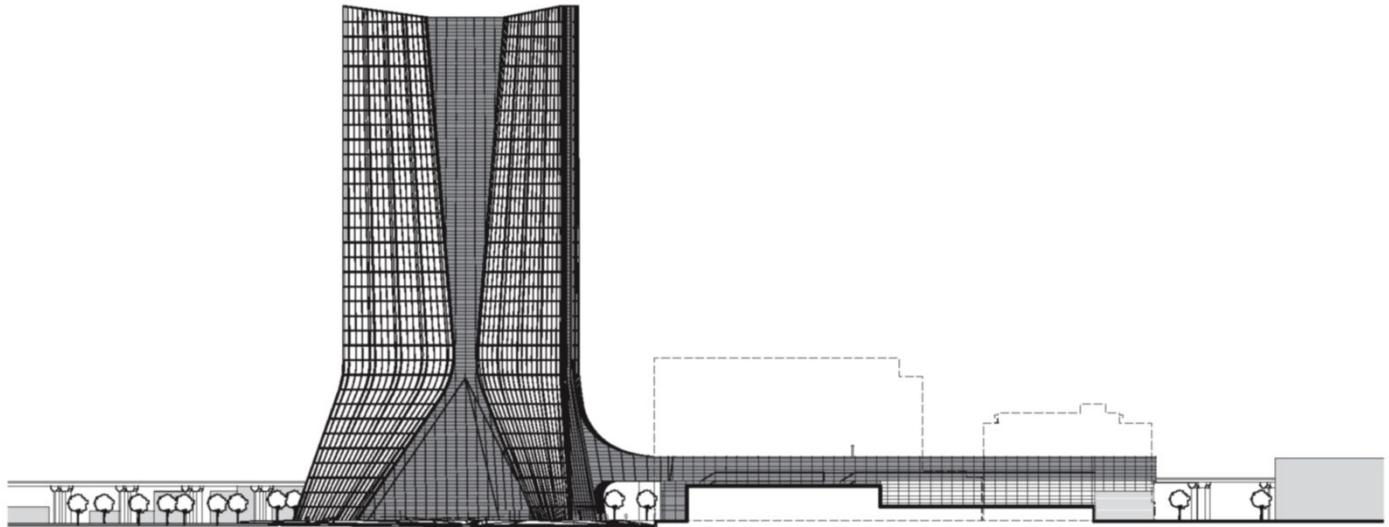
Andres Flores · Pedja Pantovic

Client CMA CGM

Photo by Christian Richters · Iwan Baan



Site Plan



West Elevation

씨엠에이 씨지엠 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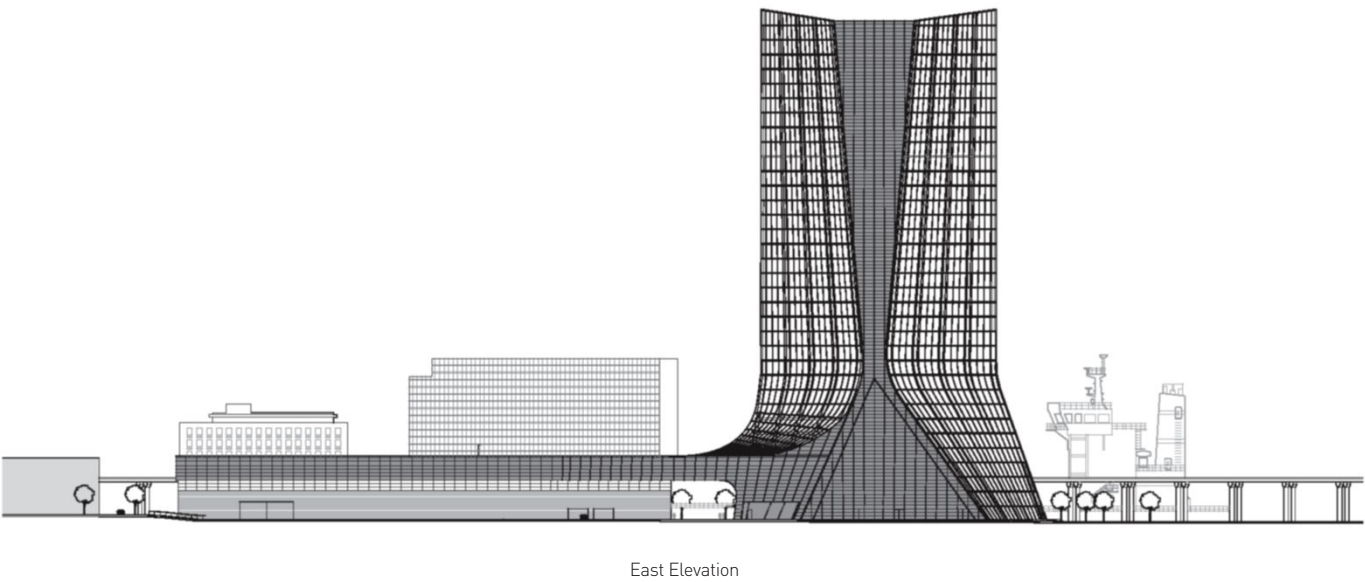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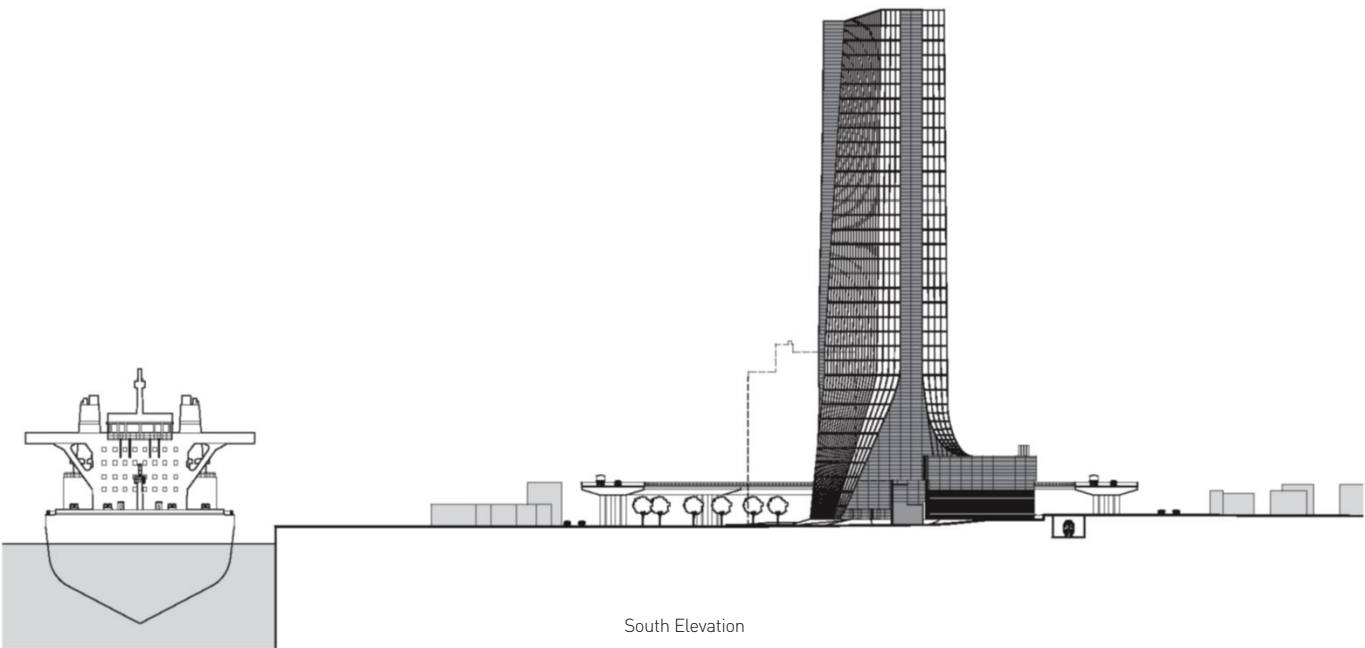
이 타워는 야심찬 도시 재생 프로젝트인 유로메디테라네의 중심에 있으며, 유서깊은 중심지에서 북쪽 1km 지점인 항구 근처에 있다. 다루기 힘들고 길쭉한 형태의 부지를 다루는 설계 전략은 그 부지 전체를 수직적 요소로 세분한 다음 빛과 어둠을 이용해 이 수직적 요소들을 구분 짓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주변에 구조 기둥을 세움으로써 건축학적으로 잘 표현된 별도의 외피인 투명한 유리창을 달아 서로를 상쇄한다. 건축학적으로 외피는 2개의 목적을 지닌다. 먼저, 외피는 햇빛과 비 - 반사 유리창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태양광 스크린 역할을 하며 두 번째로 건물 정면을 모듈형 사무실 인터리어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점차적으로 그리고 부드럽게 한 점으로 모여서 타워 꼭대기 방향으로 휘어져 있는 방식을 통해 지표면에서 위쪽으로 벡터를 발생시킴으로써 건물 전체와 건물 정면에 이동성과 유동성을 부여하였다. 주변의 구조 기둥과 외부 정면 패널들의 명명법은 우아하고 통일성있는 타워를 창조하기 위해 이 매개체들을 따랐다.

The tower stands at the centre of the city's ambitious regeneration project,

Euromediterranee, located 1km north of the historic centre, adjacent to the commercial port.

The design strategy to deal with an awkward, elongated site was to breakdown the volume of the facade into vertical segments and differentiate them using light and dark glazing. These are then offset to one another with the clear glazing set forward as a separate skin which is articulated architecturally by incorporating the peripheral structural columns. Architecturally, the external skin has a dual purpose. Firstly it is to act as a solar screen enabling the use of light and non reflective glazing and secondly to free the facade from the constraints of a modular office interior. Movement and fluidity is introduced into the volumes and facades by generating vectors from the ground surface up which gradually and gently converge towards each other and then bend apart towards the top of the tower. The peripheral structural columns and the nomenclature of the external facade panels follow these vectors to create an elegant and coherent t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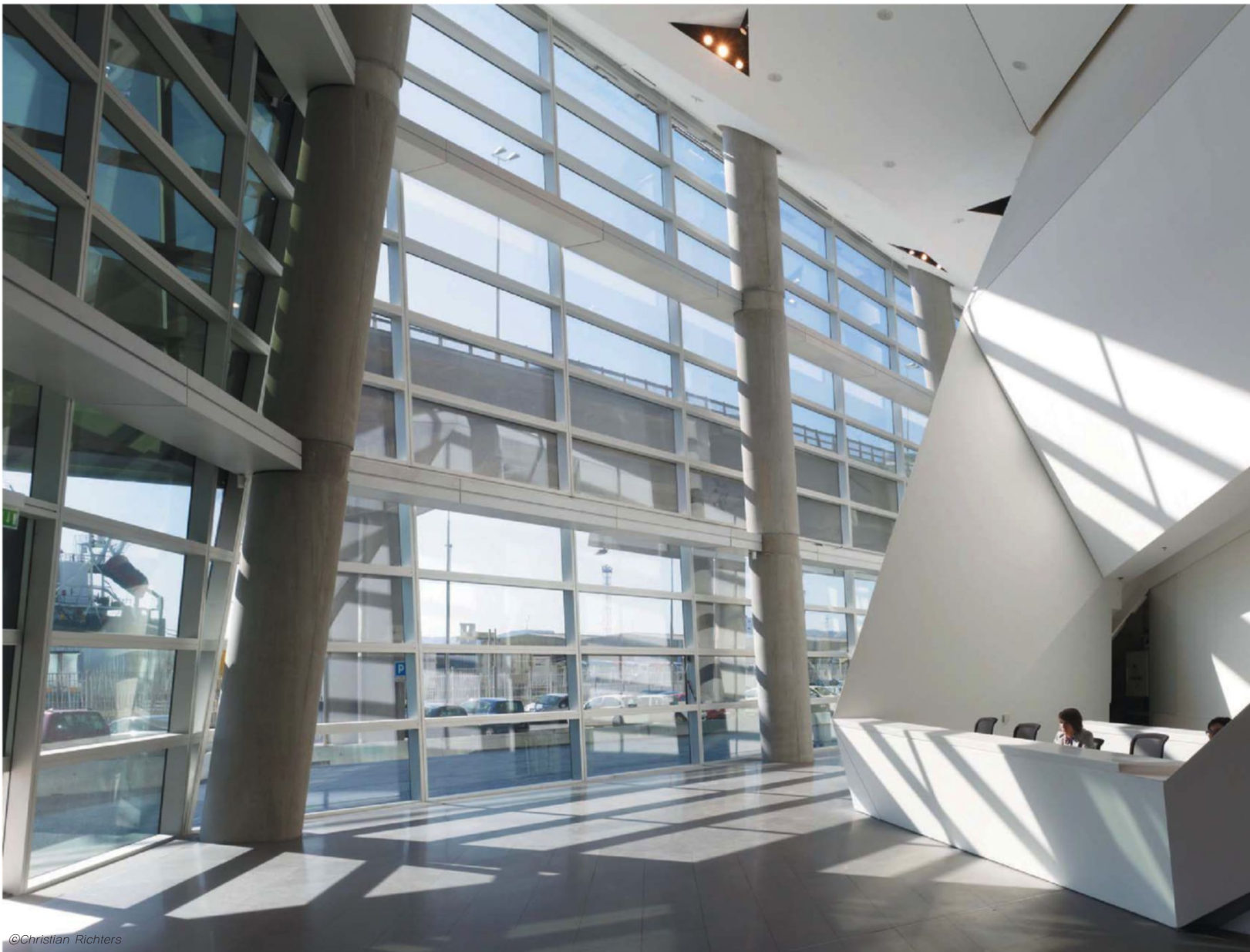




©Christian Rich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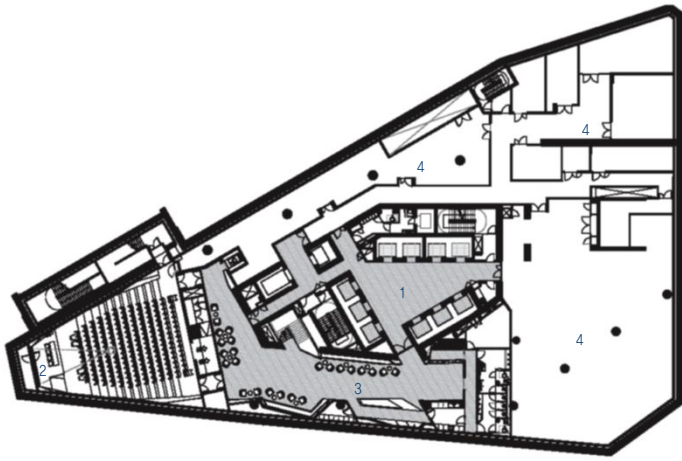


©Iwan Ba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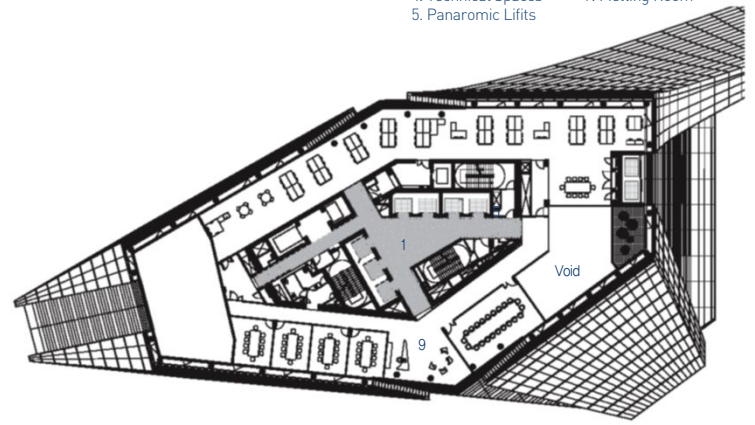


©Christian Richters

- 1. Lift Lobby
- 2. Auditorium
- 3. Foyer
- 4. Technical Spaces
- 5. Panoramic Lifts
- 6. Training & Teaching
- 7. Gym
- 8. Link Bridge
- 9. Meeting Room



Basement 1st Floor Plan



30th Floor Plan





©Hutton and Crow



Location Beijing, China

Program Mixed - Use Commercial Building(Office & Retail)

Plot Area 46,965 m²

Total Floor Area 332,857 m²

Above Ground 4 Towers 15 Floors(12 Office Floors and 3 Retail Floors)

Max Height 67m

Below Ground B1 Floor Retail and B2 & B3 Parking(1275 cars), MEP Retail Floors B1F, 1F, 2F, 3F(90,000 m²)

Materials Exterior 3mm Aluminium Exterior, Cladding, Insulated, Glass, Stone

Materials Interiors Glass, Terrazzo, GRG, Tile, Stainless Steel, Gypsum, Board Painted

Structure Concrete Construction(8.4m spans)

Floor to Floor Heights Retail floors 5.4m, Office floors 3.5m

Landscape Stone, Glass, Stainless, Steel

Exterior Furniture Stone, FRP

LEED Rating Silver

Architect Zaha Hadid Architects

Project Director, Associate Satoshi Ohashi

Associate Cristiano Ceccato

Project Architect Yoshi Uchiyama

Project Team Kelly Lee · Rita Lee · Eugene Leung · Lillie Liu · Rolando Rodriguez - Lea · Seung - ho Yeo / (DD Phase) Dorian Bybee · Michael Grau · Shu Hashimoto · Shao - Wei Huang · Chikara Inamura · Lydia Kim · Christoph Klemmt · Yasuko Kobayashi · Raymond Lau · Wang Lin · Yereem Park · Tao Wen Stephan Wurster / (SDPhase) Samer Chamoun · Michael Hill · Tom Wuenschmann · Shuojiong Zhang

Client SOHO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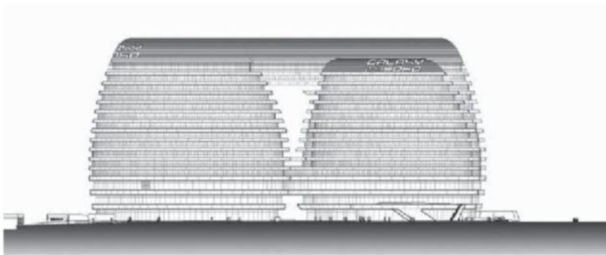
Photo by Hufton and Crow · Iwan Ba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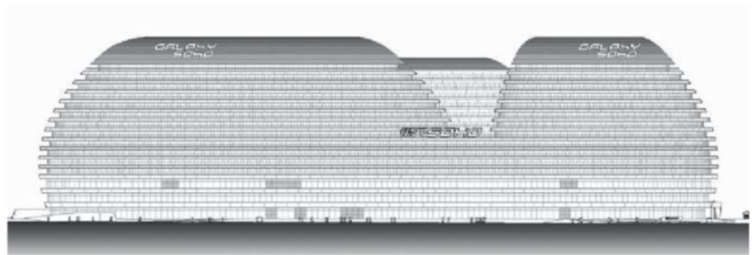
Site & 1st Floor Plan



©Hutton and Crow



North Elevation



East Elevation



©Hutton and Crow



Basement 1st Floor Plan

갤럭시 소호

소호 차이나가 베이징 중심가에 건축한 갤럭시 소호 프로젝트는 광대한 크기의 베이징에서 영감을 받아 330,000m² 크기로 지어진 사무실, 소매점 그리고 오락 시설을 갖춘 복합 건물로 도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 건축물은 따로 떨어진 4개의 건물이 연결 다리들로 연속적으로 서로 융합하거나 연결되어 있다. 이 건물들은 사방으로 서로 연결되어 모서리가 없으며, 갑작스레 방향이 바뀌어 형식적 구도의 유동성을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건축물이다. 전통적인 중국 건축물을 반영해 이 프로젝트에 웅장한 안마당을 배치함으로써 연속적인 개방 공간이라는 내부 세계를 창조하였다. 여기에서 건축물은 더 이상 벽돌의 조합이 아니라 공간들이 합쳐진 곳으로 각 건물 간 연속적인 상호 적응과 유동적 움직임이 결합된 세계를 창조하였다. 고원들을 설계에 반영하여 서로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몰입과 포위라는 심오한 느낌을 갖게 하였다. 사용자들이 건물 내부로 들어갈수록, 그들은 연속적인 선형 곡선으로 이루어져 동일하고 일관적인 형식 논리를 따르는 친근한 공간들을 발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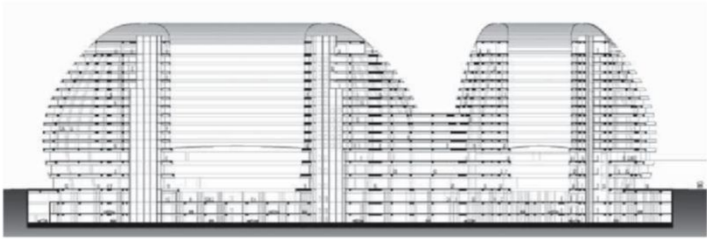
The Galaxy SOHO project in central Beijing for SOHO China is a 330,000m² office, retail and entertainment complex that will become an integral part of the living city, inspired by the grand scale of Beijing. Its architecture is a composition of four continuous, flowing volumes that are set apart, fused or linked by stretched bridges. These volumes adapt to each other in all directions, generating a panoramic architecture without corners or abrupt transitions that break the fluidity of its formal composition.

The great interior courts of the project are a reflection of traditional Chinese architecture where courtyards create an internal world of continuous open spaces. Here, the architecture is no longer composed of rigid blocks, but instead comprised of volumes which coalesce to create a world of continuous mutual adaptation and fluid movement between each building. Shifting plateaus within the design impact upon each other to generate a deep sense of immersion and envelopment. As users enter deeper into the building, they discover intimate spaces that follow the same coherent formal logic of continuous curvilinea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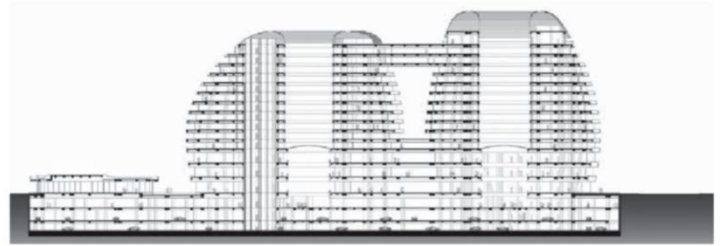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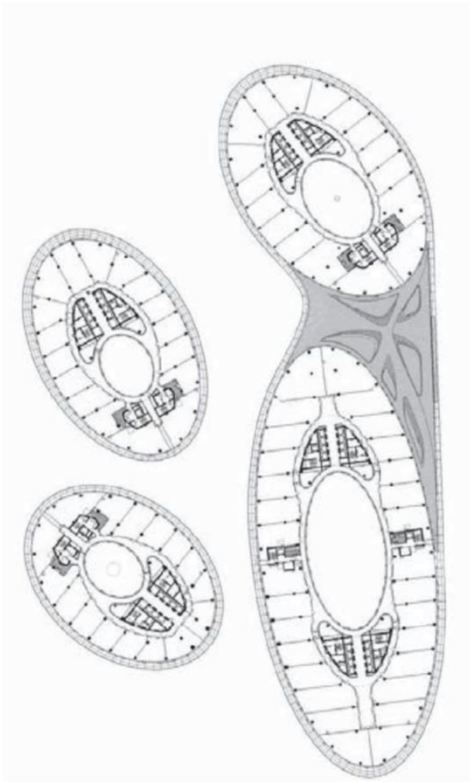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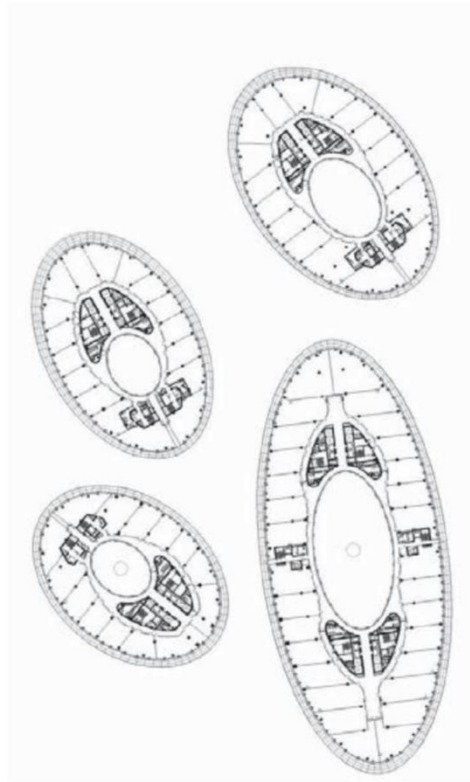
Section 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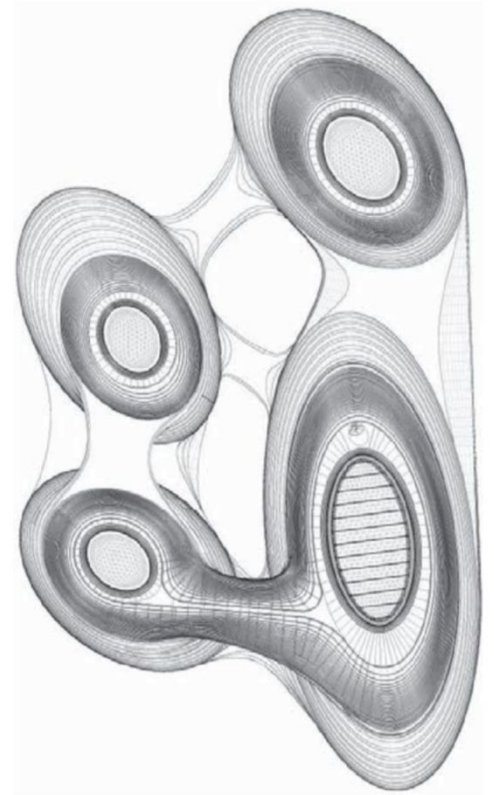
Section BB



8th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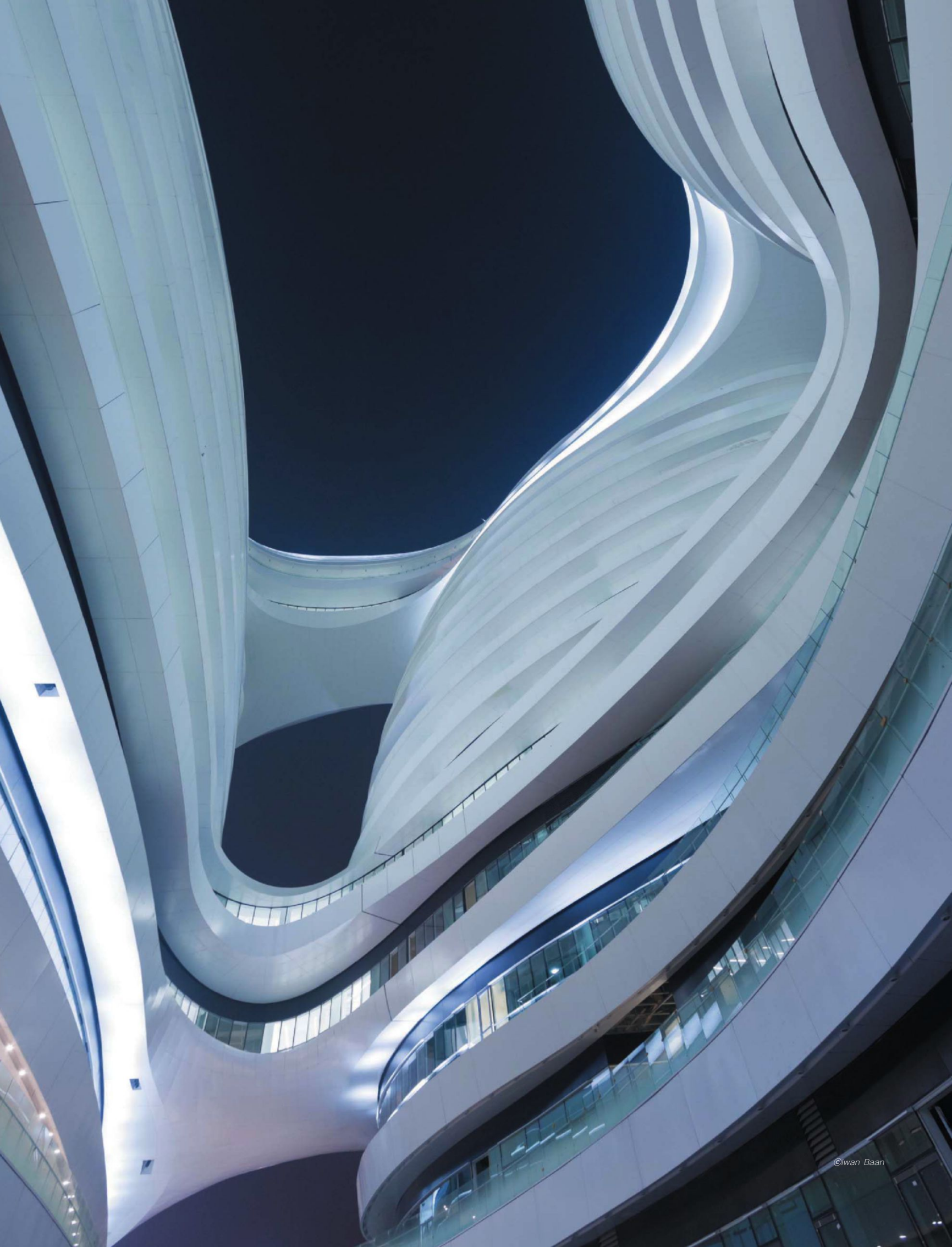


9th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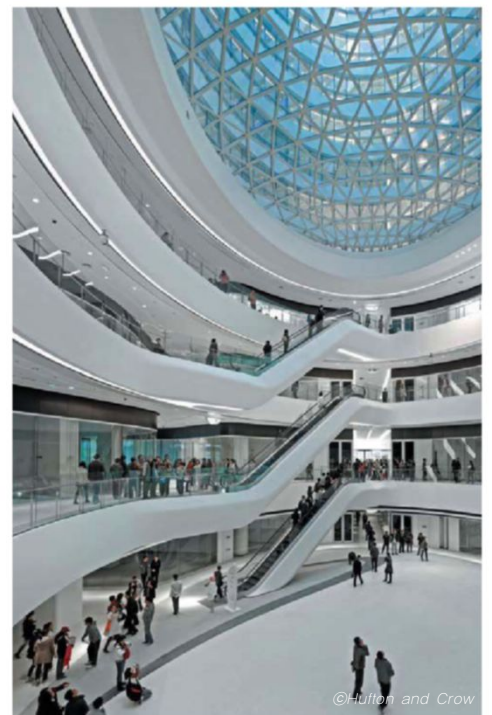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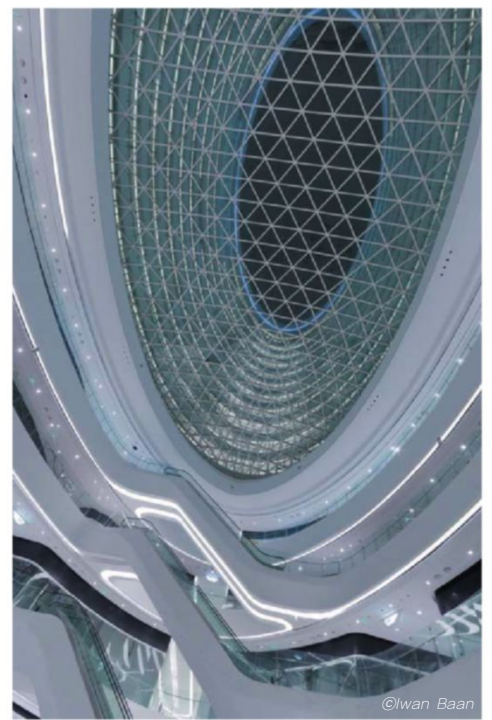
Rooftop Floor Plan







©Iwan Baan





Location Montpellier, France

Size 35,000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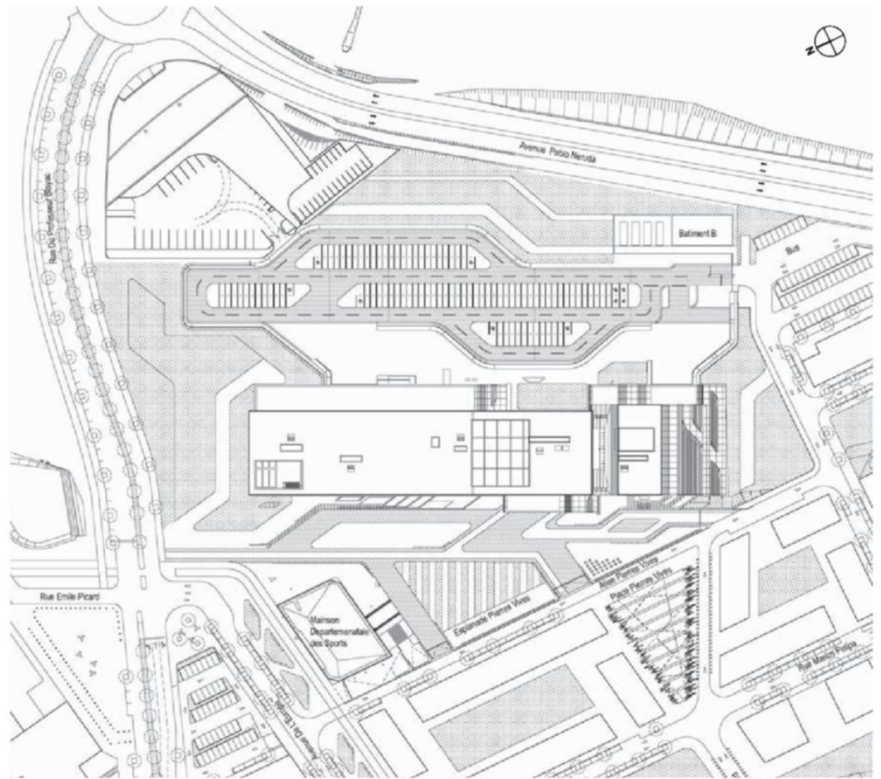
Architects Zaha Hadid

Project Architect Stephane H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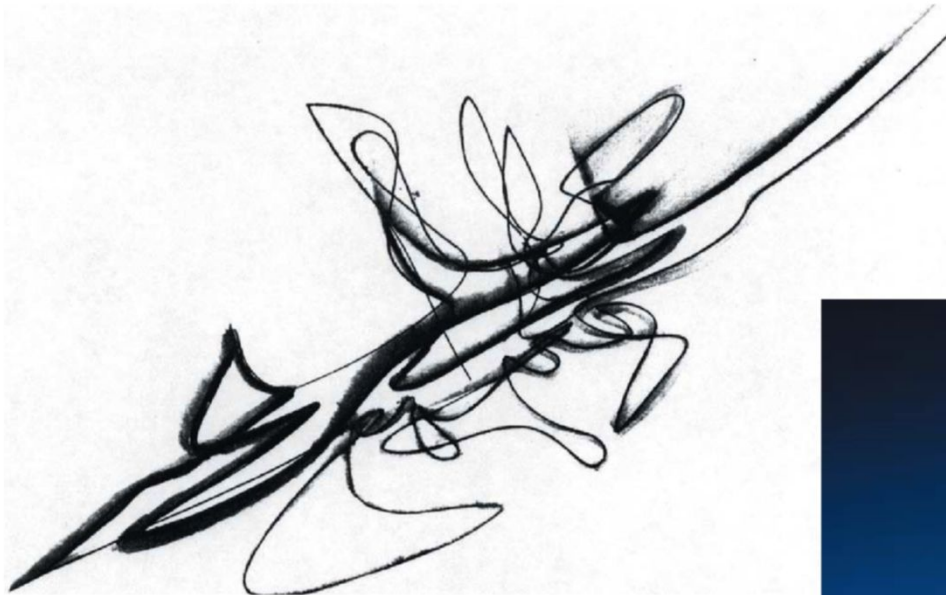
Project Team Joris Pauwels · Philipp Vogt · Rafael Portillo · Jaime Serra · Renata Dantas · Melissa Fukumoto · Jens Borstelman · Thomas Vietzke · Patrik Schumacher · Kane Yanegawa · Loreto Flores · Edgar Payan · Lisamarie Villegas Ambia · Karouko Ogawa · Stella Nikolakaki · Hon Kong Chee · Caroline Andersen · Judith Reitz · Olivier Ottevaere · Achim Gergen · Daniel Baerlecken · Yosuke Hayano · Martin Henn · Rafael Schmidt · Daniel Gospodinov · Kia Larsdotter · Jasmina Malanovic · Ahmad Sukkar · Ghita Skall · Elena Perez · Andrea B. Caste · Lisa Cholmondeley · Douglas Chew · Larissa Henke · Steven Hatzellis · Jesse Chima · Adriano De Gioannis · Simon Kim · Stephane Carnuccini · Samer Chamoun · Ram Ahronov · Ross Langdon · Ivan Valdez · Yacira Blanco · Marta Rodriguez · Leonardo Garcia · Sevil Yazici · Hussam Chakouf · Marie · Perrine Placais · Monica Noguero · Naomi Fritz · Stephanie Chaltiel

Client Departement de l'Herau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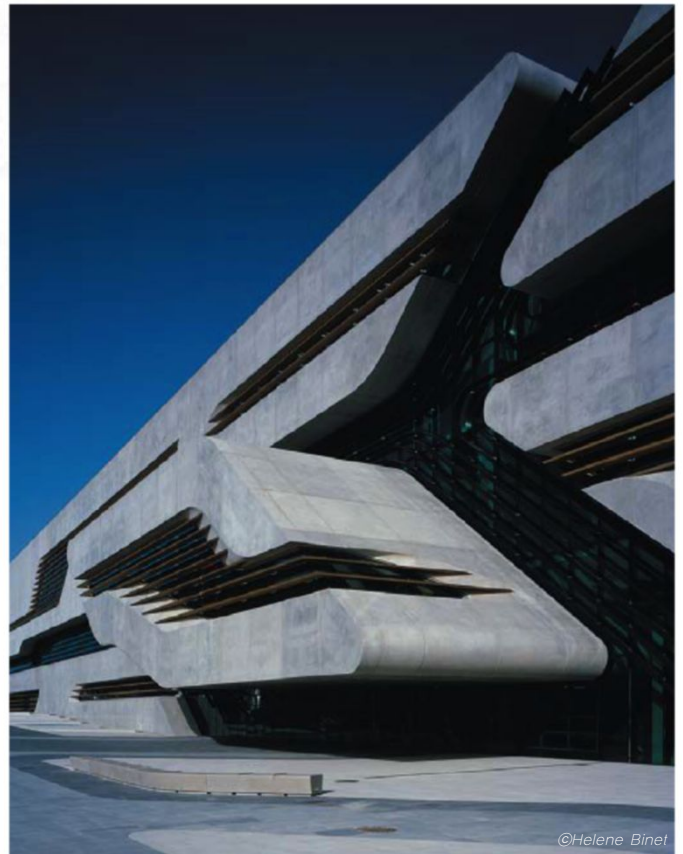
Photo by Helene Binet · Iwan Ba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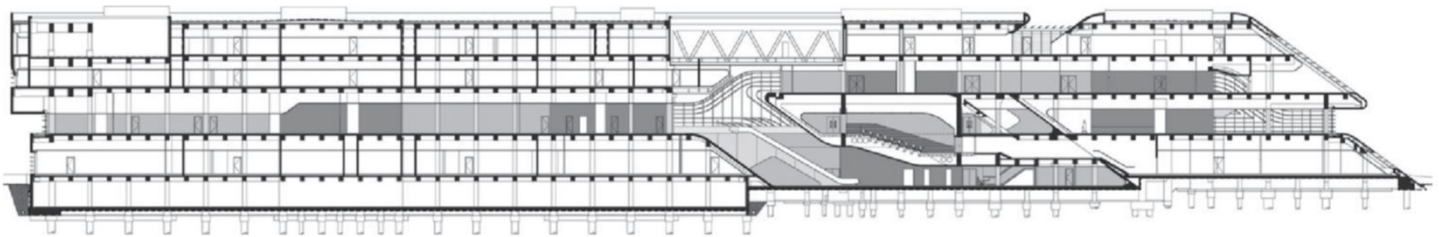
Site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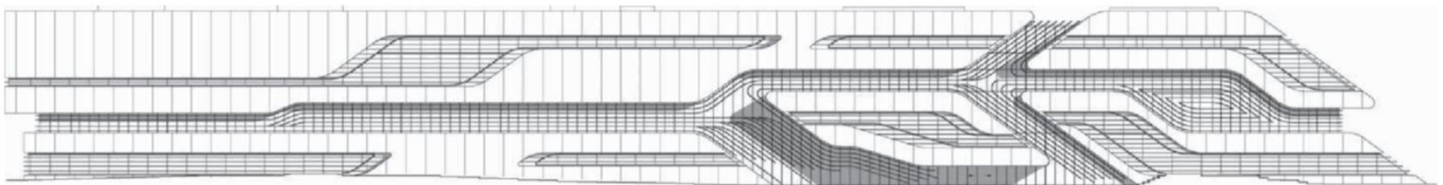
Ske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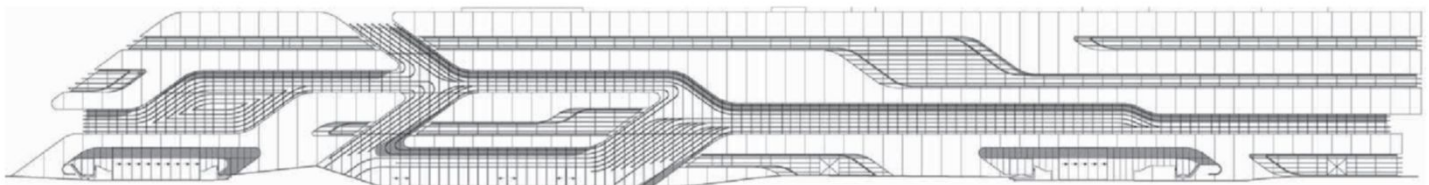
©Helene Bi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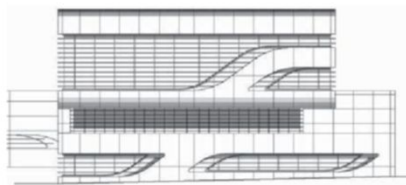
Longitudinal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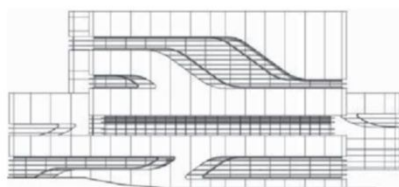
West Elevation



East Elevation



South Elevation



North Elevation

피에르 비베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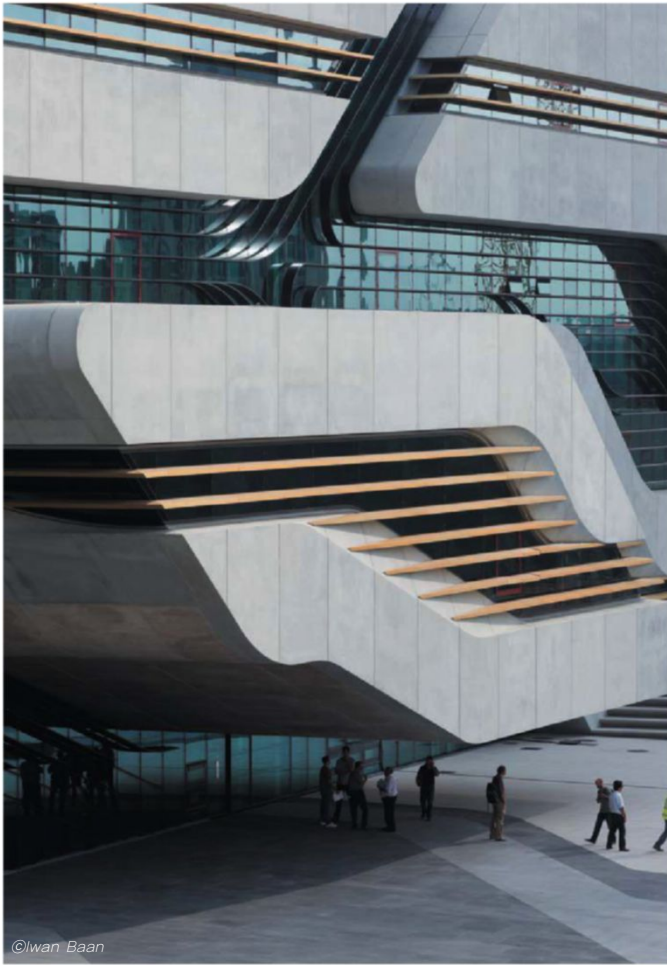
에로 지방 정부를 위한 피에르 비베스 건물은 3개의 조직(기록 보관소, 도서관, 스포츠 부분)이 한 건물 내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멀리서도 하나의 웅장한 단일 정체성을 갖는 건물이 되도록 한다.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건물은 기능적이면서도 경제적 논리성을 기반으로 하여 설계되었다. 최종 설계는 수평으로 누워 있는 커다란 나무 등걸을 연상시킨다. 기록 보관소는 단단한 나무 줄기 밑 부분에 있고 그 뒤로 아주 조금 더 구멍이 많은 도서관과 스포츠 부분이 있으며 나무 줄기가 갈라지는 곳 반대 쪽에 조명이 밝은 사무실을 배치해 훨씬 더 밝아졌다. 이 '가지들'은 나무 줄기에서 수직적으로 튀어나와 다양한 조직들에 접근하는 지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The pierresvives building for the department de l'Herault is the unification of three institutions - the archive, the library and the sports department - within a single envel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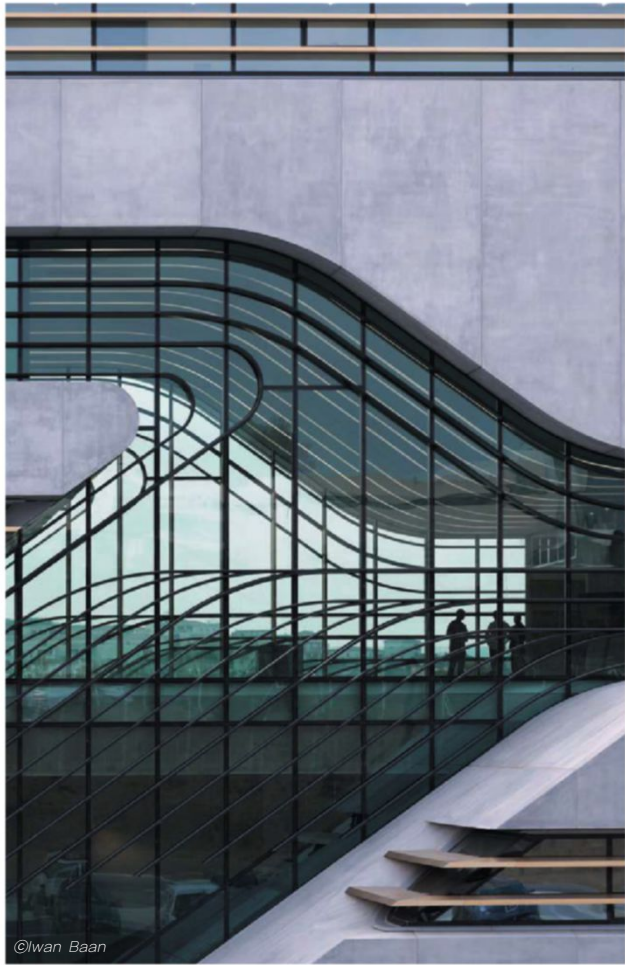
These various parts combine to create a building with a strong single identity when viewed at a distance, but as one moves closer, the division into three parts becomes apparent. The building has been developed using functional and economic logic : the resultant design reminiscent of a large tree-trunk that has been laid horizontally.

The archive is located at the solid base of the trunk, followed by the slightly more porous library with the sports department and its well-lit offices on far end where the trunk bifurcates and becomes much lighter.

'Branches' project vertically off the main trunk to articulate points of access to the various institu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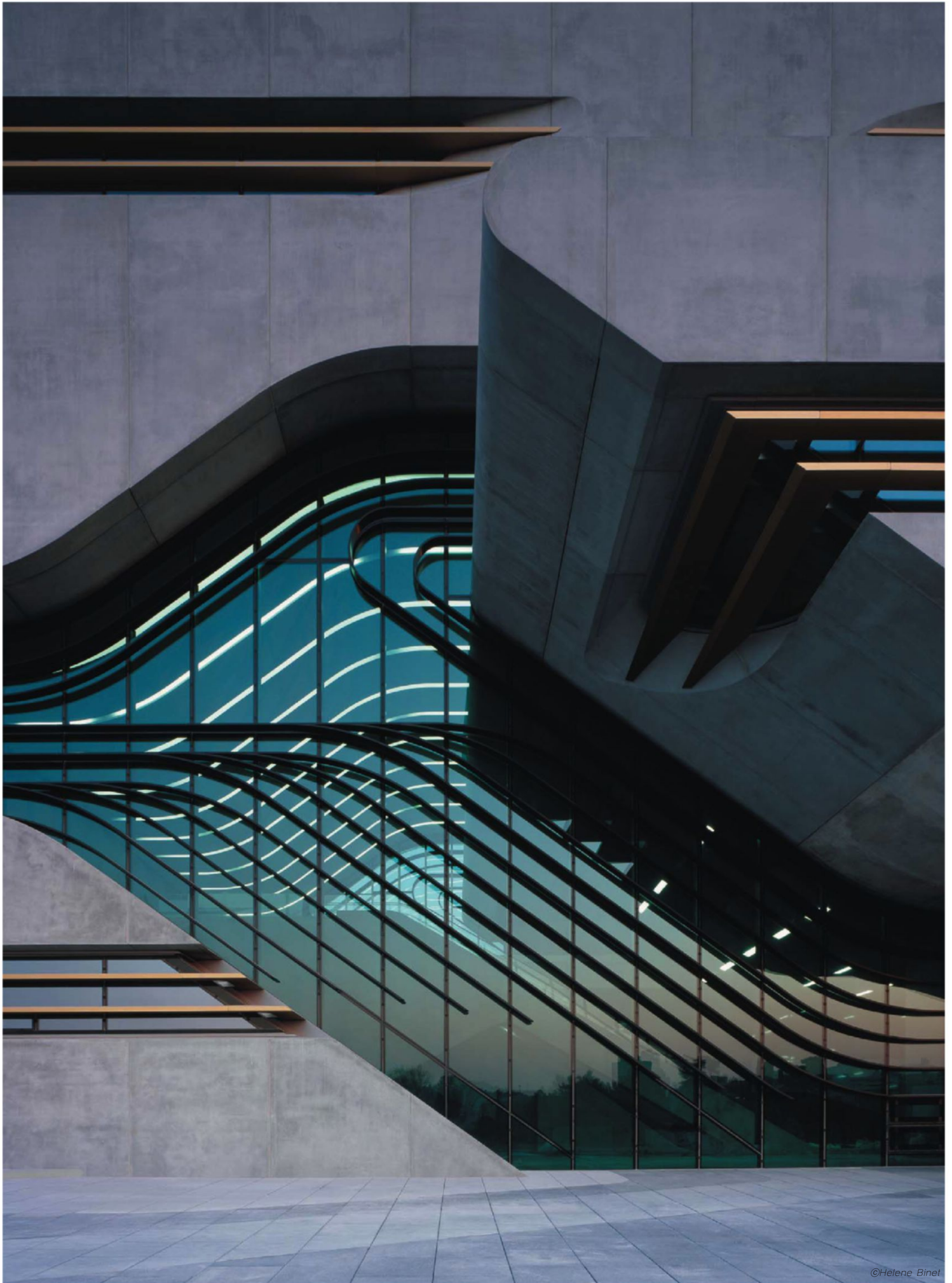
©Iwan Ba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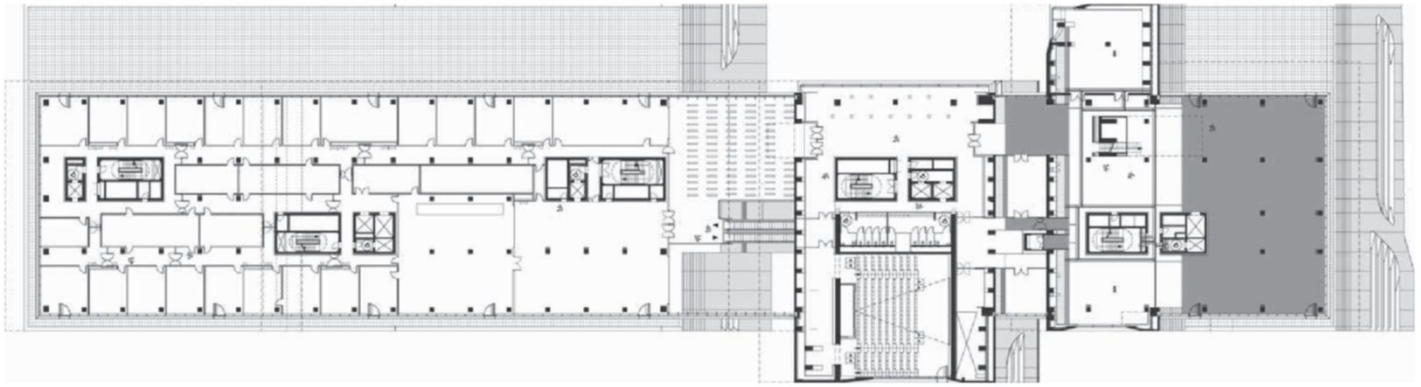
©Iwan Ba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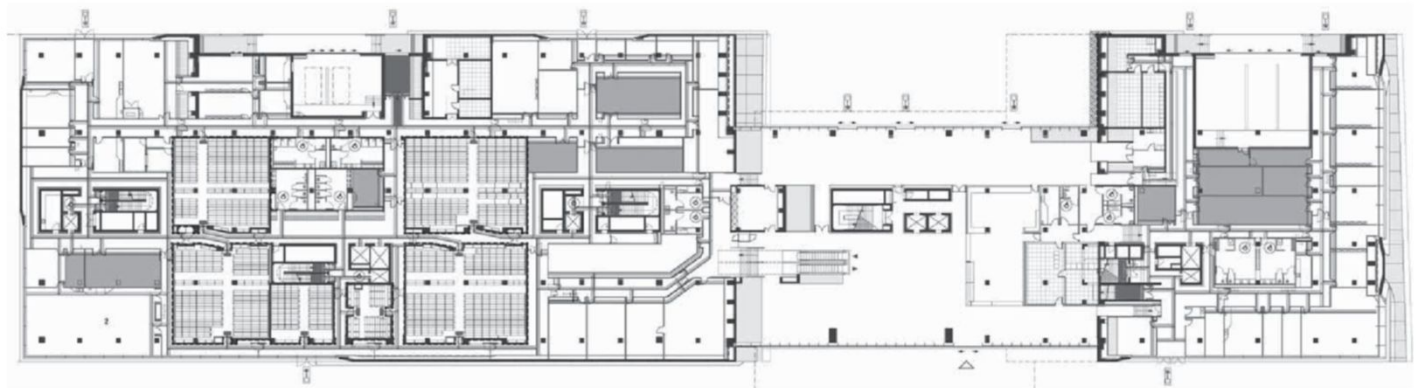
©Helene Binet



©Helene Binet



1st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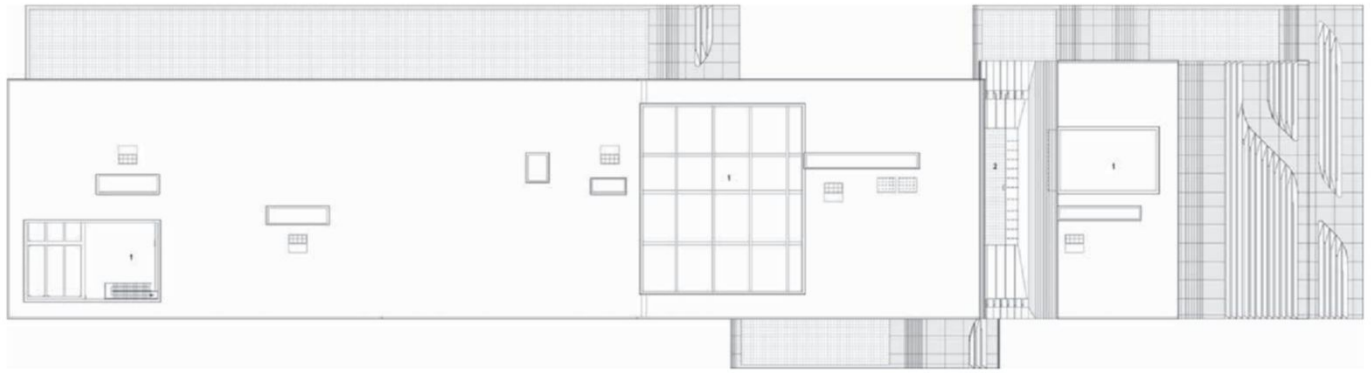
Ground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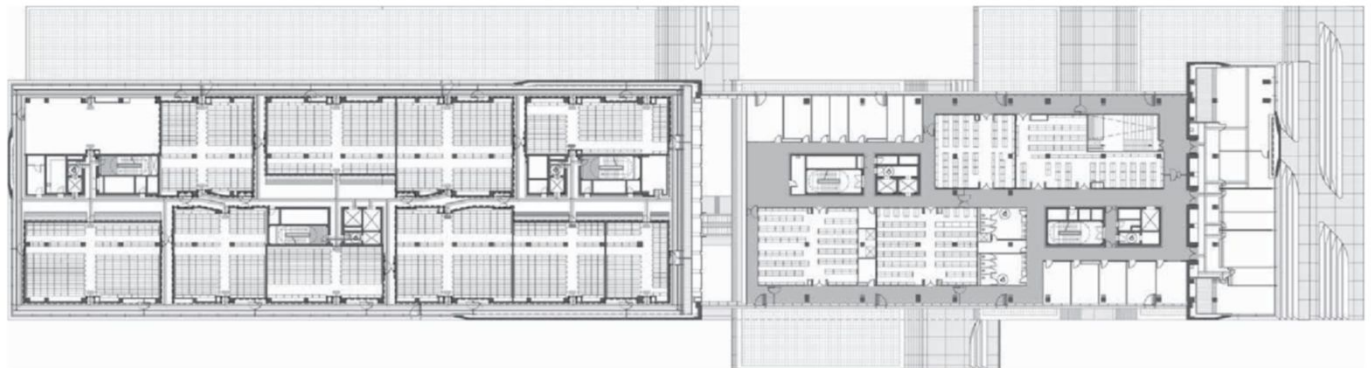
©Helene Bi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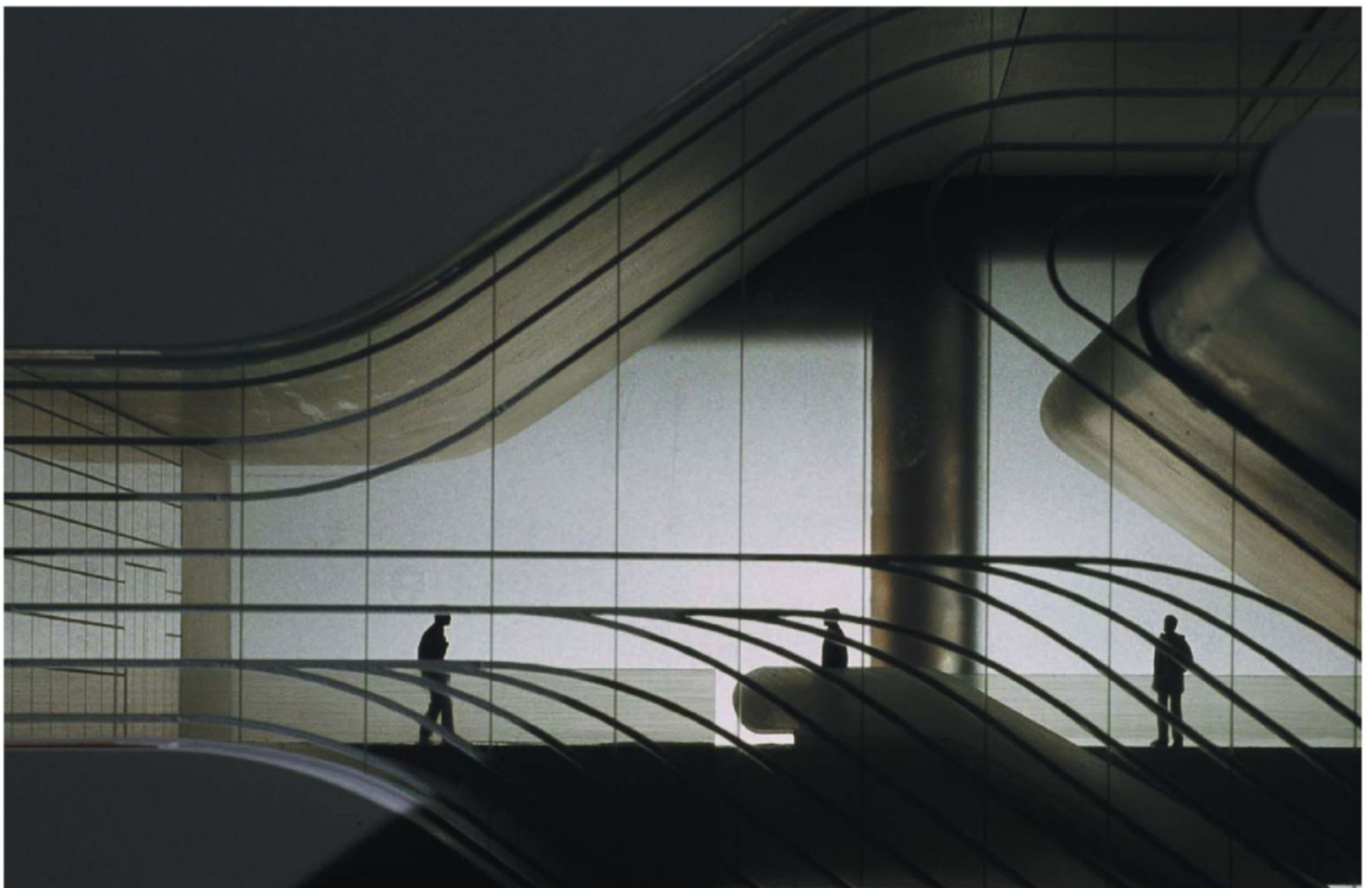
©Helene Bi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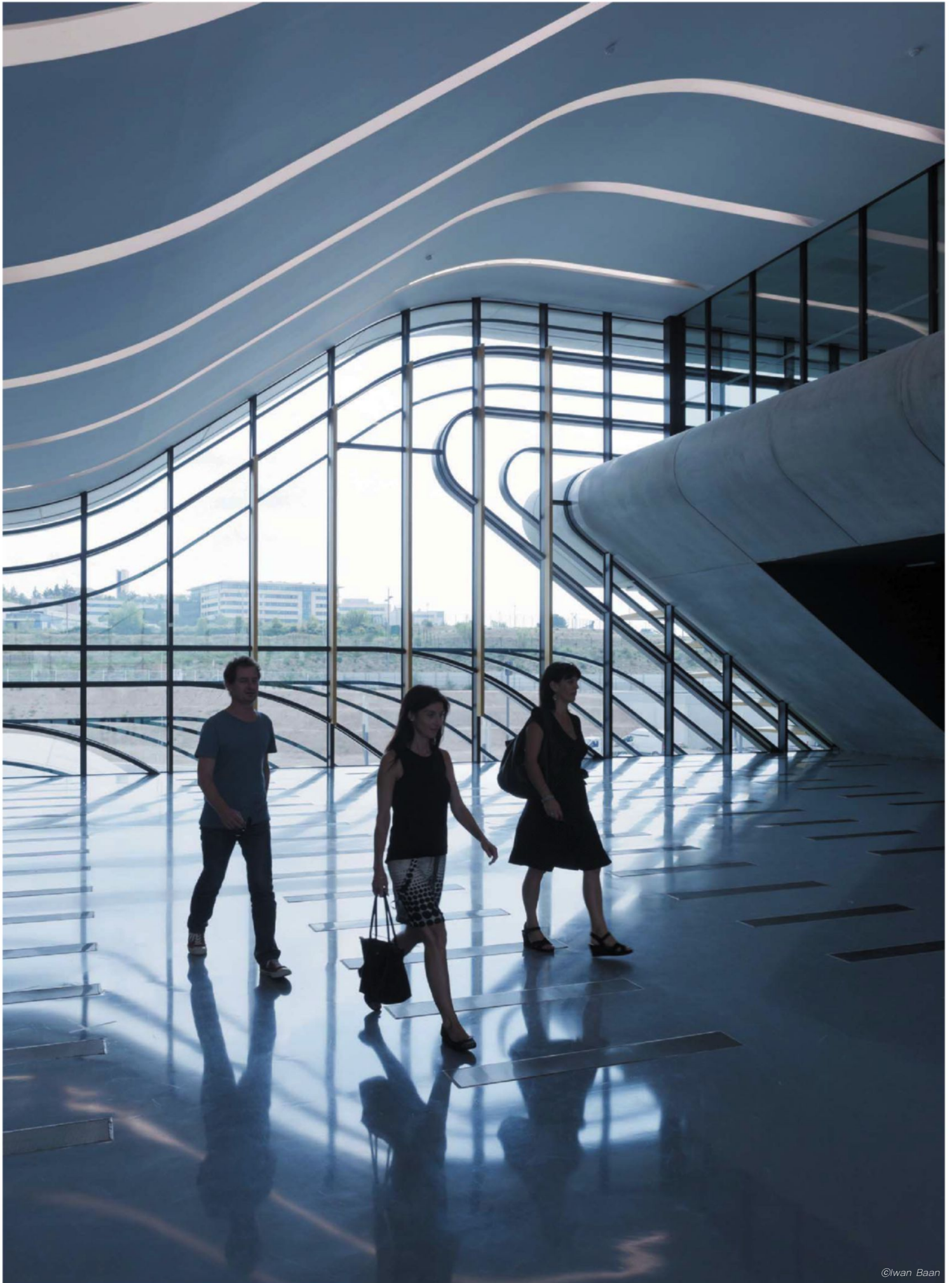
Roof Floor Plan



2nd Floor Plan







©Iwan Baan

TECTONIC



MICROURBANISM:

- DOUBLE FRONT
- MULTIPLE LOFT
- SUSPENDED



Sliced Porosity Block - CapitaLand Raffles City Chengdu

In the center of Chengdu, China, at the intersection of the first Ring Road and Ren Ming Nam Road, the Sliced Porosity Block forms large public plazas with a hybrid of different functions. Creating a metropolitan public space instead of object - icon skyscrapers, this three million square foot project takes its shape from its distribution of natural light.

중국 청두 시 한복판, 제1링로드와 란민남로드 교차로에 위치한 슬라이스드 포로시티 블록은 여러 기능을 가진 큰 광장들을 형성하고 있다. 대상 아이콘인 고층빌딩들 대신에 대도시의 공적 영역을 창조한 이 3백만 평방피트의 프로젝트는 자연광의 분포로부터 그 형태를 취한다.



La Liberté Building

The residential and office building "La Liberté" was realized on the occasion of the housing campaign De Intense Stad("The Intense City"), organized by the city of Groningen in 2004. Designed by Dominique Perrault, the double tower continues the city's intensification, as developed during the campaign. In organizing the campaign, the municipality tried to fulfil the effort to keep the city alive and compact.

주거 및 사무실용으로 건립된 "라 리벨테" 타워는 2004년에 네덜란드 흐로닝언의 도시가 주최했던 하우징 - 캠페인("강렬한 도시")을 통하여 실현된 건축물이다. 이 건축물은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캠페인 기간 동안 개발됨으로써 두 개의 타워는 도시를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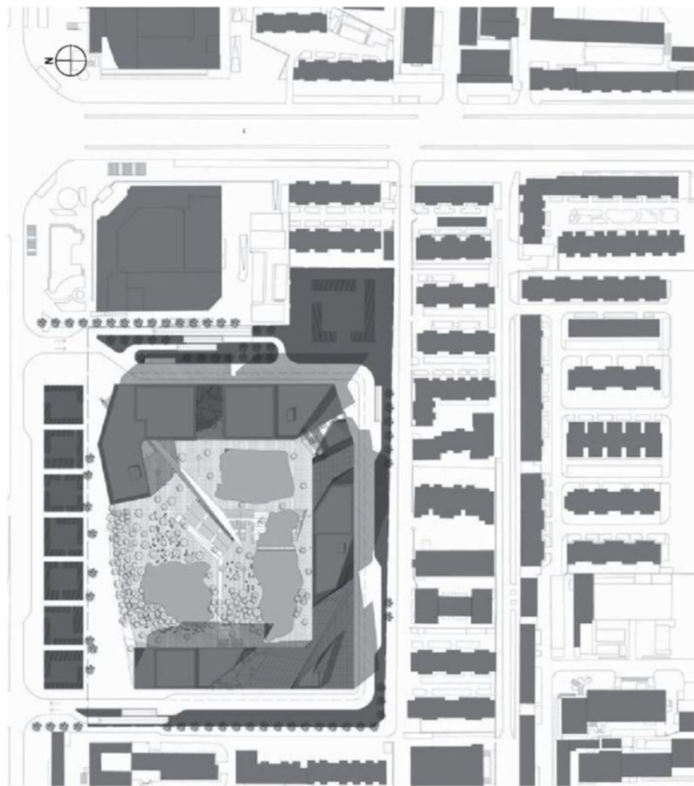
Urban Collage

Assuming that the city is a complex body, we superimposed elements found on site : townhouses at the base, a housing block from the 1950's in the middle, and on the roof, single family homes.

이 프로젝트는 도시를 복합체라고 가정하고 3가지 요소를 복합하였다. 최하층에는 연립주택을, 중간층에는 1950년대 지어진 블록형 주택을, 그리고 그 위 옥상에 단독주택을 덧붙였다.

Sliced Porosity Block - CapitaLand Raffles City Chengdu Chengdu, China

Steven Holl Architects



Site Plan

Location Chengdu, China

Program Five Towers With Offices, Serviced Apartments, Retail, A Hotel, Cafes, Restaurants

Project Type Direct Commission

Building Area(Square) 3,336,812sf / 310,000sm

Site Area 57,415f / 17,500m

Floor Area(Square) above 2,098,963sf / 195,000sm

Floor Area(Square) below 1,237,850sf / 115,000sm

Architects Steven Holl Architects

Design Architect Steven Holl · Li Hu

Associate in Charge Roberto Bannura

Project Architect Lan Wu

Project Architect Haiko Cornelissen · Peter Englaender · JongSeo Lee

Project Designer Christiane Deptolla · Inge Goudsmit · Jackie Luk · Maki Matsubayashi · Sarah Nichols · Manta Weihermann · Martin Zimmerli

Project Team Justin Allen · Jason Anderson · Francesco Bartolozzi · Guanlan Cao · Yimei Chan · Sofie Holm Christensen · Esin Erez · Ayat Fadaifard · Mingcheng Fu · Forrest Fulton · Runar Halldorsson · M. Emran Hossain · Joseph Kan · Suping Li · Tz · Li Lin · Yan Liu · Daijiro Nakayama · Pietro Peyron · Roberto Requejo · Elena Rojas · Danielsen · Michael Rusch · Ida Sze · Filipe Taboada · Ebbie Wisecarver · Human Tielu Wu · Jin · Ling Yu

Associate Architects China Academy of Building Research

Client CapitaLand China

Photo by Iwan Baan · Shu He · Steven Holl Architects

슬라이드 포로시티 블록 - 캐피타랜드 래플즈 시티 청두

중국 청두 시 한복판, 제1링로드와 램민남로드 교차로에 위치한 슬라이드 포로시티 블록은 여러 기능을 가진 큰 광장들을 형성하고 있다. 대상 아이콘인 고층빌딩들 대신에 대도시의 공적 영역을 창조한 이 3백만 평방피트의 프로젝트는 자연광의 분포로부터 그 형태를 취한다. 이 구조물 주변의 도시 구조는 최소한의 태양광 노출 필요성 때문에 이 구조물의 콘크리트 외형이 여러 기하학적 각도로 잘려지게 되었다. 건물 구조는 흰색 콘크리트에 6피트 높이의 출입구들이 진열되어 있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지진방지용 대각선 골조들이 건물을 감고 있으며, "잘려진" 부분들은 유리로 되어 있다.

이 블록의 중앙에 위치한 큰 공적 공간은 세 개의 계곡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이 도시의 가장 위대한 시인이었던 두보의 시귀, '북동쪽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남서쪽으로 던져진, 시간은 삼협에 갇혀버렸네'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세 개의 광장은 각각 높이가 다른데, 이들은 각각 시간의 개념에 기초를 둔 호수들(1년을 나타내는 호수, 12개월을 나타내는 호수, 30일을 나타내는 호수)이다. 이 세 개의 호수들은 그 아래에 있는 쇼핑구역에 대한 천창 역할을 한다.

In the center of Chengdu, China, at the intersection of the first Ring Road and Ren Ming Nam Road, the Sliced Porosity Block forms large public plazas with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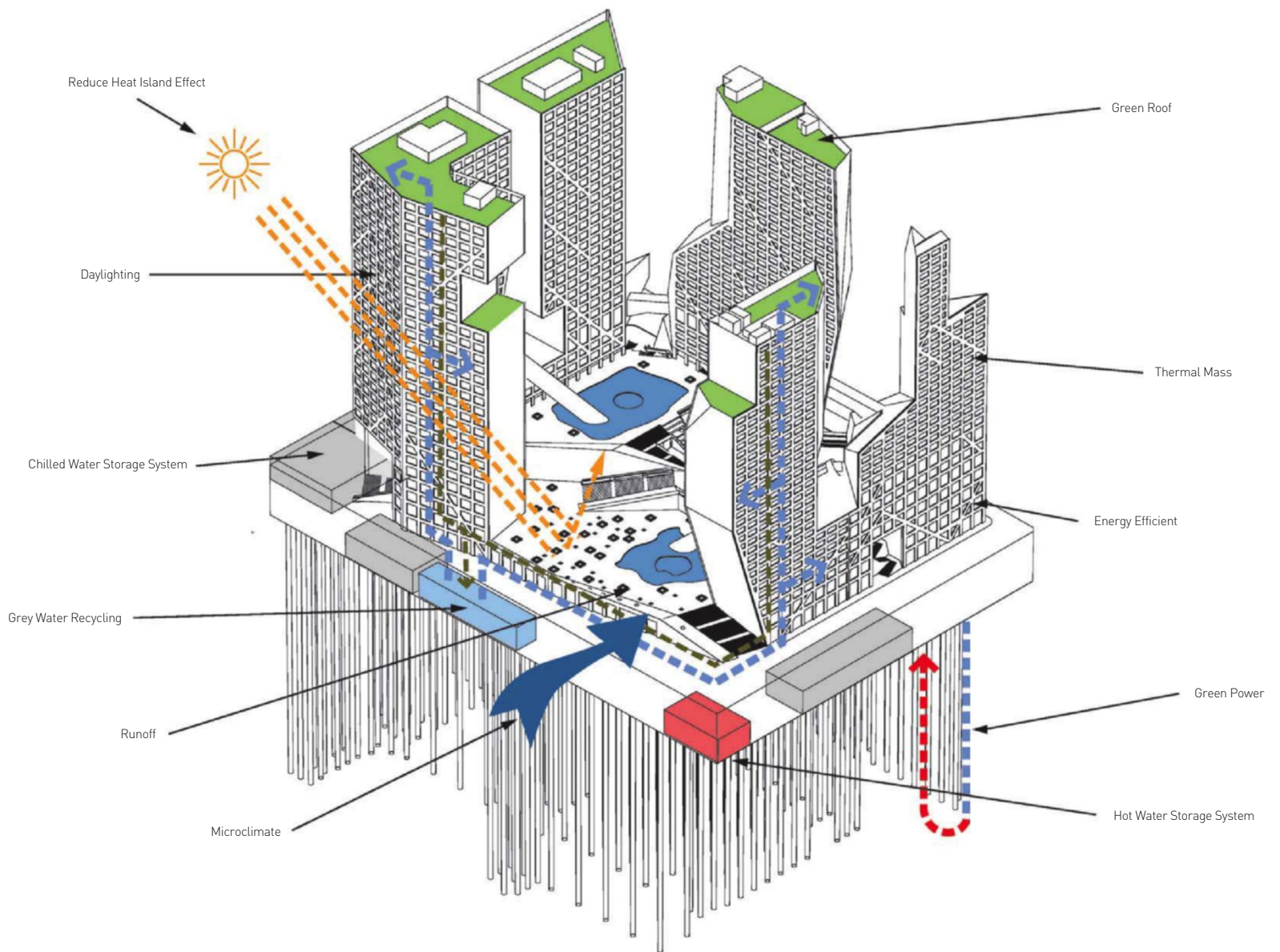
hybrid of different functions. Creating a metropolitan public space instead of object - icon skyscrapers, this three million square foot project takes its shape from its distribution of natural light.

The required minimum sunlight exposures to the surrounding urban fabric prescribe precise geometric angles that slice the exoskeletal concrete frame of the structure. The building structure is white concrete organized in six foot high openings with earthquake diagonals as required while the "sliced" sections are g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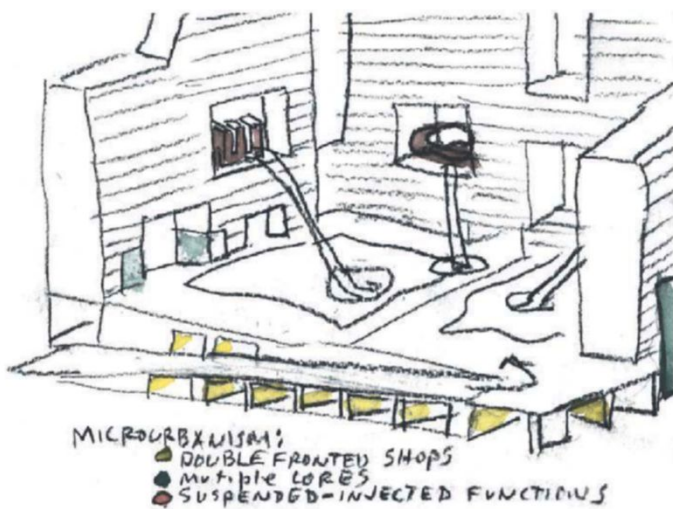
The large public space framed in the center of the block is formed into three valleys inspired by a poem of the city's greatest poet, Du Fu(713-770), who wrote, 'From the northeast storm - tossed to the southwest, time has left stranded in Three Valleys.' The three plaza levels feature water gardens based on concepts of time. the Fountain of the Chinese Calendar Year, Fountain of Twelve Months, and Fountain of Thirty Days. These three ponds function as skylights to the six-story shopping precinct below.

Written by Steven Holl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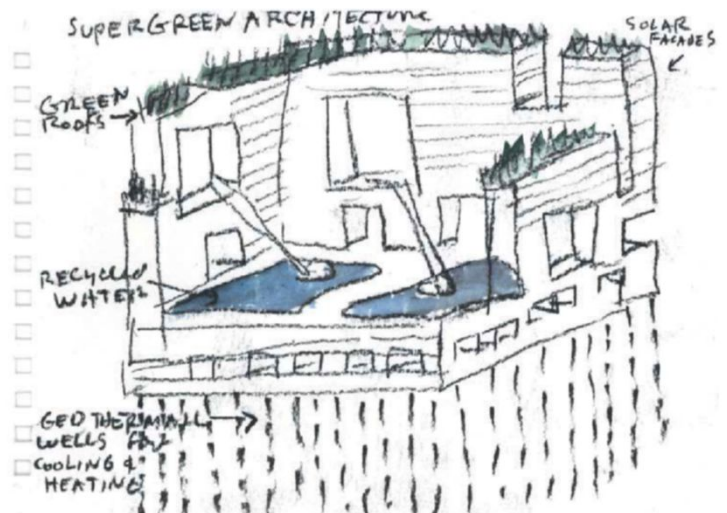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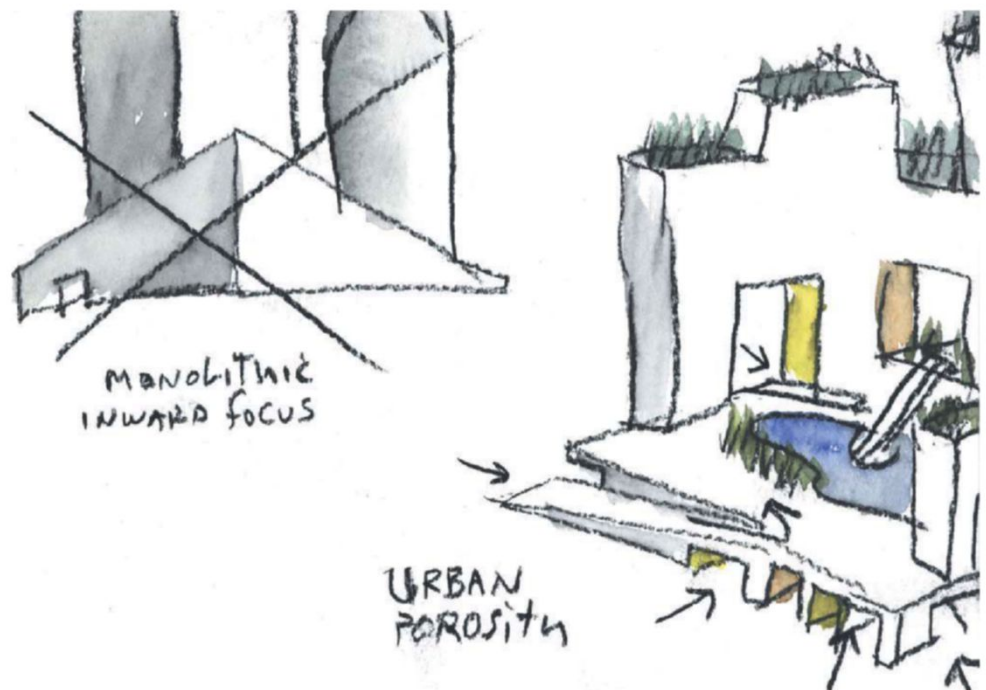
Axonomet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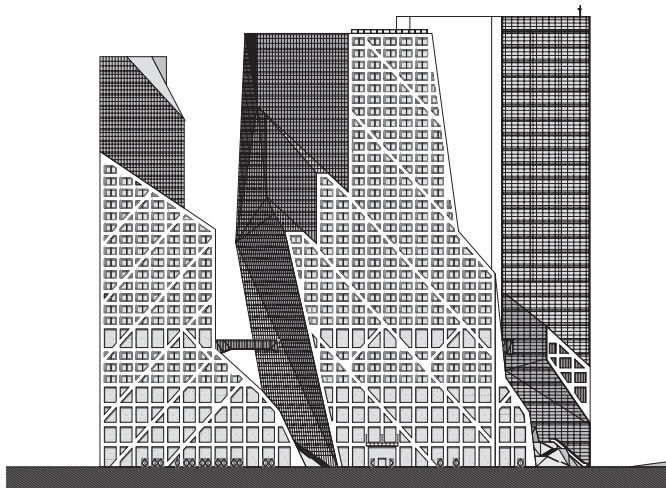
Microuban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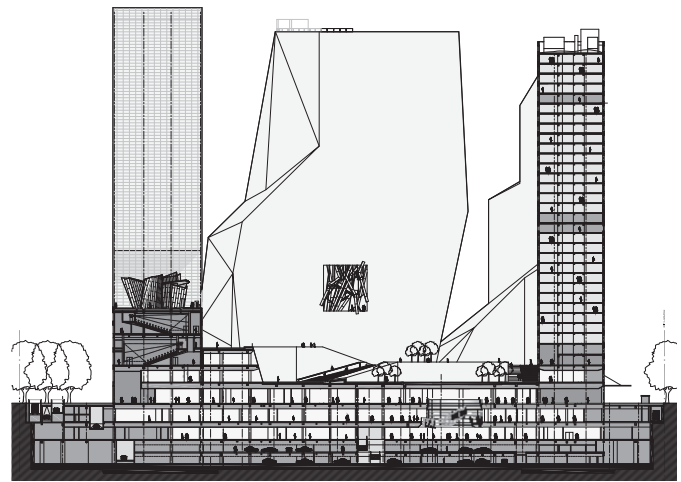
Super - Green Architecture



Porosity



East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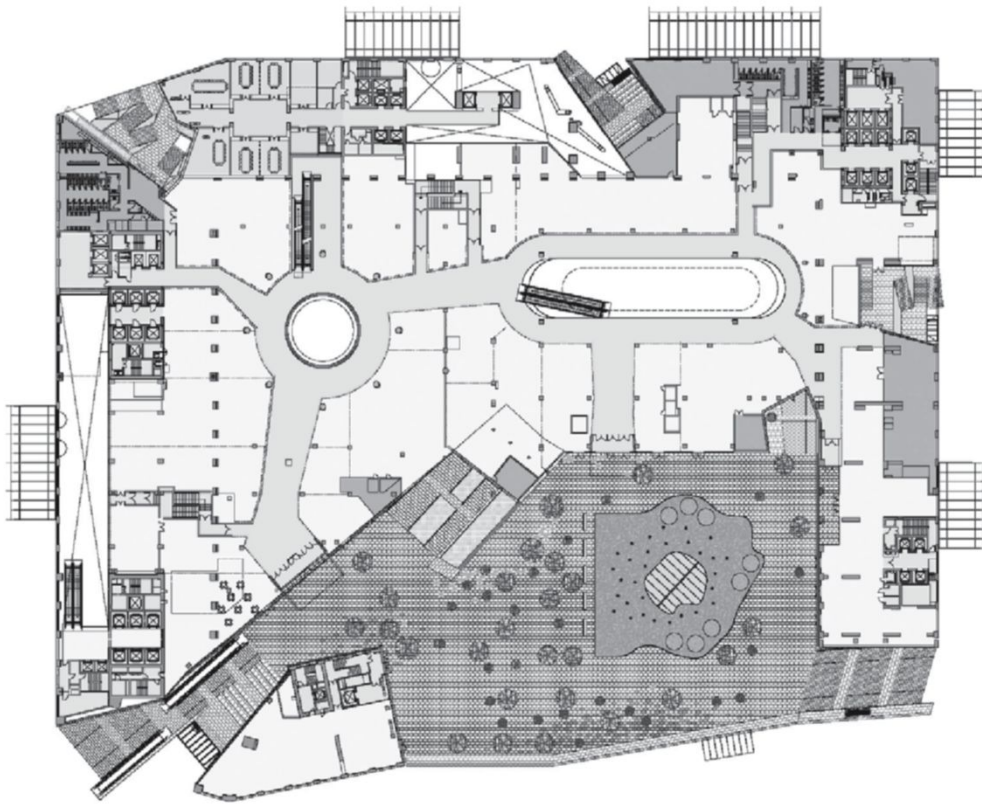
Section



©Iwan Ba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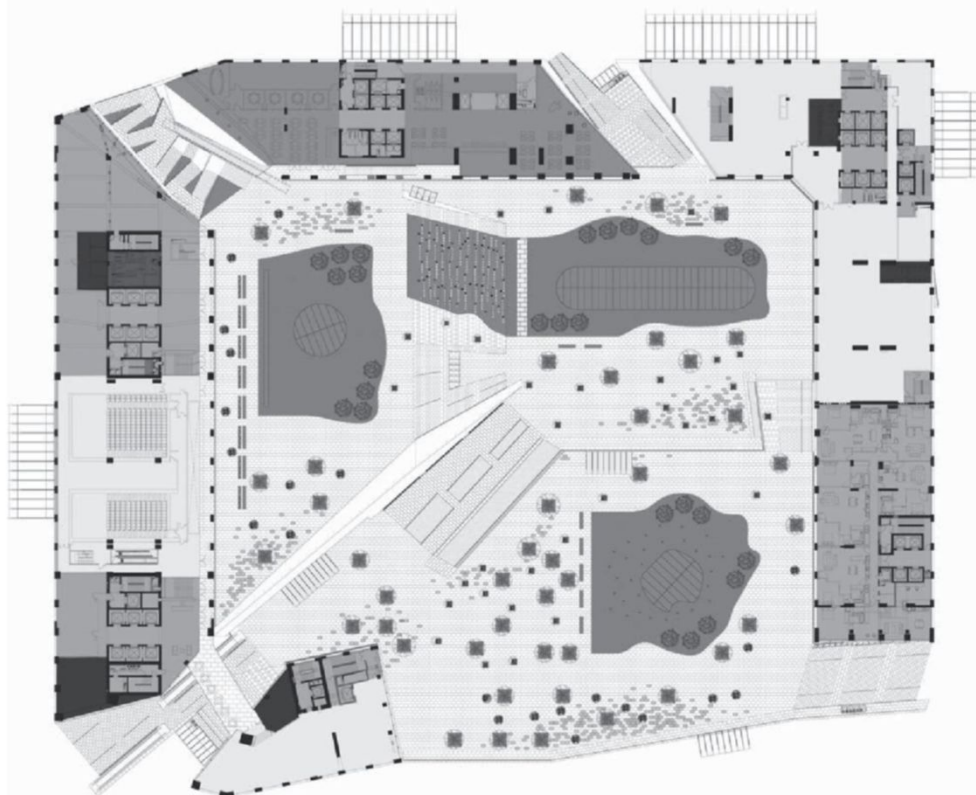


©Shu 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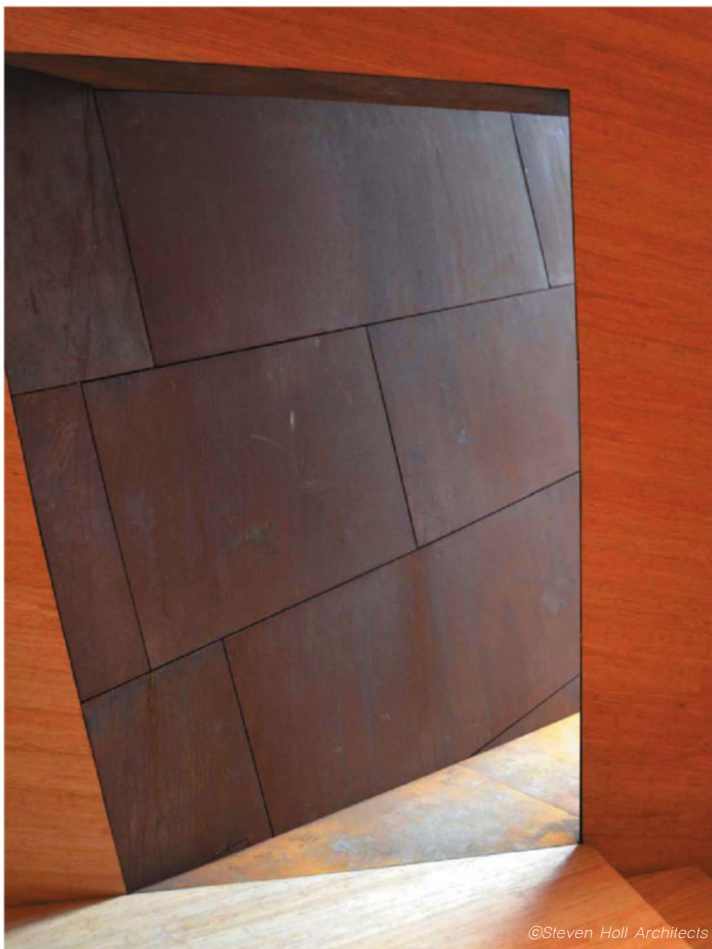
2nd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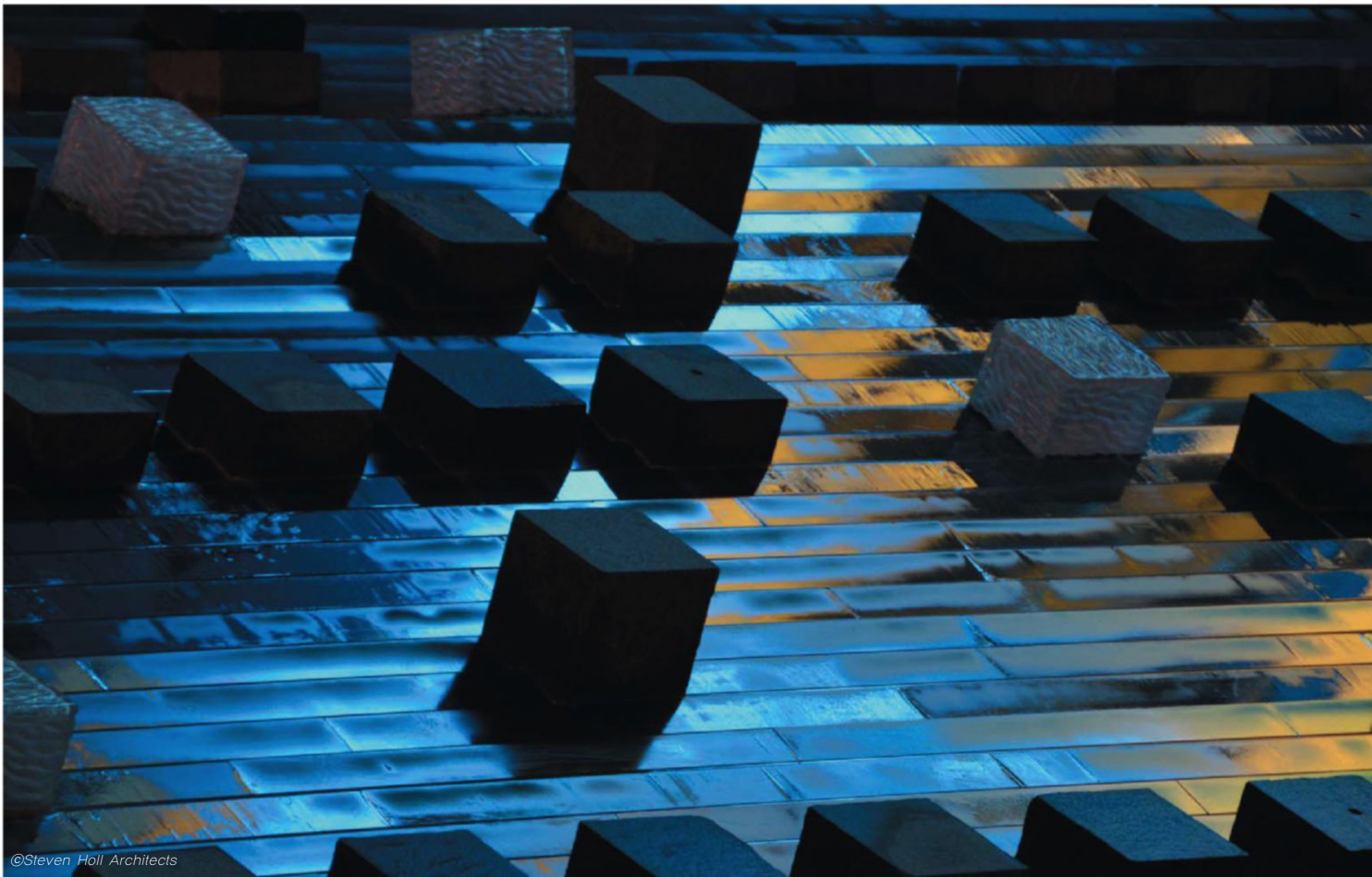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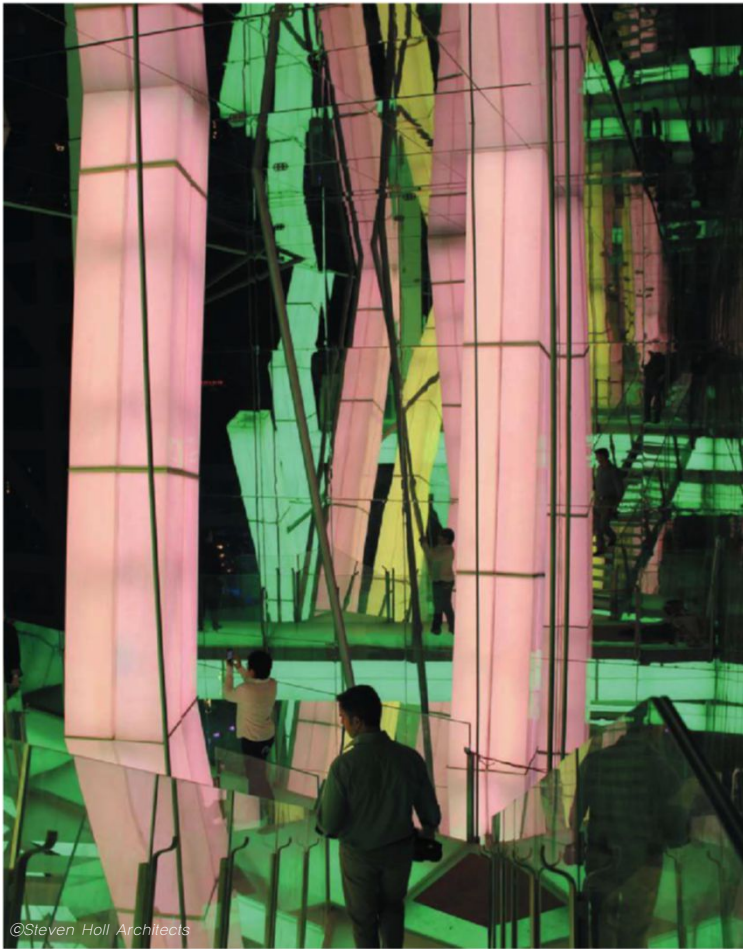
- Legend**
- Office
 - Hotel
 - Serviced Apartments
 - Retail
 - Public Program
 - Semi Public Program
 - Circulation
 - Service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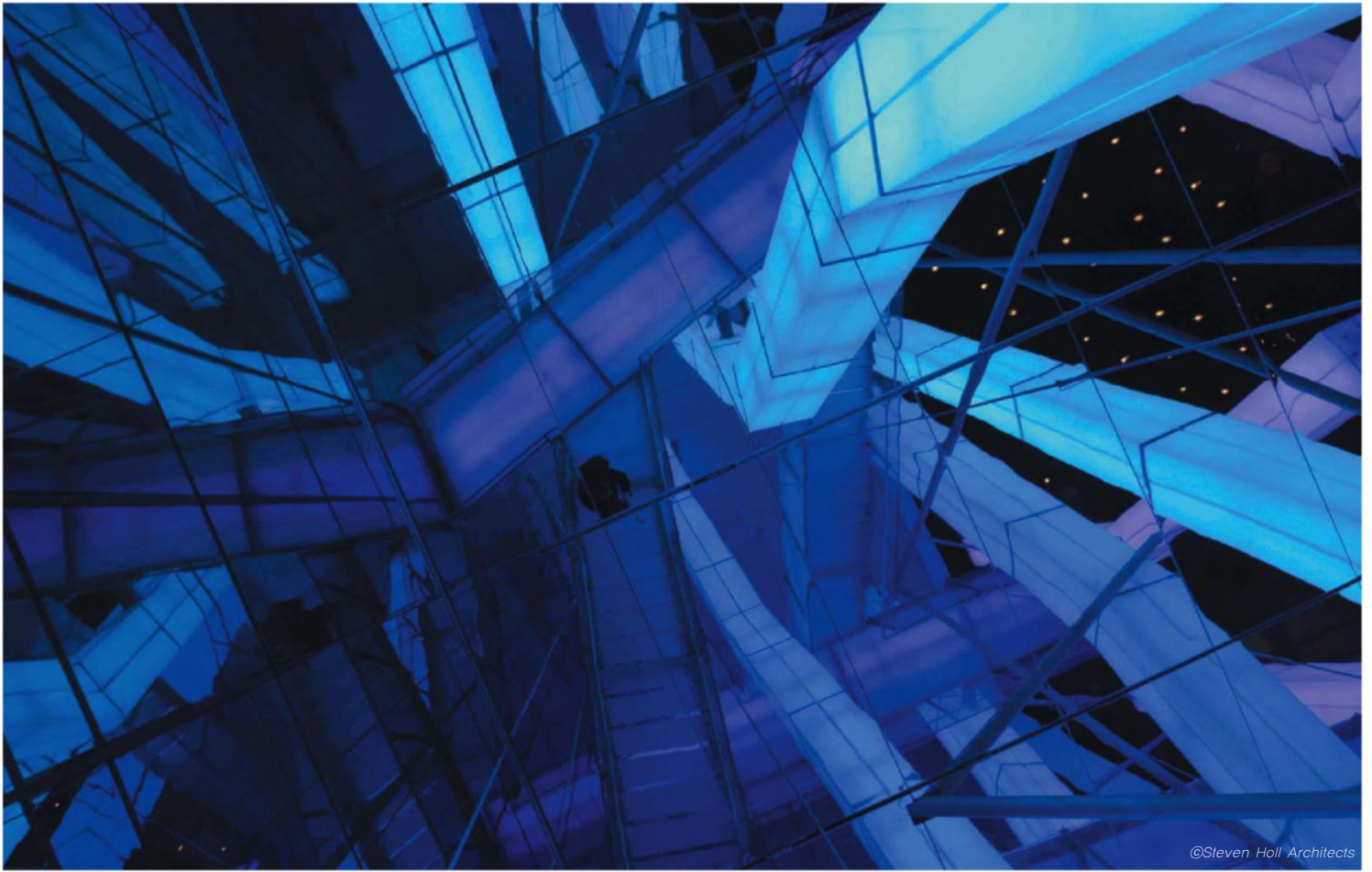


4th Floor Plan

- Legend**
- Soho
 - Office
 - Hotel
 - Serviced Apartments
 - Retail
 - Public Program
 - Semi Public Program
 - Circulation
 - Service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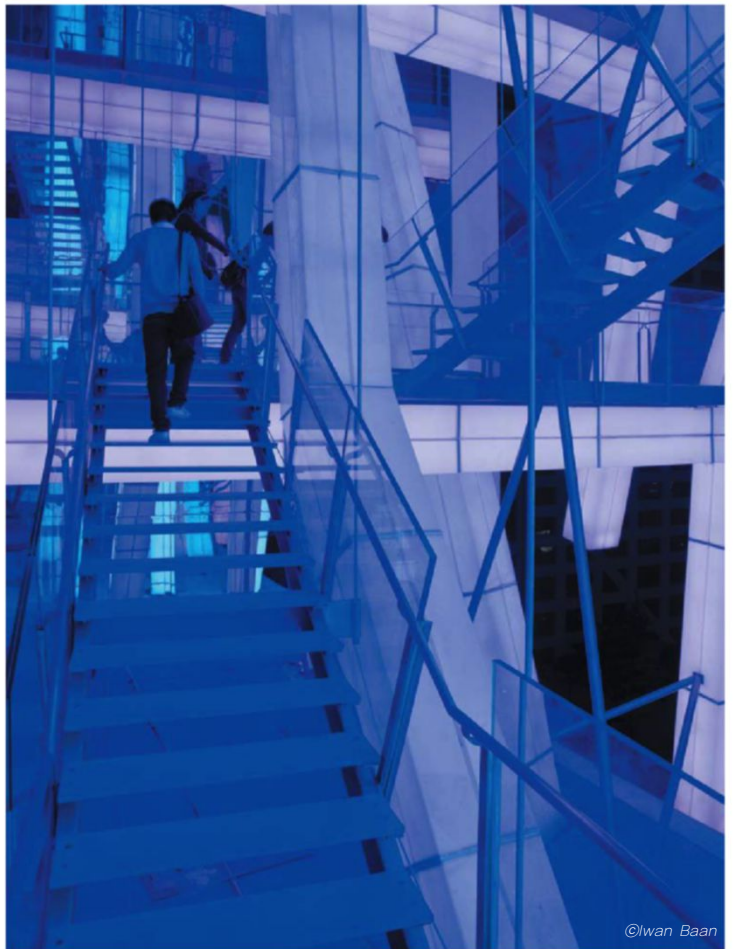




©Steven Holl Architects



©Iwan Baan



©Iwan Baan

La Liberté Building

Groningen, The Netherlands

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



Ground Floor Plan

Location Laan van der Vrijheid, Groningen, The Netherlands

Site Area 10,230m²

Bldg. Area 23,400m²

Architects 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

Associated Architect Oving Architecten, Groningen

Engineering Dijkhuis Groningen(structures) · Zonderman B.V.(electricalengineering) · Feenestra(heating and ventilation systems) · Gevekebouw · B.V.(general contractor)

Client Christelijke Woningstichting Patrimonium, The Netherlands

Photo by Jim Ernst · Prima Focus · 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

라 리벨테 빌딩

주거 및 사무실용으로 건립된 “라 리벨테” 빌딩은 2004년에 네덜란드 호로 닝언의 도시가 주최했던 하우징 - 캠페인(“강렬한 도시”)을 통하여 실현된 건축물이다.

이 건축물은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에 의해 설계되었고, 캠페인 기간 동안 개발됨으로써 두 개의 탑(빌딩) 도시를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있다. 이 도시의 캠페인 조직위원회는 살아있는 소형도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라 리벨테 빌딩은 호로 닝언 도시의 순환도로를 따라 나란히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이 지역의 새롭게 건설되는 사무실과 주택들로 인해 트랜칭 순환도로는 부분적으로 더욱 강조될 것이다.

이 하우징 - 캠페인 정신아래 완벽하게 건립된 “라 리벨테”는 다양한 도시 기능이 담겨 있다. 지하 주차장, 3층 레벨의 사무실과 단 층에는 새로운 경관 디자인, 4층 레벨의 공유 광장은 실질적으로 두 개의 타워와 아파트 옥상으로 연결되었으며, 도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라 리벨테는 설득력 있게 다른 도시 시설과는 달리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도시들의 삶과 복지를 위해 필수적인 새로운 호로 닝언 도시로 인식 되고 있다.

The residential and office building “La Libertee” was realized on the occasion of

the housing campaign De Intense Stad (“The Intense City”), organized by the city of Groningen in 2004.

Designed by Dominique Perrault, the double tower continues the city’s intensification, as developed during the campaign. In organizing the campaign, the municipality tried to fulfil the effort to keep the city alive and compact.

The towers are placed alongside the ring road of Groningen, a zone that especially will be intensified by partly trenching the ring road, creating more space for offices and housing.

Completely within the spirit of the campaign, La Libertee stacks different urban functions: beneath ground level a car park, a new landscape design on ground floor with three levels of offices, a shared square on the fourth level, which actually connects the two towers, and apartments on top. By intensifying the urban program, La Libertee has convincingly created new space for other urban facilities, as well as realized a new urban “body”, which is essential for the life and wellbeing of cities in general, and of Groningen specifically.

Written by 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







©Prima Focus



©Prima Focus



Longitudinal Section



©Prima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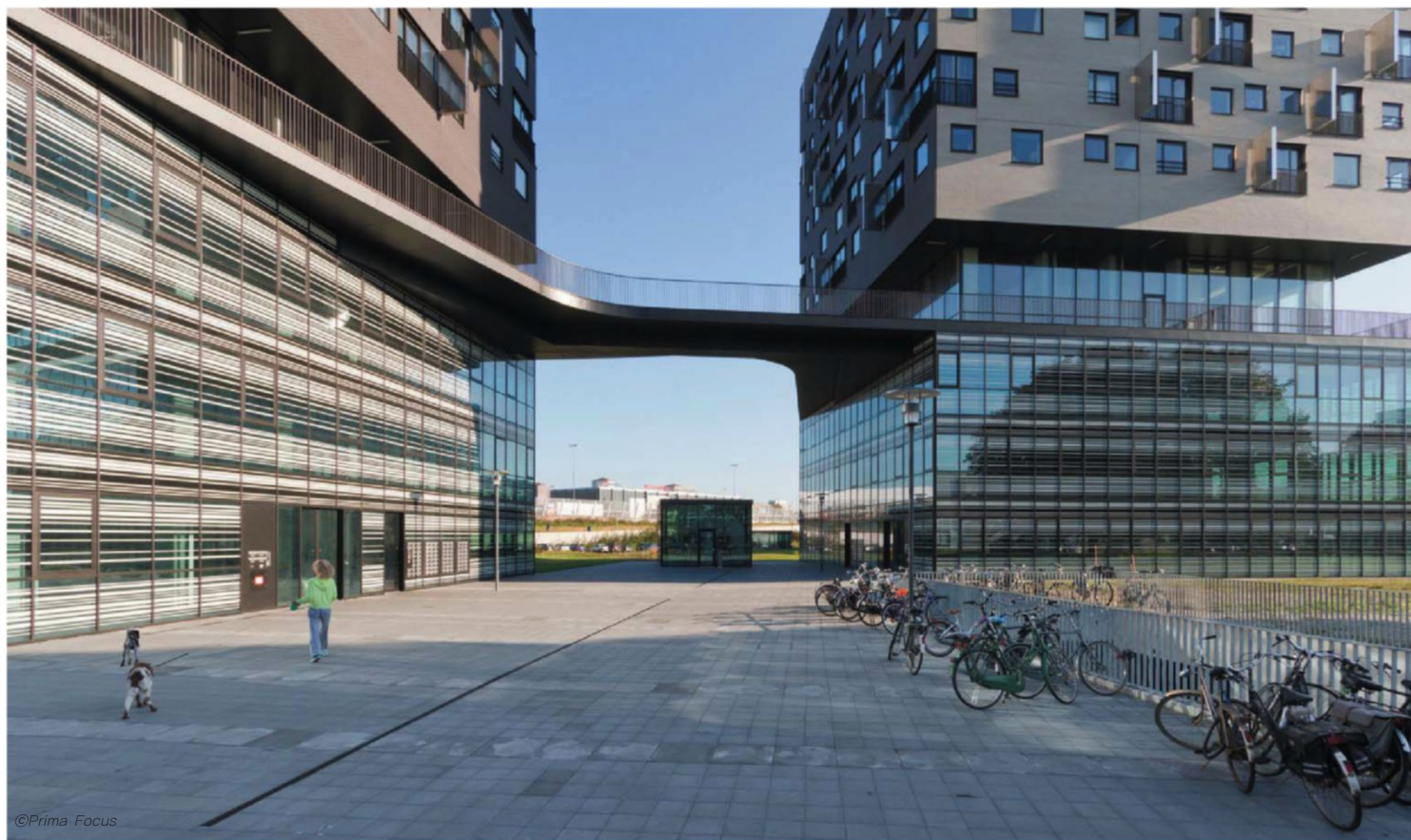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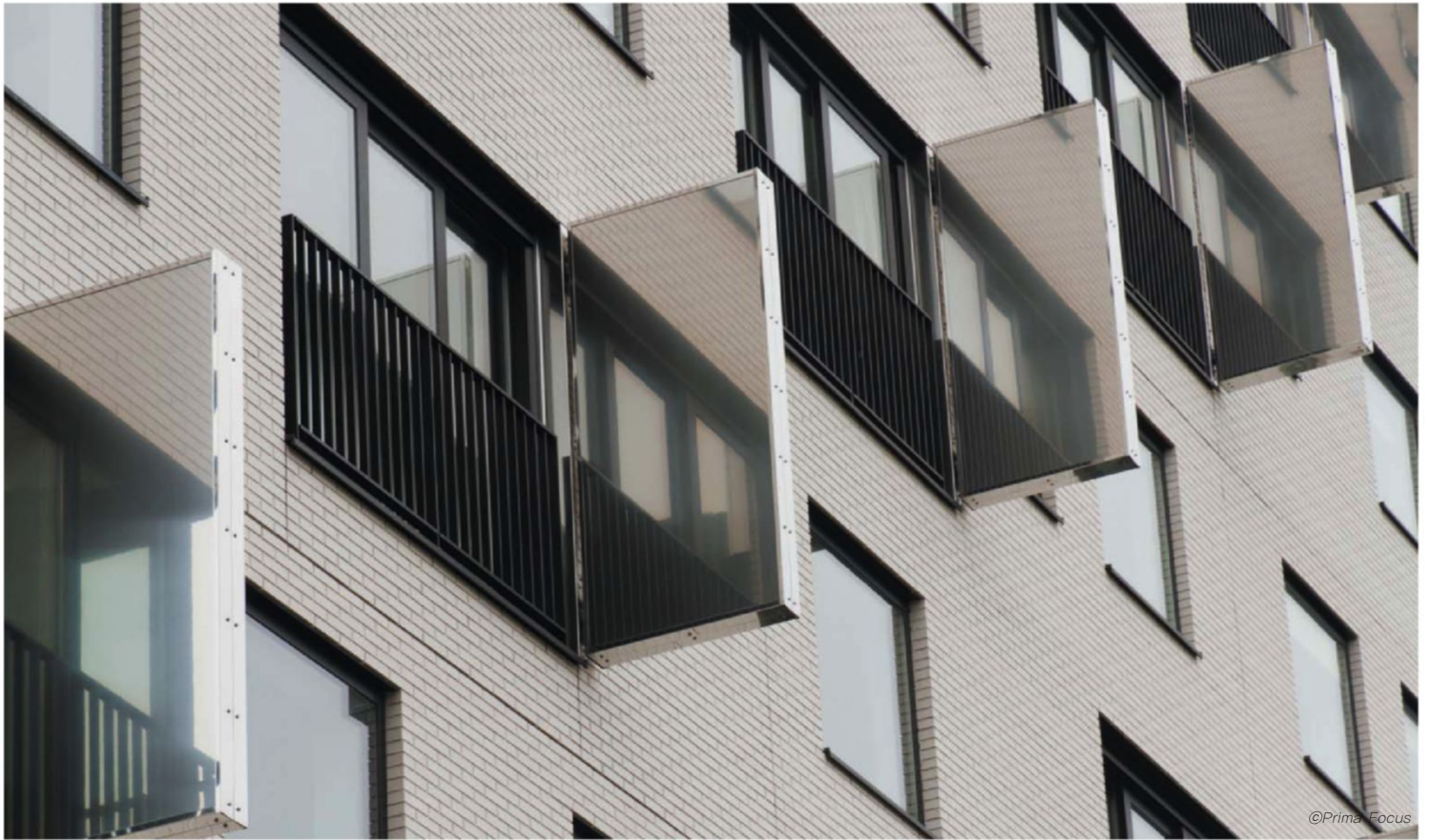
©Prima Focus





©Prima Focus









Urban Collage

Champigny - sur - Marne, France

Edouard Francois



Site Plan

Location Champigny - sur - Marne, France

Area 9,000m²

Architects Edouard Francois

Project Team Maison Edouard Francois · Integrale 4[Structure] · Nicolas Ingenierie[Mechanical Engineering] · Pre Carre[Landscape Architect]

Environmental Label Label H&E(Habitat & Environnement)

Client Paris Habitat

Photo by Paul Raftery



Elevation



Section

어반 콜라주

이 프로젝트는 도시를 복합체라고 가정하고 3가지 요소를 복합하였다. 최하층에는 연립주택을, 중간층에는 1950년대 지어진 블록형 주택을, 그리고 그 위 옥상에 단독주택을 덧붙였다.

에두아르 프랑수아는 이 건물이 바닥에서부터 옥상까지 눈에 한번에 들어올 수 있게 구성했다. 프로젝트의 복합성은 세 개의 상징(건축체)들을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들의 구조적 요소들을 수직적으로 덧붙이는데 있다.

이 건물은 새로운 소매점을 만들어 내는 것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에게 건축물에서 보여지는 많은 출입구와 시선 그리고 좁은 길들로 인한 집중성의 개념 또한 띄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이 프로젝트(건축물로)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연립 주택들은 인도로부터 각기 분리된 입구로 연결된다. 구리, 아연 그리고 타일로 만들어진 건물 정면은 어반 콜라주의 원근도법을 완성시켜 준다.

이 주거의 품질이 새로운 이야기(건축물)의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 공동 주택은 두 반대 측면에서 개방되어 있어 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시킨다.

Assuming that the city is a complex body, we superimposed elements found on site : townhouses at the base, a housing block from the 1950's in the middle, and on the roof, single family homes. We organized them as archetypes to be read from bottom to top. The complexity of this project lies in the vertical superposition of these structural elements, shifting the three typologies independent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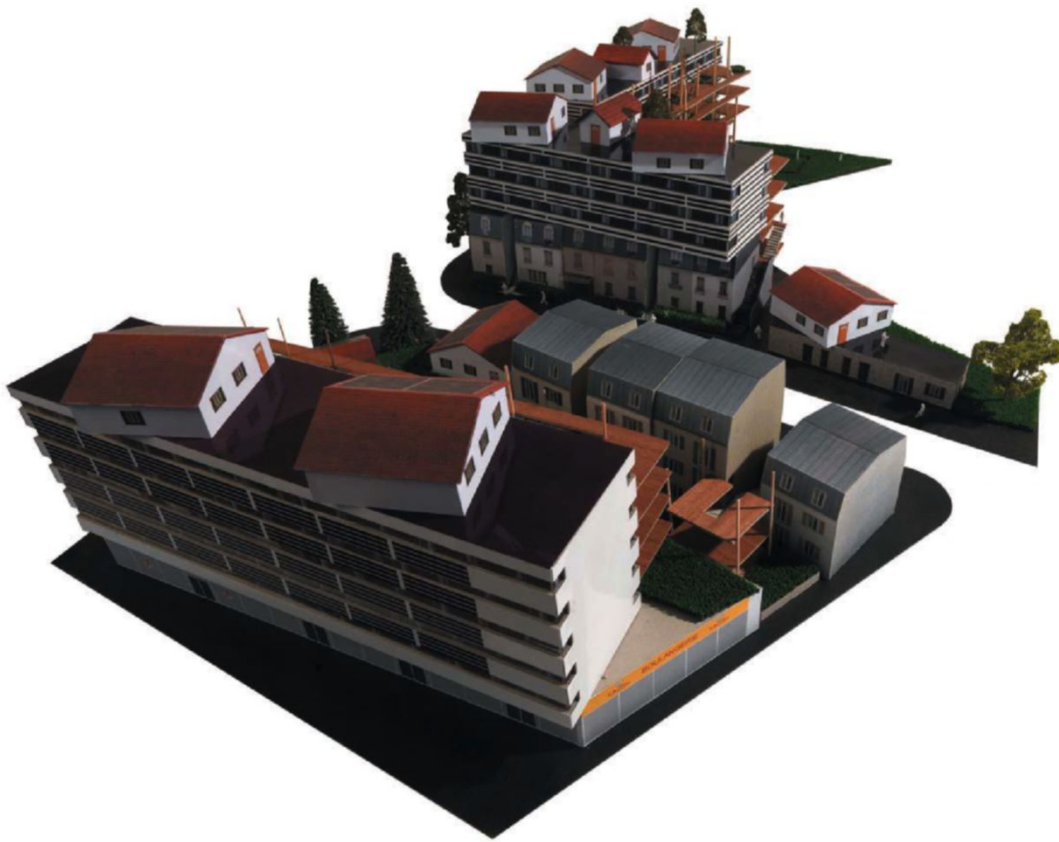
Beyond the creation a new retail shops,, the perception of centrality is also reinforced by the creation of numerous entries, gateways, lines of sight, and alleys that open the block to passers - by. These anchor the project in its context. The townhouses have separate entries from the sidewalk. Their copper, zinc, and tile facades complete the scenography.

The quality of the housing plays a central role in this new story: the apartments open on two opposite sides and meet the highest standards of energy efficiency.

Written by Edouard Franco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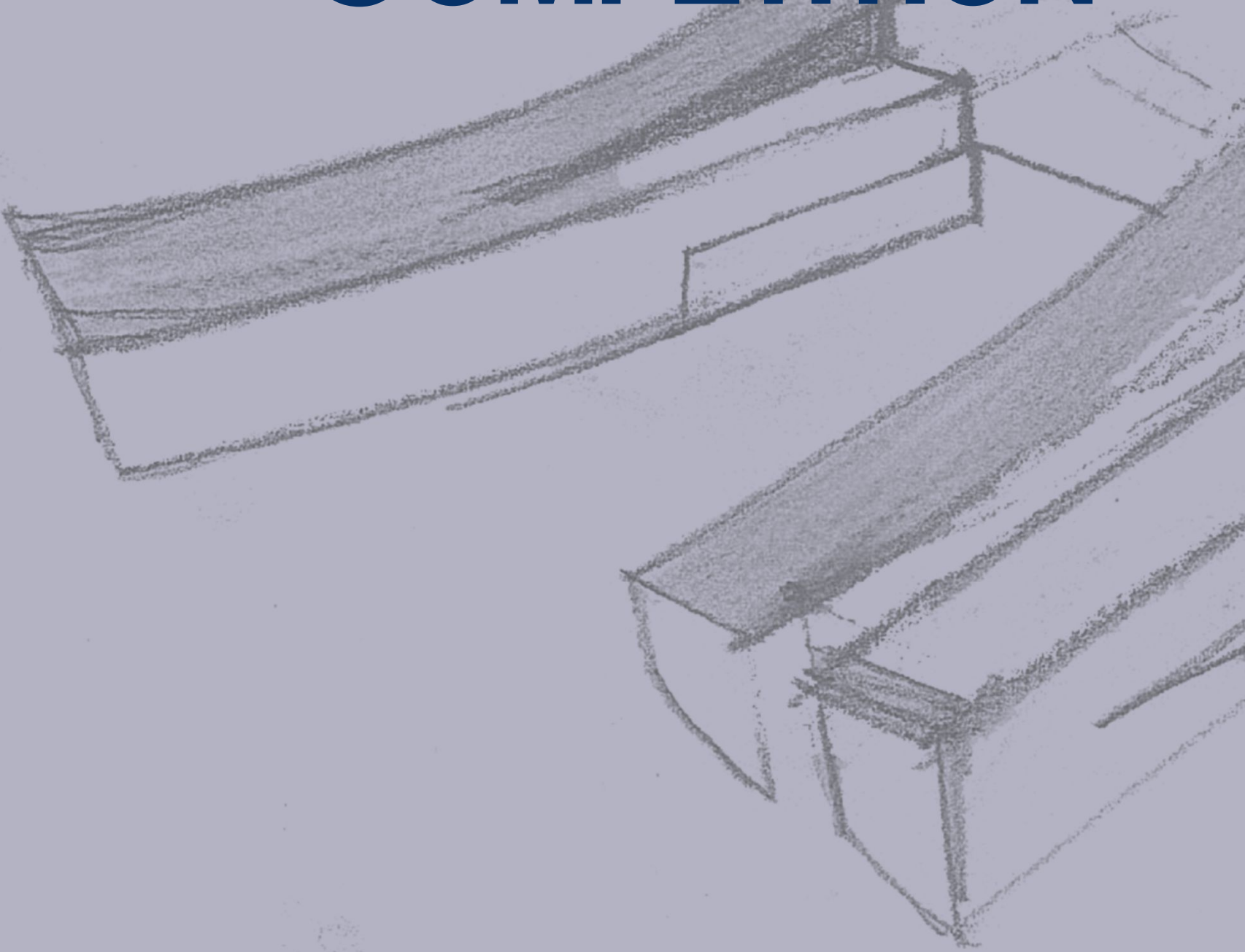








Domestic COMPETITION



Green trellis,

→ Green.
trellis.



지리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체험시설
Korea National Park Eco Centre at Jiri - Mountain

지리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체험시설은 지리산의 기운이 건물까지 연장되어 자연과 함께 누릴수 있는 힐링(Healing)개념을 위해 건물이 위치한 뒤쪽(동측)의 지형을 고스란히 앞쪽(서쪽)으로 연장시켜 그 기능을 관입하였다.

Leanning of Jiri National park, Feeling of the Nature and Becoming One. Because the site is using camping area already, the site plan strategies is to use the least area not to interrupt other natural area.



강동 문화 체육센터
Gangdong culture and sports center

‘강동 문화 체육센터’는 운동공간 안에서의 행위자의 움직임뿐 아니라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관람객들의 움직임 그리고 연결성을 가지는 공간 자체의 움직임을 역동성 있게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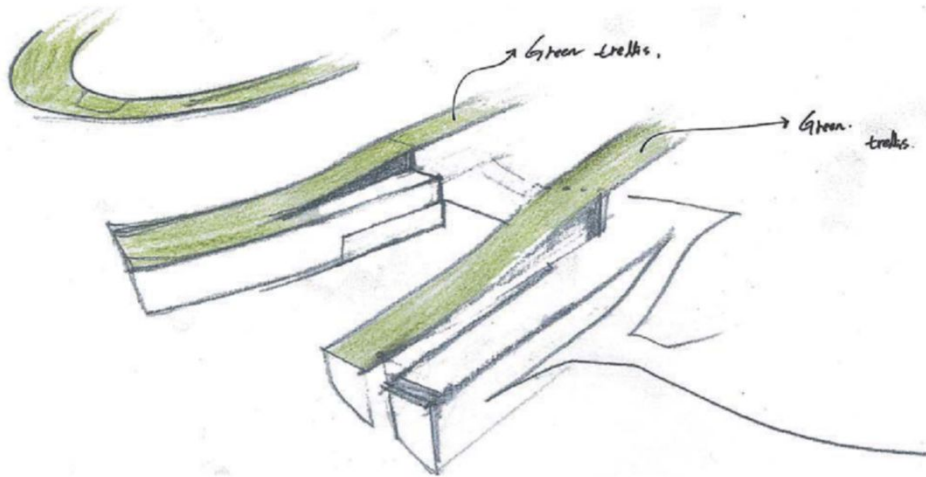
The “Gangdong culture and sports center” expresses the changing a movement of spectators by the movement of the space and the actors’ movement in the gym space, and the movement of the space with connectivity dynamic.

Domestic Competition Winner

Korea National Park Eco Centre at Jiri - Mountain 지리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체험시설

Kyungam Architectecs Associates Ltd _ Yun, Changki · Yang, Seungjung · Yim, Taehyung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경암 _ 윤창기 · 양승중 · 임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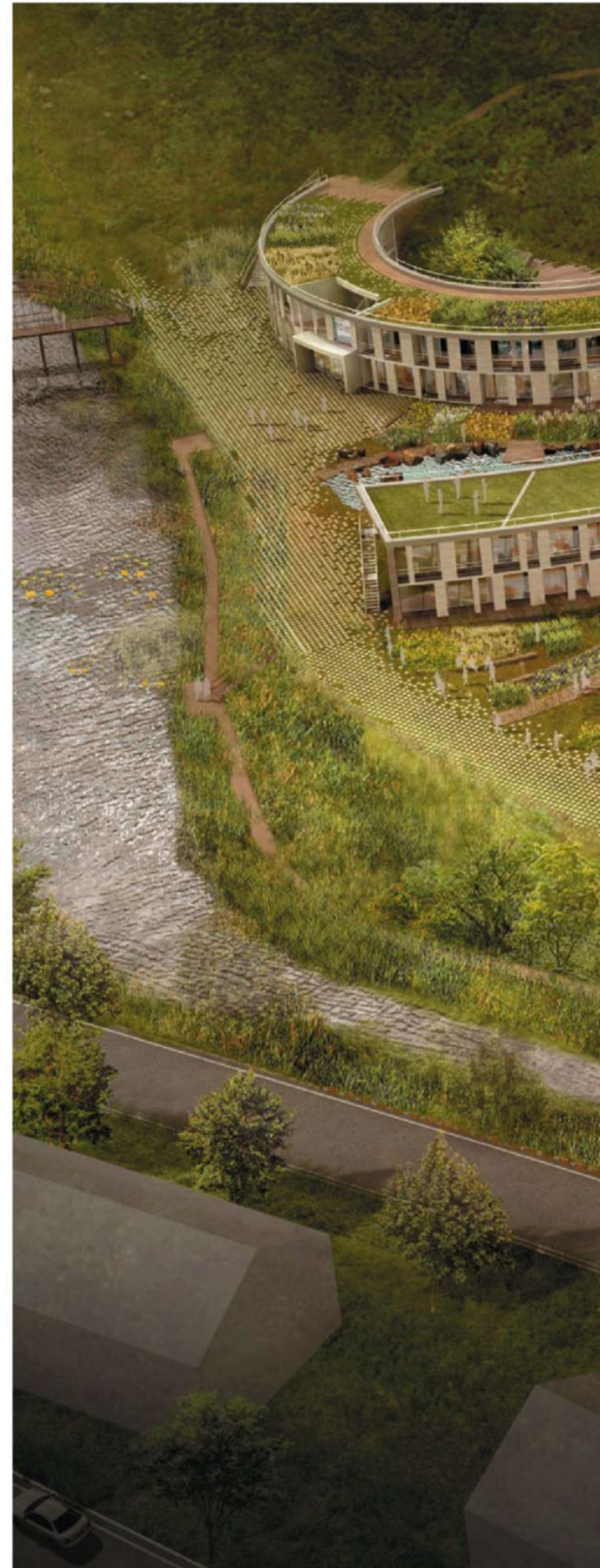
Concept Sketch



Site Plan

Location Hwangjeon - ri, Masan - myeon, Gurye - gun, Jeollanam - do, Korea **District** Natural Park Environmental District
Use Tourism and Rest Facilities **Site Area** 23,411.00m² **Bldg. Area** 4,190.54m² **Gross Floor Area** 5,932.87m² **Bldg. Coverage Ratio** 17.90% **Gross Floor Ratio** 22.98% **Bldg. Scale** 1 Stories above Ground, 2 Stories below Ground **Structure** R.C, S.R.C **Max. Height** 7.222m **Parking Lot** 33 Cars **Exterior Finish** THK24 Low - E Double Glazing, THK16 Double Glazing, THK5 Clear Glass(Double Glazed, Red Cedar, External Insulation System) **Architects** Kyungam Architectecs Associates Ltd _ Yun, Changki **Client** National Park Service

대지위치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천리 41외 4필지 **지역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보전산지,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 관광 휴게 시설 **대지면적** 23,411.00m² **건축면적** 4,190.54m² **연면적** 5,932.87m² **건폐율** 17.90% **용적률** 22.98% **규모** 지하층, 지상2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 철골 철근 콘크리트 **최고높이** 7.222m **주차대수** 33대 **외부마감** THK24 로이복층유리, THK16복층유리, THK5 맑은유리(2중창), 적삼목, 외단열 시스템 **설계**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경암 _ 윤창기 **설계참여자** 양승중 · 임태형 · 윤종균 · 박찬은 · 최주용 · 김용환 · 민경빈 · 신서현 **발주처** 국립공원 관리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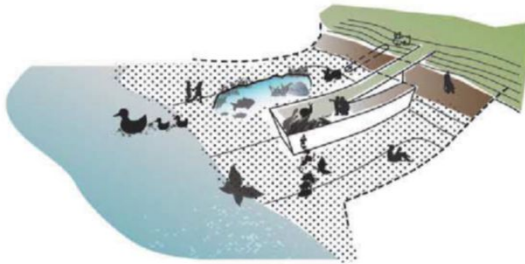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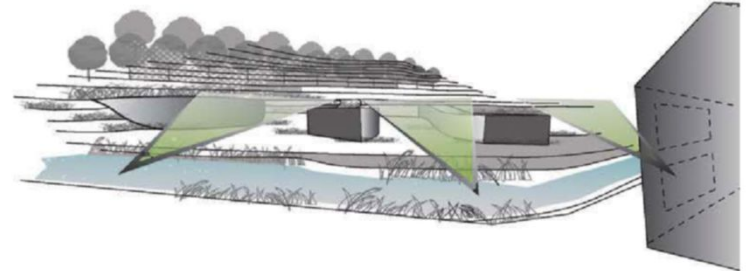
Harmonization of the terrain and n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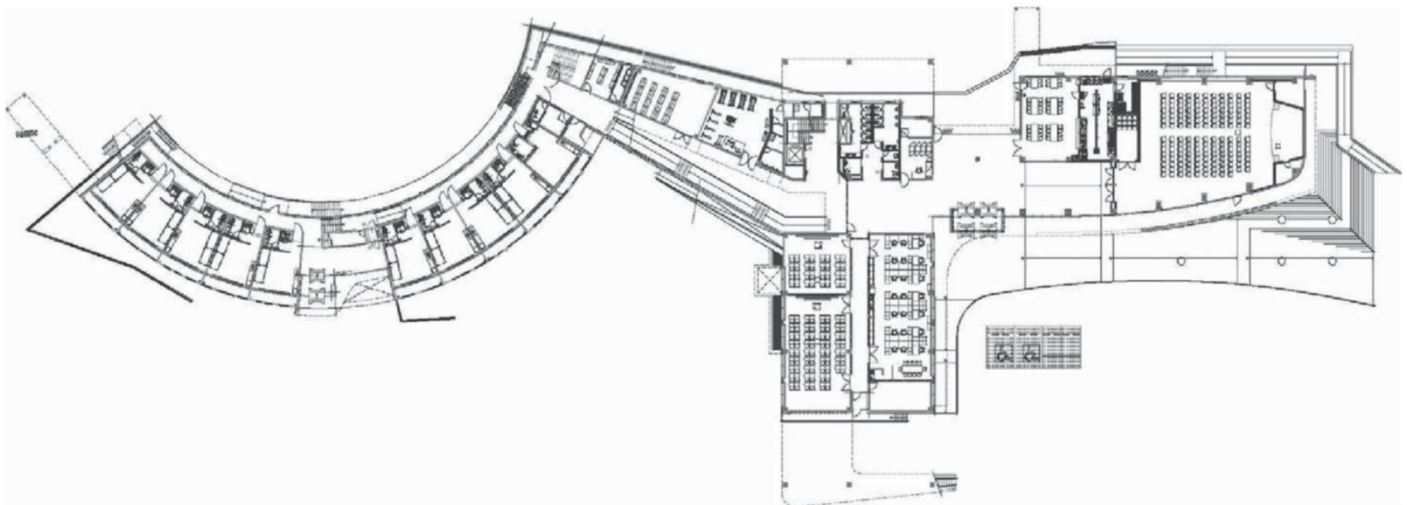
The symbiosis of the chap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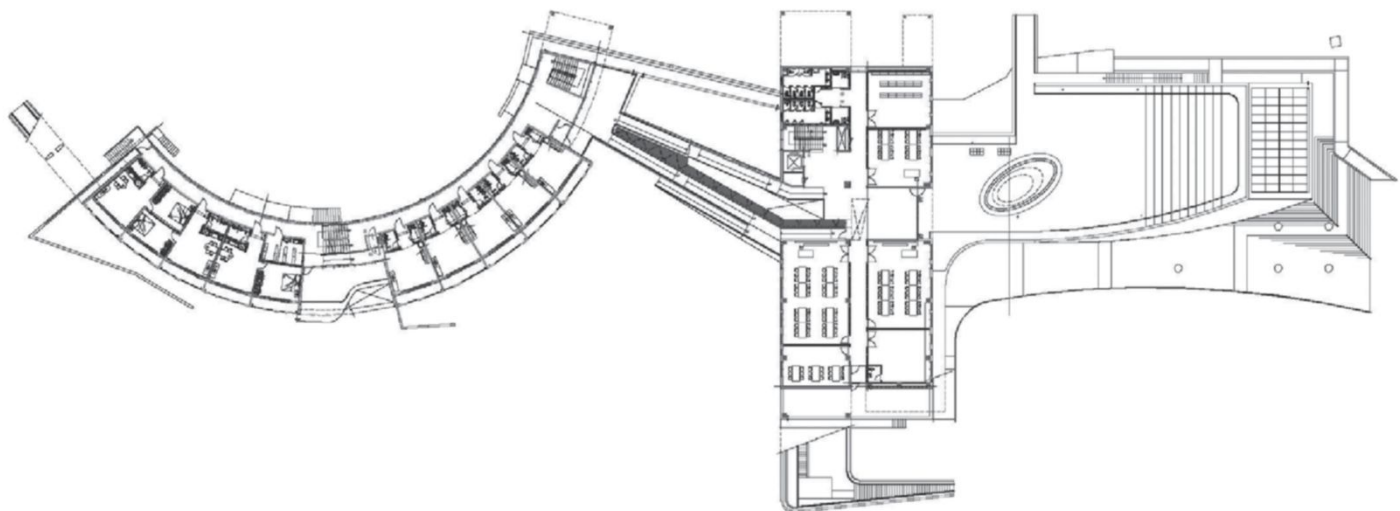
Permeate



Design Strategy



1st Floor Plan



2nd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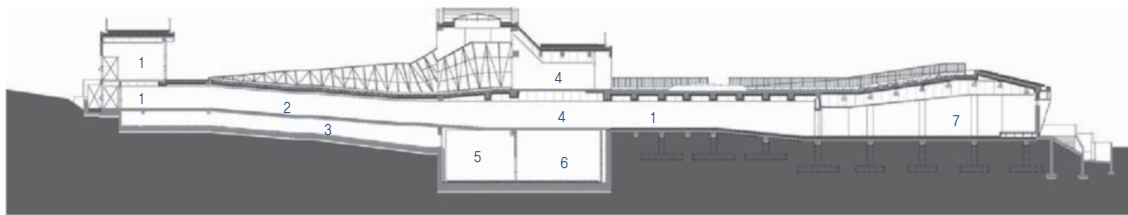
지리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체험시설

지리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체험시설은 지리산의 기운이 건물까지 연장되어 자연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힐링(Healing)개념을 위해 건물이 위치한 뒤쪽(동측)의 지형을 고스란히 앞쪽(서쪽)으로 연장시켜 그 기능을 관입하였다. 이 덩어리를 다시 '채 나눔'으로 사이공간을 내포하게 하였다. 채와 채의 사이공간에는 자연의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이를 누리는 사람들의 심신에 지리산의 건강한 기운과 대자연의 교훈을 선사할 것이다. 지리산의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지역민들, 이용자들에게 대한 배려와 세심한 관찰력으로 건축은 단지 자연에 스며드는 자세로 그 존재를 나타낼 뿐이다.

개념으로 지역주민의 이용을 위해 출입구와 접근로에 인접하여 배치시켜 장소적 공공성을 고려하였고, 생활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부지내 가장 아늑한 영역에 별도의 중정과 동선을 마련해서 배치하여 치유의 공간이라 명명하였다. 모든 주요실 들은 남향우선으로 배치시켰으며 장애우가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공간을 계획하였다.

Leanning of Jiri National park, Feeling of the Nature and Becoming One. Because the site is using camping area already, the site plan strategies is to use the least area not to interrupt other natural area. the most important concept is Jiri - mountain's grateful shape reaches to the building as a "healing concept". the contu of mountain(East side) spread to the front (west side) make building divided 2 masses and then 3 masses as flow natural shapes. This mass - dividing is called "Chae-nanum" which is Asian traditional method of wall dividing. between the spaces of "Chae" and "Chae" contain all sort of natural's feeling. The building itself exist with nature lesson for user and for communities. Main direction of the masses toward to the south for taking sun shine and environmental energy. Living area located end of north area independently, which is for "the healing"

Written by Kyungam Architects Associates Ltd



Transverse Section

1. Hall
2. Atrium
3. PIT
4. Lobby
5. Machine Room
6. Storage Tank
7. Multipurpose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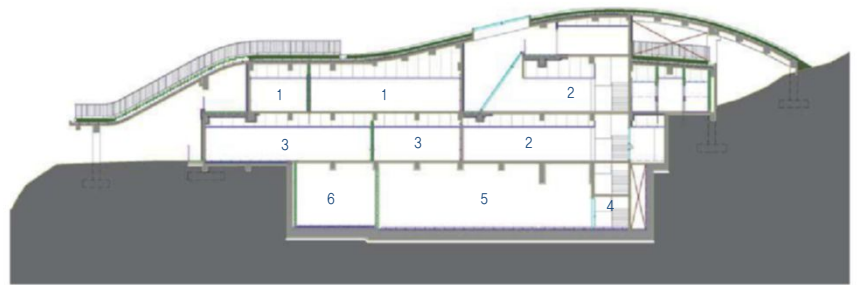
Left Elevation



Rear Elevation



1. Experiential Study Rooms
2. Lobby
3. Classroom
4. Stair Case
5. Machine Room
6. Electric Room



Longitudinal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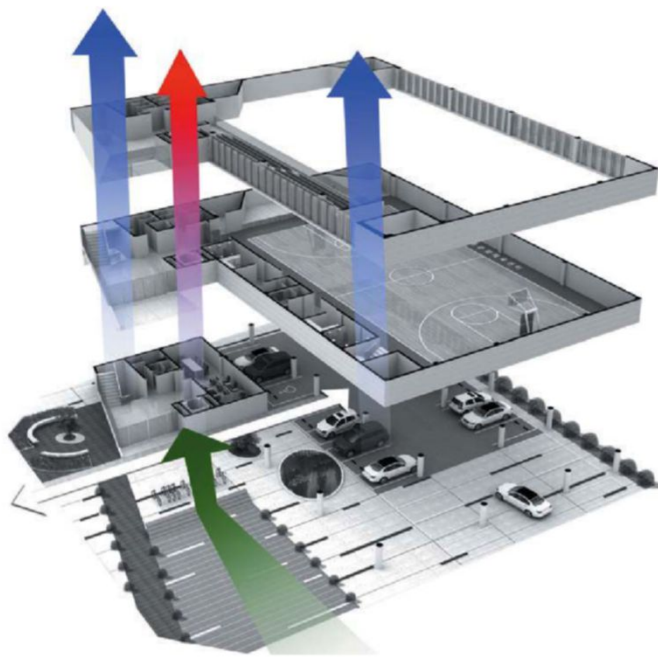


Domestic Competition Winner

Gangdong Culture and Sports Center 강동 문화 체육센터

D' ESSAIM Architects & Engineers CO.,Ltd _ Park, Jongsuk

대상건축사사무소 _ 박종석



Isomet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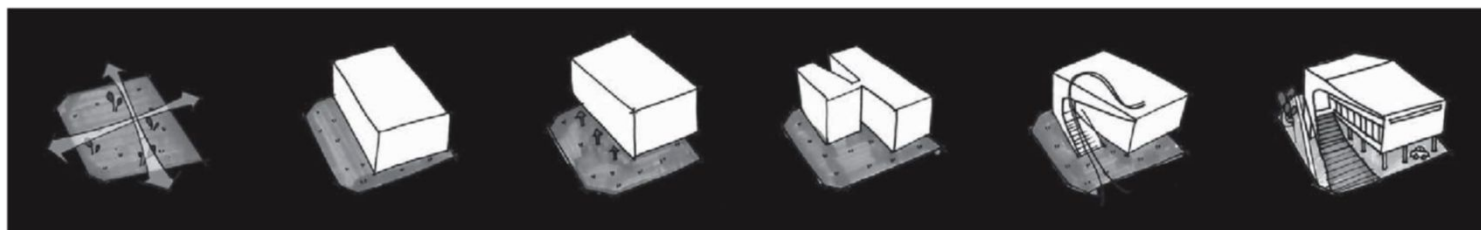
Site Plan

Location Ipseok - dong, Dong - gu, Daegu **District** Quasi - Residential Area, Flight Safety Section of the Fifth District **Use** Exercise Facilities **Site Area** 1,650m² **Bldg. Area** 933.25m² **Gross Floor Area** 1,427.23m² **Bldg. Coverage Ratio** 56.56% **Gross Floor Ratio** 86.50% **Bldg. Scale** 3 Stories above Ground, 1 Stories below Ground **Structure** S.C, S.R.C **Max. Height** 19.4m **Landscape Area** 182.40m² **Exterior Finish** Zinc Metal Panel, Inorganic Fiber Compression Panel, Low - E Double Glazing **Architects** D' ESSAIM Architects & Engineers CO.,Ltd _ Park, Jongsuk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 892-13번지 외 1필지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비행안전 제5구역 **용도** 운동시설 **대지면적** 1,650m² **건축면적** 933.25m² **연면적** 1,427.23m² **건폐율** 56.56% **용적률** 86.50% **규모** 지상3층, 지하1층 **구조** 철골조, 철근 콘트리트조 **최고높이** 19.4m **조경면적** 182.40m² **외부마감** 징크 금속패널, 무기질 섬유 압축패널, 로이 복층유리 **설계** 대상건축사사무소 _ 박종석 **설계참여자** 고경환 · 권용철 · 김현진 · 도영조 · 김인진 · 서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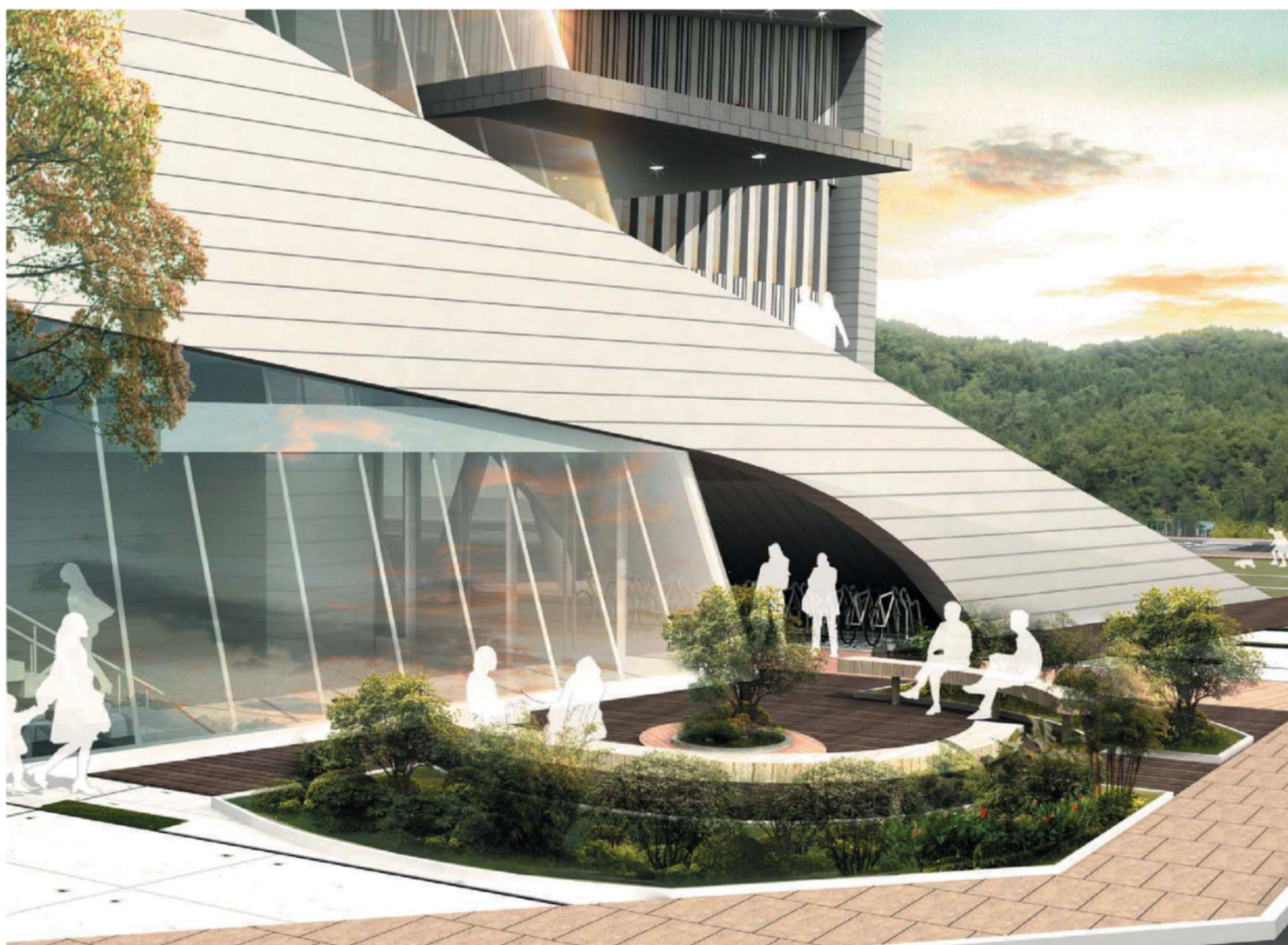
Design Process



Elevation 1



Elevation 2



강동 문화 체육센터

강동 문화 체육센터는 길을 따라 사이트에 자연스럽게 진입하면, 그 길의 연장선과 계단이 서로 만나면서 건물의 입구를 그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주 공간(체육관)을 1층이 아닌 2층에 배치함으로 대지와 건축물의 사이는 자연스러운 경사면을 만들도록 하였다. 경사면을 과감하게 외부공간과 연결하게 만듦으로써 강동 문화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이의 움직임을 유도하고, 그 방향을 결정 지어준다.

경기장의 관람석 또한 이 경사면(계단)의 연장선 위에 있다. 그 이유는 수평의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을 더 잘 보기 위해서다. 즉 이어진 경사들을 통해 수평의 경기장으로 집중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듯 '강동 문화 체육센터'는 운동공간 안에서의 행위자의 움직임뿐 아니라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관람객들의 움직임, 그리고 연결성을 가지는 공간 자체의 움직임을 역동성 있게 표현하였다.

The extension line and the stair on the way are connected in front of the entrance of the building, the Gangdong culture and sports center along the 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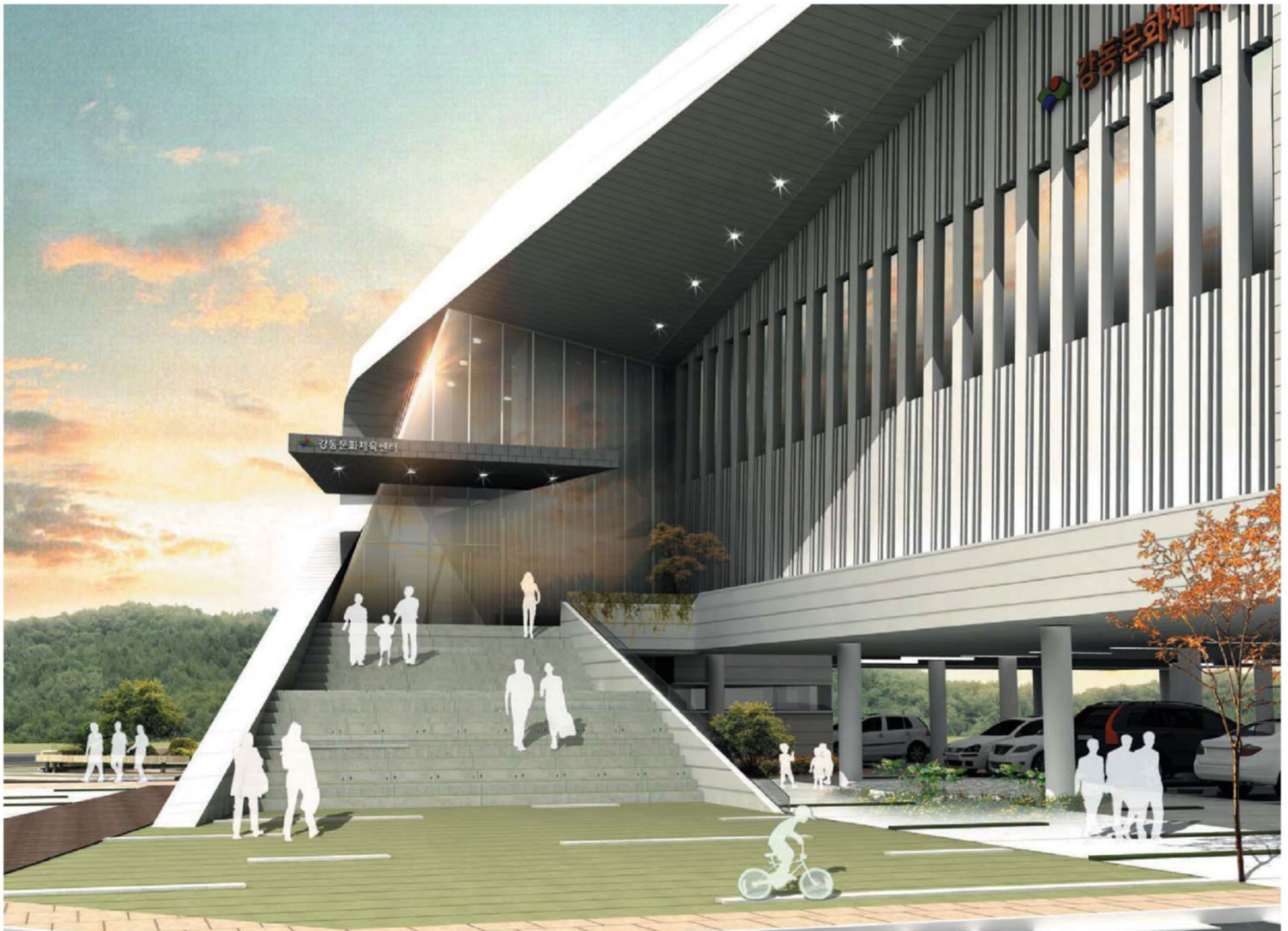
natural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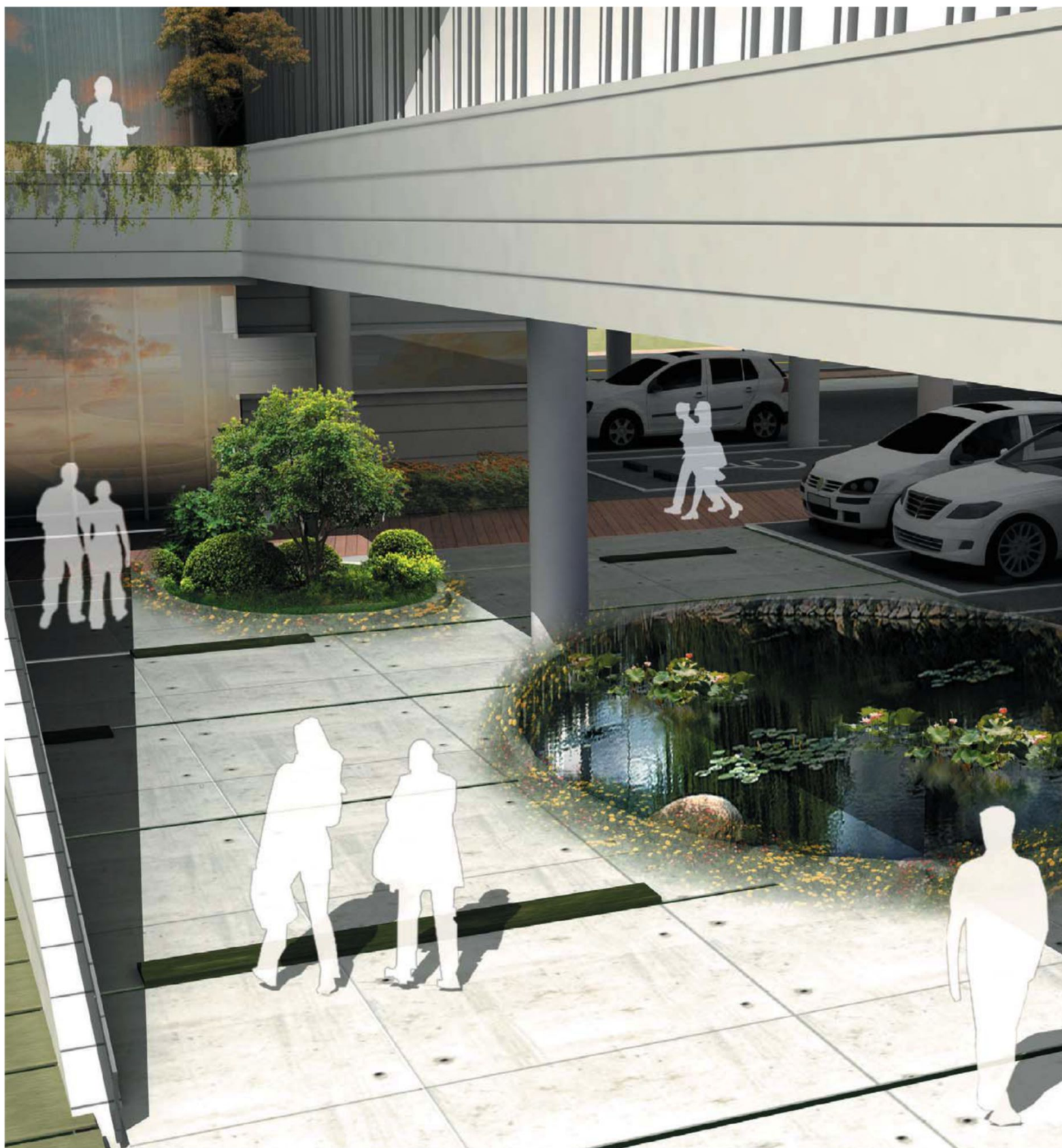
By arranging the main space(Gym) on the second floor but the first floor, the natural inclined plan was made between the land and buildings. The movements of everyone who visit the Gangdong culture and sports center are induced and the direction can be determined by connecting the inclined plane resolutely to the exterior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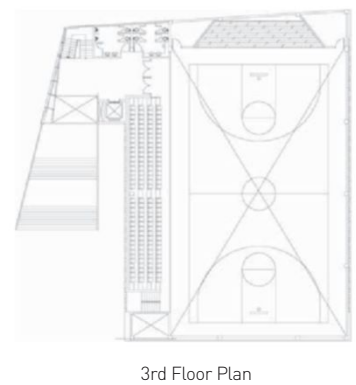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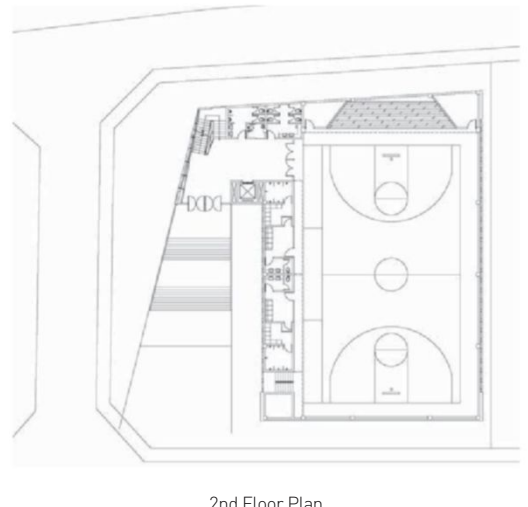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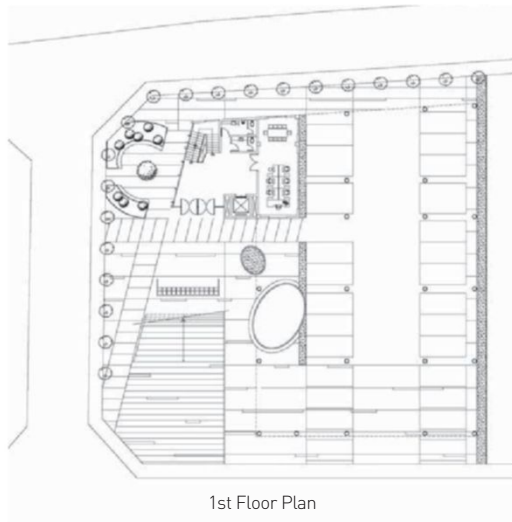
The grandstand of the stadium is also on the extension line of this inclined plane(stair). The reason is that can make the movement in the horizontal stadium can be shown better. In other words, it induces focusing on the horizontal stadium through the connected slopes.

Therefore, the 'Gangdong culture and sports center' expresses the changing a movement of spectators by the movement of the space and the actors' movement in the gym space, and the movement of the space with connectivity dynamic.

Written by D' ESSAIM Architects & Engineers CO.,Ltd







BIG / The Grove at Grand Bay



BIG is a Copenhagen based group of architects, designers and thinkers operating within the fields of architecture, urbanism, research and development. BIG has created a reputation for completing buildings that are as programmatically and technically innovative as they are cost and resource conscious. In our architectural production we demonstrate a high sensitivity to the particular demands of site context and programme.

BIG's completed projects include The Mountain(2008), the World Architecture Festival Housing Award winner, Helsingor Psychiatric Hospital(2006), the Maritime Youth House(2004) and Copenhagen's Harbor Bath(2003), an urban space that transformed the area of Islands Brygge from a run down harbourfront to the recreational and social centre of the city. BIG's completed projects in 2010 include the Danish Pavilion at the 2010 World Expo in Shanghai and the 8 House, a 61,000m² mixed-used project including 500 residential units overlooking the reserve landscape of Kalvebod Commons in Orestaden.

Current buildings under construction include the Danish Maritime Museum in Helsingor, Astana National Library in Kazakhstan, a new Educational Centre on the Faeroe Islands and Shenzhen Energy Mansion in China.

Dominique Perrault Architects / La - Liberte -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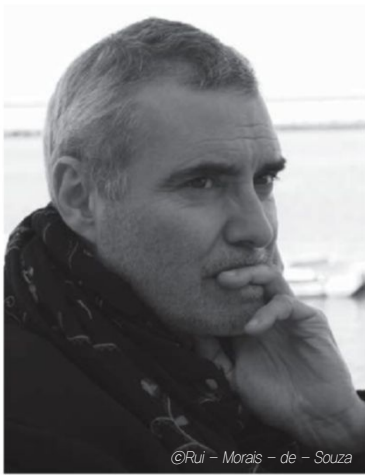


Figure of French architecture, Dominique Perrault gained international recognition after having won the competition for the National French library in 1989 at the age of 36. This project marked the starting point of many other public and private commissions abroad, such as The Velodrome and Olympic swimming pool of Berlin(1992), the extension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n Luxembourg in(1996), the Olympic tennis centre in Madrid(2002), the campus of Ewha's University in Seoul (2004) and the Fukoku Tower in Osaka, Japan(2010).

Steven Holl _ Steven Holl Architects / Sliced Porosity Block



Steven Holl Architects is a 40 - person innovativ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office working globally as one office from two locations; New York City and Beijing. Steven Holl leads the office with senior partner Chris McVoy and junior partner Noah Yaffe. Steven

Holl Architects is internationally - honored with architecture's most prestigious awards, publications and exhibitions for excellence in design. Steven Holl Architects has realized architectural works nationally and overseas, with extensive experience in the arts (including museum, gallery, and exhibition design), campus and educational facilities, and residential work. Other projects include retail design, office design, public utilities, and master planning.

Donaire Arquitectos / A.M Qattan Foundation Building



With the perspective given after a few quiet days, we can now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competition and feel that we are before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jects we have ever had in the office. It is not only its scale what makes it important, but also the ambitious target fixed together with the Foundation for Palestine and the Arab culture in general. We would like to emphasize what an amazing discovery the A.M. QATTAN FOUNDATION has been for us for its ethos and well - functio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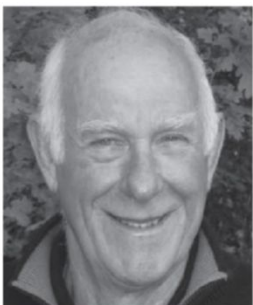
As a practice based in Seville, an area with a long shared history with the Arab culture, we felt from the very beginning a deep attraction to make this an opportunity to research this Arab culture from a contemporary architectural vision.

The opportunity to present our proposal at Birzeit University last 18th of October and share the experience with architects off the highest level, has offered the best environment possible for this task. We would also like to thank the

jury its labour, worthy of the importance of this project.

Finally we highlight the high expectations we have in the opportunity to work in Ramallah, being our intention and target to make the future building felt by the Palestinian people as its own.

Anders Nyquist _ Architect SAR · MSA / Energy Wise House - Villa Odman



I am living in Njurunda in the northern part of Sweden close to the Arctic Circle. I have been working as an architect since 1962, as designer, planner, contractor, teacher and school - master. I have even been managing director for a local architectural office with 90 employees. Since 1991 I have my own architectural office together with my wife Ingrid and in close collaboration with our daughter Karin. We work in networks together with experts and consultants all over the world. I work with small and large scale ecocycle adapted projects, as architect, planner, project manager and mentor.

I teach Eco Cycle Design all over the world and hold lectures for municipalities, companies and organisations.

My book "Green Building and Planning - experiences and visions" has been distributed in many countries.

To be a reliable "green" architect I believe that you shall live as you teach. Therefore we live and work in an eco - village, in an ecocycle adapted home and office. We drive a car fueled by ethanol. We grow our own organic food. We fish. We buy from the local market.